

알파크루시스 신학대 논문집 제4권
Journal of Alphacrucis College Korean Campus



ALPHACRUCIS COLLEGE

권두언

Dr. Rev. 권다윗 학장
(Dean of Korean Department of Alphacrucis College, ThD)

“신학을 즐겨라, 그리고 행복 하라!”

미국 갤럽연구소가 18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행복도 조사결과 ‘아이슬란드’인들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아이슬란드 대학교 사회학자 소르린드 교수는 “행복의 비결은 생활의 안락함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에 있으며 불편함 속에서도 아이슬란드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환경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 했다. 그들은 추운 북대서양에 고립되어 바다와 싸워야 하는 삶을 살고 있다. 겨울과 여름에는 밤과 낮이 20시간씩 계속되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다. 고기잡이가 주업인 이들의 국가 규모는 인구 30만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이다. 겉보기엔 이토록 보잘것없는 이들이 행복한 이유가 단순히 이런 환경을 즐길 줄 안다는데 있다는 것이다

학문의 세계도 같은 원리라고 본다. AC 학문공동체에서 우리는 신학을 즐기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 마치 꿀벌이 꽃밭에서 꿀을 생산하듯, 우리는 서로가 습득한 지식에서 자극받으며 자기의 학문을 갈무리 했다. 자칫 어렵고 딱딱하기 쉬운 신학의 광장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논쟁했다. 그리고 수많은 논쟁 가운데서 서로 즐기며 함께 해답을 찾으며 행복해 했다. 우리의 논쟁은 지적 자극을 주기에 충분했다. 우리가 이 학문의 세계를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토론 속에 나름 최상의 가치기 되는 논지가 있고,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여백이 있어 ‘나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매달 초입에 발표하는 교수들의 학술 발표와 논찬은 AC학문공동체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학광장이다. 이것이 바로 ‘학문하는 교수의 행복’이라 정의할 수 있다.

가치와 가치의 대결에서 결론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들을 즐기고 누림이 좋고, 여기에서 찾아오는 행복한 나를 보는 편이 결론이고 신학 하는 이유라고 보기 때문이다.

“오직 믿음”을 절규하며 신앙의 본질을 찾기 위해 외쳤던 개혁자들의 외침이 점점 흐려져 가는 ‘시대의 아픔’을 우리는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렇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장 휴스가 생명 다해 고수했던 “진리 사랑”에 있음을 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빛난다고 했던가? 태풍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사람을 살리는 학문하는 사람을 보기 원하실 것이라고 믿고, 이들이 이 시대에 주어진 짐들을 질 줄 아는 사람들이라 말하고 싶다.

우리의 신학과 신앙이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를 늘 늘 고민하며 숙성해온 AC 교수논문집, <신학과 상황>은 학문의 세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기에 손색없을 것으로 자부한다. 수고하신 교수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보낸다.

차례(Table of Contents)

권두언

Dr. Rev. 권다윗(Dean of Korean Department of Alphacrucis College, ThD)

특집: 남북관계 화해를 위한 교회의 역할

- | | | |
|----------|--|----|
| 1 | 거짓 평화와 참 평화: “칼을 쳐서 보습으로” (미 4:1-5)
차준희(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 | 1 |
| 2 | The Development of Mentoring Practices:
Guidelines for Korean-Chinese in Yoido Full Gospel Church
Dr. Rev. Ildoo KWON(Yoido Full Gospel Church, International Ministry Director) | 16 |

교수 논문

- | | | |
|----------|---|-----|
| 3 | A Study of Biblical Figures and their Character Strengths through the Lens of Positive Psychology
Dr. Rev. Ki Tae SONG(Alphacrucis College, Lecturer) | 29 |
| 4 | 로마서 1:3-4의 기독교론 이해: 로마서 주제들의 연결성을 따른 접근
최영현(Alphacrucis College 교수) | 67 |
| 5 | 툼 라이트의 칭의론에 관한 소고
이명구(Alphacrucis College 교수) | 99 |
| 6 | 본회퍼의 교회론
임세근(Alphacrucis College 교수) | 108 |
| 7 | 21세기 한국 교회 예배 갱신의 방향: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의 갈등을 넘어서
이승학(Alphacrucis College 교수) | 123 |
| 8 | 호주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역사와 실제 연구
류성준(Alphacrucis College 교수) | 160 |

거짓 평화와 참 평화: “칼을 쳐서 보습으로”(미 4:1-5)

차준희

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

- 1 들어가는 말
- 2 미가 4:1-5의 본문구조
- 3 미가 4:1-5의 본문 분석
- 4 미가서의 평화
- 5 나가는 말

초록(Abstract)

교회는 복음전도뿐만 아니라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적어도 오늘의 본문에서는 열방의 민족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토라와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은 군비축소와 평화를 위한 행동과 연결된다. 달리 말하면, 복음의 의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가는 예배 공동체의 청중에게 평화를 이루는 행동들에 같이 참여하도록 촉구한다.

미가와 이사야는 국제적인 무기축소와 평화를 향한 일에 말과 행동으로 모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성서는 이 땅에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평화가 성취되도록 성도들이 정치적인 결정과정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동시에 반 평화적인 기존의 질서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기를 명령한다.

따라서 성서가 말하는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지 않는다. 성서적 샬롬의 의미는 전쟁이 없는 상태는 물론이고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적극적이다. 전쟁이 없는 평시라 하더라도 전쟁과 갈등의 불씨가 되는 사회적 불의와 억압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성서적 샬롬은 아니다. 성서적 샬롬은 정의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 또한 공동체 전체의 온전함을 지향한다.

예수시대에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는 군사력으로 다른 민족과 다른 국가를 정복하고 나서 평화가 왔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그것을 ‘팍스 로마나’(Pax Romana) 즉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는 성서적 샬롬은 아니다. 힘으로 상대를 억압하고 반대자의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성서가 말하는 평화(샬롬)은 아니다. 우리는 이런 평화를 ‘죽은 숲 속의 평화’라고 한다. 이는 거짓 평화이다. 아니 평화를 가장한 불의이다.

성서적 샬롬은 상호 대화를 통한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며, 전쟁 없는 세상, 또한 먹거리를 걱정하지 않는 경제 정의와 약자가 강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정의 그리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동체 정의를 말한다.

주제어(Keywords)

미가, 이사야, 평화, 하나님의 평화, 참 평화, 거짓 평화

1 들어가는 말

이화여자대학 기독교학과의 장윤재 교수의 다음의 진술은 간과하기 쉬운 인류 역사의 중대한 단면을 직시하게 한다.

문자기록으로 남아 있는 인류의 역사는 3,525년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역사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그중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해는 전체의 고작 8%인 286년밖에 안 된다고 한다. 나머지 92%인 3,239년 동안 인류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전쟁을 벌였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날이 새서 전쟁으로 날이 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평화의 시기를 살다가 가끔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늘 전쟁의 시기를 살다가 가끔 평화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것이 더 사실에 가까운 정확한 역사관이다.¹

지나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이 일상이었고 평화가 특별한 상황이었다는 불편한 진실은 현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하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의 전쟁은 과거의 전쟁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 점이 오늘의 우리를 더욱 옥죄고 있다. 조용훈 교수는 다음과 같이 현대적 전쟁의 가공할만한 위험을 잘 표현하고 있다.

핵전쟁은 적의 목숨만 아니라 아군의 목숨도 위태롭게 하며, 전투요원만 아니라 민간인의 목숨을 빼앗으며, 인류의 목숨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를 포함한 지구적 과멸을 가져오는 대재앙이 될 수 있다. 핵전쟁은 현재의 인류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끔찍한 고통을 남긴다. 핵전쟁에서는 승자 없이 모두가 패배자가 된다. 따라서 핵무기로 무장한 시대에 평화란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평화 외에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일찍이 예언자 이사야(미가)가 꿈꾸었던 평화의 비전이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사회보다 더 절실한 때는 없었다.²

이 글은 성서적 평화의 핵심을 담아내고 있는 미가 4:1-5의 본문을 중심으로 성서적 살림(평화)의 의미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2 미가 4:1-5의 본문구조

- 1) 1-4절: 평화의 약속
- 2) 5절: 신앙공동체의 응답

미가 4:1-5는 구약성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이다.³ 이 단락은 구원의 말씀(Heilswort: word of salvation)으로서 야웨께서 이루실 평화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다(1-4절).

¹ 장윤재, “세계화 시대, 성장의 종말과 그리스도교의 선교,” *무례한 복음*, 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 편. (서울: 산책자, 2007), 244-67, 특히 250를 참고하라.

² 조용훈, *우리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열 가지 말씀: 십계명의 영성과 윤리*(서울: 동연, 2015), 200.

³ 랄프 스미드, *WBC 성경주석: 미가 말라기*, 채천석, 채훈 역 (서울: 솔로몬, 2001), 65.

이어서 하나님의 평화의 약속에 대한 신앙공동체의 응답으로 끝난다(5절).

3 미가 4:1-5의 본문 분석

3.1 평화의 약속(미 4:1-4)

- 1) 끝 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 2)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 3)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 4)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1절의 “끝 날에”라는 표현은 먼 미래를 상징한다. 그러나 이 말은 세상이 끝장나는 종말의 날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종말의 날을 말한다면, 이 땅에서의 평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자인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끝 날에”는 현재 세계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질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말한다.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평화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분명히 실현될 것이다.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할 뿐이다. 여기서 시온은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로 소개된다. 시온은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실제 시온은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은 아니다.⁵

이 구절에서의 시온은 앞선 구절인 미가 3:12의 시온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묘사된다. 미가 3:12에서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된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된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⁴ R. Kessler, *Herders Theologischer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Micha* (Freiburg: Herder, 1999), 183.

⁵ J. D. Nogalski,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The Book of the Twelve, Micah-Malachi* (Macon, Georgia: Smyth & Helwys Publishing, 2011), 556.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미가 4:1에서 시온은 야웨의 전의 산으로 언급되며,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몰려드는 곳이 된다. 여기서 시온은 회복되고 구원을 받는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인 우두머리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시온과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 초토화된다. 그러나 여기서의 시온과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된다.

따라서 미가서는 3장에서의 심판이 아주 없애 버리고 제거해버리는 멸절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 변화된 세상,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세상의 건설에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의도는 제거가 아니라 회복이다.⁶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에서 “몰려가다”(나하르)는 물이 흐르는 것을 묘사한다. 민족들은 마치 범람하는 강물이 밀려오듯 예루살렘으로 밀려오고 있다.⁷

2절에 의하면, 이방민족들이 야웨의 산인 시온에 몰려든다. 이러한 행렬은 이방민족이 예루살렘에 조공을 바치는 모습이 아니다. 여기서 “야웨의 산에 올라가서”에서 “오르다”(알라)는 순례를 가리키는 전문용어이다.⁸ 이방민족들은 하나님의 도성에 오른다. 이방민족들의 순례의 목적은 야웨 하나님이 가르치는 인생의 바른 길을 배우기 위함이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다. 여기서도 우리는 토라의 복음이 행동을 통한 성화보다 우선임이 밝혀진다.⁹ 하나님의 가르침이 먼저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법이다. 은혜가 먼저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2절)

이 단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 3절이다. “칼을 쳐서 보습으로”라는 구절은 평화의 방법을 알려준다. “심판하다”(샤파트)는 징벌의 의미 보다는 본래 서로 다투는 집단에 의하여 깨져버린 질서의 회복을 의미한다.¹⁰ 모든 분쟁과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시 96:13).

⁶ 김근주, *소예언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2: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서울: 성서유니온, 2007), 251.

⁷ 송병현, *두란노 HOW 주석: 호세아, 미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231.

⁸ Kessler, *Micha*, 184.

⁹ *Ibid.*, 184-5.

¹⁰ J. Jeremias, *Das Alte Testament Deutsch: Die Propheten Joel, Obadja, Jona, Micha*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7), 173-4.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한 기초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민족들”(이방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신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구절은 이방민족들을 제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들을 야웨 신앙인으로 개종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이 구절은 이방민족들과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¹¹ 하나님은 국가 간의 전쟁과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중재자이시며 재판관이시다.¹²

갈등이 평화적으로 조정되고 나서야 비로소 군비축소가 가능해진다. 그래야 전쟁무기를 녹여서 평화의 농기구로 만들게 된다. 더는 전쟁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언급된 “칼을 쳐서 보습으로”는 아주 유명한 표어가 되었다. 미국의 유명한 팝송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이 1991년에 작곡한 노래 “세상을 치료하라”(Heal the World)에서 “열방들이여 그대들의 칼을 농기구로 만들라”(See the nations turn their swords into plowshares)라는 가사가 나온다. 1993년 미국의 빌 클린턴(Bill Clinton)대통령이 무기 공장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연설했다. “세계 최고의 무기 생산자는 세계 최고의 농기구 생산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이다.”¹³

그런데 여기서 일러주는 평화 이후의 군비축소라는 순서가 중요하다. 군축을 통한 평화가 아니다. 평화를 통한 군축이다. 군축한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 평화가 와야 군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평화는 무력으로 만들 수 없다. 평화는 정의와 타협의 조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¹⁴ 이 땅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힘이 들더라도,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적들과의 끊임없는 대화가 필수적이다. 평화는 무한한 인내를 요구한다.

유리한 대화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힘을 키우고 군사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갈등만 고조시킬 뿐이다. 작금의 북한 핵실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갈등의 고조는 자칫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대의 전쟁은 당사자들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악마적인 만행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 자멸한다. 한반도는 더욱 그러하다.

평화는 무기에서 오지 않는다. 평화는 결코 내가 가진 힘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평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 땅을 다스리시는 야웨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율법과 말씀에 귀를

¹¹ Kessler, *Micha*, 185.

¹² Nogalski, *Micah-Malachi*, 557.

¹³ Kessler, *Micha*, 189.

¹⁴ Kessler, *Micha*, 186.

기울이는 데서 비롯된다.¹⁵ 우리는 북한이 하루빨리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동북아의 국제정세를 긴장관계로 몰고 가는 행태를 중단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이다.

4절은 하나님의 평화를 공개한다. 여기서 “각 사람”은 평화를 누리는 이 땅의 모든 백성과 유다의 백성 모두를 포괄한다. 따라서 “각 사람”은 모든 개개인을 말한다. 평화의 세상에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생존에 위협도 없고 불편을 격지도 않는다. 모두가 각자의 포도나무 아래와 각자의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을 누린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당시 고가의 과실이였다.¹⁶ 따라서 모두가 번영과 안녕을 누린다.¹⁷ 이 표현은 전형적인 평화의 상태를 드러낸다.

또한 “두려워 할 자가 없으리니”라는 표현도 일상에서 경험하는 평화로운 생활 전경을 가리킨다.¹⁸

5)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6)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레 26:5-6).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는 표현은 구약성서에서 평화로운 상황을 묘사한다. 그런데 이 표현을 담고 있는 세 구절(왕상 4:25; 왕하 18:31; 슥 3:10)은 오늘의 본문인 미가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평화와는 구별된다.

미가 4:4는 “이는 만군의 야웨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고 끝낸다. 미가가 본 참 평화에 대한 비전은 야웨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점을 강조한다.¹⁹ 미가가 본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이다.

3.2 신앙공동체의 응답(미 4:5)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¹⁵ 김근주, *요나, 미가, 나훬, 하박국*, 258.

¹⁶ H. W. Wolff,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Dodekapropheten 4: Micha*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2), 94.

¹⁷ Jeremias, *Joel, Obadja, Jona, Micha*, 174.

¹⁸ R. Oberforcher, *Neuer Stuttgarter Kommentar Altes Testament: Das Buch Micha*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1995), 98.

¹⁹ Oberforcher, *Micha*, 98.

5절은 예배공동체의 응답으로 보인다.²⁰ 이 구절은 야웨 하나님과 그의 약속에 대한 신앙공동체의 고백을 표현하고 있다. 만민은 각각 자신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고 행한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야웨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한다(할라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평화 약속을 신뢰한다. 신앙인은 전쟁 없는 세상은 허황된 꿈이라는 조롱에 맞선다. 전쟁 없는 세상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아를 굳게 믿는다. 그리고 전쟁 없는 세상을 내 주변부터 만들어 간다. 신앙공동체는 이러한 약속을 예배를 통하여 재차 확인하고 약속의 성취를 확신한다.

이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의 평화는 열방을 모두 품고 있다. 유다 백성은 이방 민족들을 위한 구원의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명은 이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소명에서 알려진 바 있다. 아브라함의 소명은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이다.²¹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창 12:3).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창 18:18).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가 사는 곳에서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애쓰는 것이다.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다.

4 미가서의 평화

4.1 솔로몬의 평화(왕상 4:25): 세금, 조공, 군대의 힘에 기초

먼저 솔로몬 시대의 평화에 대하여 알아보자. 솔로몬의 평화는 열왕기 4장에서 발견된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 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왕상 4:25).

“솔로몬의 평화”(Pax Salomonica)는 이방에 대한 정복, 탈취 그리고 압제에 근거한 평화이다.²²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와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관하여 기록하고

²⁰ A. 바이저, K. 엘리거, *국제성서주석: 소예언서*(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112.

²¹ Oberforcher, *Micha*, 99.

²² Kessler, *Micha*, 186.

있다. 그런데 열왕기상 4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솔로몬 통치의 문제가 숨어있다.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의 평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솔로몬의 평화는 남 유다를 제외한 북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세금에 근거하고 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열두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일 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왕상 4:7).

솔로몬은 유다 출신이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덕분에 북 이스라엘까지 포함하여 유다와 이스라엘을 모두 통치할 수 있었다. 아버지 다윗은 북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그들과의 계약에 충실히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들 솔로몬은 달랐다. 솔로몬은 분명히 지혜의 왕이었지만 그의 통치는 지혜롭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지킬 박사와 하이든”²³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이다.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다. 솔로몬은 자신과 왕실을 위한 양식을 위하여 출신 지역인 유다를 제외하고 북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열둘로 나누어 억지로 분담 지켜서 세금의 의무를 부과했다(왕상 4:7, 20). 자신의 왕정을 위한 국고를 공평하지 못한 세금으로 충당한 것이다.

둘째, 솔로몬의 평화는 이방국가의 조공에 기초하고 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왕상 4:21).

솔로몬의 왕국은 이방국가를 억압하고 그들에게서 탈취한 조공으로 유지되는 나라였다. 현재의 본문은 유다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하듯이, 솔로몬의 이방나라 통치에도 그늘이 있었다. 솔로몬 통치의 어두운 면은 솔로몬의 일용한 양식에 대한 보고에서도 은근히 폭로된다.

22)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삼십 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육십 고르요
23) 살진 소가 열 마리요 초장의 소가 스무 마리요 양이 백 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왕상 4:22-23).

물론 이 엄청난 음식은 솔로몬 개인이 다 드시는 것은 아니다. 솔로몬에게 속한 궁중의 사람들이 하루 소비하는 것이다. 아무튼 솔로몬의 평화는 이방나라에 대한 정복과 그들로부터 빼앗은 조공 위에 세워진 것이다.

셋째, 솔로몬의 평화는 군대의 힘에 의존한다.

²³ 브루스 C. 버치 외 3인, *신학의 렌즈로 본 구약개관: 한국구약학연구소 총서*, 차준희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364.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사만이요 마병이 만 이천 명이며(왕상 4:26).

솔로몬이 이끄는 병거의 말을 돌보는 외양간만 사만에 달하였고, 이를 다루는 군사인 마병이 만 이천 명이나 대기하고 있었다. 실로 엄청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솔로몬의 평화는 무력에 근거한 평화였다.

이러한 솔로몬의 평화는 과중한 세금과 억압에 의한 조공 그리고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다. 솔로몬의 평화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평화가 아니다. 이것은 거짓 평화이다. 자신의 희생이 생략되고 타인의 희생 위에 세워진 평화는 거짓 평화이다.

4.2 아시리아의 평화(왕하 18:31): 상대의 굴복에 기초

이제 아시리아의 평화에 대하여 알아보자. 아시리아의 평화는 열왕기하 18장에 담겨 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앗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왕하 18:31).

아시리아의 평화(Pax Assyrica)는 아시리아의 대왕에 대한 유다의 굴복에 근거한 평화이다. 열왕기하 18장은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이 유다 왕 히스기야를 치려고 일으킨 전쟁을 기록하고 있다. 히스기야는 당시 대제국인 아시리아에 예속된 위성 국가였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중주국 아시리아에 바치던 조공을 중단했다. 아시리아는 응징의 차원에서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한다. 이때 유다국가는 46개의 성읍을 상실했고, 수도 예루살렘만 남은 위기의 상태였다.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대군에 의하여 포위된 위기의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는 이사야서에 잘 담겨 있다.

7)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8)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 같이,
참외밭의 원두막 같이,
에워싸인 성읍 같이 겨우 남았도다
9)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사 1:7-9).

이때 산헤립의 신하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안에 갇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한 말이 열왕기하 18:31이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각기 자신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는 평화”를 보장한다는 회유의 발언이었다. 이때 언급된 아시리아의 평화는 유다의 정치적 굴복 위에

보장된 평화였다. 이러한 아시리아의 평화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아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굴복이나 굴욕에서 비롯된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니다. 거짓 평화이다.

4.3 이스라엘의 평화(슌 3:10): 이기적 평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평화는 어떠한가. 이스라엘의 평화는 스가라의 예언에서 발견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슌 3:10).

이 본문은 스가라가 환상으로 본 내용이다. 야웨 하나님은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신다. 유다 백성 각자는 본토에서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풍성한 양식을 취하며 평화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임을 이 본문은 보여준다. 그러나 이 평화도 유다 백성만 누리는 평화로 제한된다. 특정 민족이나 집단만 누리는 평화는 제한적인 평화이지 온전한 평화는 아직 아니다.

4.4 미가의 평화(미 4:4): 조정과 타협의 결과, 모두의 평화

이제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미가가 본 하나님의 평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미가 4:4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화는 솔로몬의 평화와 아시리아의 평화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화와는 다르다.

첫째, 미가의 평화는 무력과 협박이 아닌 조정과 타협에 의한 결과이다. 미가가 본 하나님의 평화에서 말하는 안정된 삶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굴복에 의한 결과가 아니다. 이방 나라들과의 평화스러운 조정과 타협에 기반 한 것이다.²⁴ 2절에 따르면, 많은 이방 사람들은 야웨의 율법과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이정표를 배우려고 시온으로 몰려든다. 3절에서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판결하여 조정하고 본래의 관계로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나서 인류는 전쟁의 무기를 평화의 농기구로 만들고 전쟁을 포기한다. 4절의 “각 사람”은 유다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다. 미가는 상대국가의 굴복을 말하지 않는다. 이점에서 미가는 솔로몬의 평화나 아시리아의 평화와 다른 평화를 말한다. 하나님의 평화는 상대를 무력화시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평화인 하나님의 평화는 상호 조정과 타협으로 서로 윈윈(win-win) 하면서 만들어진다.

둘째, 미가의 평화는 일부가 아닌 모든 민족이 누리는 평화이다. 미가가 말하는 하나님의 평화는 한 민족으로만 국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평화는 모든 민족이 누린다.²⁵ 이점에서 미가는 스가라가 본 이스라엘만의 평화를 넘어선다. 하나님의 평화는 온 인류를 포함한다. 어느

²⁴ Kessler, *Micha*, 186.

²⁵ *Ibid.*, 186.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누리는 평화만이 참 평화가요 하나님의 평화이다. 모두가 평화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이다.

5 나가는 말

교회는 복음전도뿐만 아니라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적어도 오늘의 본문에서는 열방의 민족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토라와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은 군비축소와 평화를 위한 행동과 연결된다.²⁶ 달리 말하면, 복음의 의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가는 예배 공동체의 청중에게 평화를 이루는 행동들에 같이 참여하도록 촉구한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할라크] , 미 4:5).

이사야 2:2-5의 본문은 미가 4:1-5와 아주 유사하다.

- 2) 말일에 여호와와 그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 3)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 4)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 5)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빛에 행하자(사 2:2-5).

이사야 2:2-5도 평화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에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촉구하며 끝낸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빛에 행하자([할라크] , 사 2:5).

²⁶ 제임스 린버그, *현대성서주석: 호세아 미가*, 강성열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287.

미가와 이사야는 국제적인 무기축소와 평화를 향한 일에 말과 행동으로 모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성서는 이 땅에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평화가 성취되도록 성도들이 정치적인 결정과정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동시에 반 평화적인 기존의 질서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기를 명령한다.

상대를 억압하고 억울하게 하고 이루어지는 솔로몬의 평화는 거짓 평화이다.
상대를 굴복시키고 이루어지는 아시리아의 평화도 거짓 평화이다.
자신만 누리는 이기적인 이스라엘의 평화도 온전한 평화는 아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먹거리를 걱정하지 않는 삶이 참 평화요 하나님의 평화이다.²⁷
남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삶이 참 평화요 하나님의 평화이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삶이 참 평화요 하나님의 평화이다.

따라서 성서가 말하는 살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지 않는다. 성서적 살롬의 의미는 전쟁이 없는 상태는 물론이고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적극적이다. 전쟁이 없는 평시라 하더라도 전쟁과 갈등의 불씨가 되는 사회적 불의와 억압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성서적 살롬은 아니다.²⁸ 성서적 살롬은 정의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 또한 공동체 전체의 온전함을 지향한다.

장윤재 교수가 주장한 성서적 살롬에 대한 다음의 정의는 놀랍게도 우리의 분석과 맥을 같이 한다.

살롬은 첫째, ‘사회적 정의’를 강조한다. ‘정의의 바탕 위에 세워진 평화’(peace based on justice)가 살롬이다. 그래서 요즘 영어권에서는 정의를 뜻하는 justice와 평화를 뜻하는 peace를 한 단어로 합쳐 ‘justpeace’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특별히 돌보는 야훼 하나님은 정의에 기초한 평화를 강조하신다. 둘째로 살롬은 사회 전체의 ‘온전성’(integrity)을 강조한다. 모두가 행복한 평화가 살롬이라는 말이다. 살롬의 반대말은 ‘췌다’인데, 그 뜻은 무엇이 ‘깨지다’, ‘쪼개지다’, ‘상하다’이다. 만약 사회 구성원의 단 한 명이라도 불의와 억압과 고통으로 깨지거나 쪼개지거나 상하면, 설사 나머지 구성원이 행복하더라도 『성서』는 그것을 결코 살롬이라 부르지 않는다.²⁹

예수시대에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는 군사력으로 다른 민족과 다른 국가를 정복하고

²⁷ “다른 존재는 다 죽어도 혼자서만 죽지 않는 것, 더 나아가 다른 존재를 희생시키고라도 자기 자신의 실존만을 극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무어라 부르는가? 그것이 ‘암세포’이다. 그런 불평등과 불의와 반평화적 현실은 전쟁과 죽음과 파괴를 가져온다. 하지만 한자에서 암(癌)의 반대는 평화(平和)이다. 평화는 平(공평한 저울)에 禾(벼, 쌀) 그리고 口(입)가 합친 말이다. 우리의 입에 공평하게 밥이 들어갈 때 평화가 온다는 뜻이다. 이것이 경제적 정의에 기초한 평화(justpeace), 즉 살롬의 평화이다.” 장윤재, “세계화 시대, 성장의 종말과 그리스도교의 선교,” 262-3.

²⁸ Ibid., 251-2.

²⁹ Ibid., 252.

나서 평화가 왔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그것을 ‘팍스 로마나’(Pax Romana) 즉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는 성서적 샬롬은 아니다. 100여 년 전 조선을 강점한 일본은 무력으로 모든 저항을 진압하고 평화가 왔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것을 ‘팍스 자포니카’(Pax Japonica) 즉 ‘일본의 평화’라고 선포했다. 그러나 이것도 성서적 샬롬은 아니다. 힘으로 상대를 억압하고 반대자의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성서가 말하는 평화(샬롬)은 아니다. 우리는 이런 평화를 ‘죽은 숲 속의 평화’라고 한다. 이는 거짓 평화이다. 아니 평화를 가장한 불의이다.³⁰

이 쌍둥이 본문(이사야와 미가 본문)은 세계 사람들의 상상력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뉴욕에 있는 UN본부 건물의 한 벽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향하여 칼을 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도 않을 것이다.³¹

성서적 샬롬은 상호 대화를 통한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며, 전쟁 없는 세상, 또한 먹거리를 걱정하지 않는 경제 정의와 약자가 강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정의 그리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동체 정의를 말한다.

³⁰ Ibid., 261.

³¹ 립버그, *호세아-미가*, 288.

참고문헌

- 김근주. *소예언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2: 요나·미가·나훔·하박국*. 서울: 성서유니온, 2007.
- 림버그, 제임스. *현대성서주석: 호세아·미가*. 강성열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 바이저, A., K. 엘리거, *국제성서주석: 소예언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 버치, 브루스 C., 월터 브루그만, 테렌스 E. 프레타임, 데이비드 L. 페터슨. *신학의 렌즈로 본 구약개관: 한국구약학연구소 총서*. 차준희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 송병현. *두란노 HOW 주석: 호세아·미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 스미드, 랄프. *WBC 성경주석: 미가·말라기*. 채천석, 채훈 역. 서울: 솔로몬, 2001.
- 장윤재. “세계화 시대, 성장의 종말과 그리스도교의 선교.” *무례한 복음*. 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 편, 244-65. 서울: 산책자, 2007.
- 조용훈. *우리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열 가지 말씀: 십계명의 영성과 윤리*. 서울: 동연, 2015.
- Kessler, R. *Herders Theologischer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Micha*. Freiburg: Herder, 1999.
- Nogalski, J. D.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The Book of the Twelve, Micah-Malachi*. Macon, Georgia: Smyth & Helwys Publishing, 2011.
- Jeremias, J. *Das Alte Testament Deutsch: Die Propheten Joel, Obadja, Jona, Micha*.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7.
- Wolff, H. W. *Bibli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Dodekapropheten 4: Micha*.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2.
- Oberforcher, R. *Neuer Stuttgarter Kommentar Altes Testament: Das Buch Micha*.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1995.

The Development of Mentoring Practices: Guidelines for Korean-Chinese in Yoido Full Gospel Church

Dr. Rev. **Ildoo KWON**

Yoido Full Gospel Church, International Ministry Director

- 1 Introduction
- 2 Methodology
- 3 Research Findings
- 4 Eight Mentoring Guidelines for the Korean-Chinese in YFGC
- 5 Conclusion: Final Comments

Abstract

Approximately 100 Korean-Chinese are currently members of Yoido Full Gospel Church (YFGC). This number may seem insignificant in a church of 480,000 members, yet we believe that God is interested in working with small and marginalized groups of people to use them to their full potential. God sees a mustard seed, not just as a small and insignificant seed, but also as a big and precious tree that one day will produce abundant life (see Mark 4:31–32).

YFGC has been blessed with a group of talented multicultural people who are ready to engage in new glob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e church needs to pay more attention to these individuals, thoughtfully establishing a program to recruit, train, and groom them to take a leading role in world missions.

Compared to other Korean churches, YFGC's leadership style is unique. Because of the history of YFGC and the influences of Korean society, it is also complicated when compared to that of other Korean churches.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al trends of the twenty-first century, however, clearly demand that church leaders adopt new attitudes and teach new skills to enhance the abilities of this church's leaders.

Embracing Korean-Chinese Christians in the manner that I have proposed in this chapter will, I believe, enrich our own understanding of who we are, giving us a new appreciation of God's great love for us. As disciples of Jesus, we need to value differences and promote diversity within the body of Christ so that we can learn from one another. It is my prayer that this research will help to enable change and to enhance the way leadership at YFGC is practiced from day to day so it can more significantly strengthen the worldwide body of Christ.

Keywords

Yoido Full Gospel Church (YFGC), Korean-Chinese Christians, multicultural, mission, mentoring relationship

1 Introduction

As globalization draws the peoples of the world closer together, the church must understand the attitudes, skills, and abilities required of its leaders, who increasingly must realize the need for multicultural leadership. As James Plueddemann has stated, “World missions must be multicultural because the gospel is for everyone and the Great Commission is for all believers.”¹

Korea is the second largest missionary-sending country in the world.² World mission has been a passion for Korean churches from the early years of Korean church history. Korea also has the largest denominational churches in the world, including Baptist, Full Gospel, Methodist, and Presbyterian. Many Korean churches, however, are now facing challenges in missions because globalization is implicitly calling for changes in their leadership, which up till now has been almost exclusively monocultural.

Yoido Full Gospel Church (YFGC) has been one of the largest and most influential churches,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he world. YFGC has been a global church, commissioning 750 missionaries worldwide and leading major mission projects in various countries. This church, however, now faces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because of globalization,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and new social movements as it seeks to gain a fresh perspective and find new ways to do mission.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facing the church is the need for it to adopt a more sensitive cross-cultural understanding of people who are currently part of the church but who come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Unfortunately, the church lacks cross-cultural pastors and for the most part has failed to recognize different cultures, all of which limits the church’s ability to engage the new glob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resent today.

Korean society has been monocultural for thousands of years. The language and culture remained largely unchanged until the country suffered a series of invasions by neighboring Japan, China, and, indirectly, Russia, which infiltrated lands with large expatriate Korean communities and allowed North Korea to invade South Korea in 1950. As a result millions of Koreans were forcibly displaced into these countries. For example, for almost three generations, an estimated two million displaced Koreans have been living in China, mostly concentrated in

¹ James E. Plueddemann, *Leading across Cultures: Effective Ministry and Mission in the Global Church*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09), 22.

²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 (KWMA), http://kwma.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s_03&wr_id=44.

the northeastern region. They identify themselves as Chosunjok (Korean-Chinese).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many Korean-Chinese have been returning to Korea because of the improved politic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because of job opportunities created by the Korea's growing economy. Koreans, by and large, however, have not embraced returning Korean-Chinese as equal members of their society. Instead, they are treated as second-class citizens and are often discriminated against, even within the walls of Korean churches.³ I have often witnessed conflicts and tensions between Koreans and Korean-Chinese arising from a failure to appreciate each other's cultural differences. Despite efforts by the Korean government to implement foreigner-friendly policies, discrimination is still blatant not only in Korean society at large, but also in the churches. Furthermore, the churches typically overlook the potential importance of the Korean-Chinese in missions. The Korean-Chinese understand the context of two cultures; this understanding is their strength and it gives them a significant advantage in doing mission. The diaspora Koreans have a vital contribution to make, I believe, in helping Korean churches address cultural challenges in the mission field.

For many years, YFGC's main mission strategy has been focused on sending native Korean missionaries to foreign countries to share the Gospel and provide relief for medical and social needs of the people. With globalization, however, which puts a premium on cross-cultural leadership, YFGC now faces new challenges in its world mission initiatives. Missions in China, in particular, have suffered serious setbacks, which have been attributed to government policies on religion that prohibit foreigners from influencing Chinese churches. It is time now to empower and mobilize Korean-Chinese Christians residing in Korea for missionary service in China, instead of continuing to send only Korean nationals. Such a shift may lead to engagement opportunities that will bring about a new level of effectiveness for mission work in China. Unfortunately, however, the Korean church has failed to recognize the potential role that Korean-Chinese Christians can play in world missions. Instead of Korean-Chinese Christians being envisioned as valuable mission agents in the mission field, they have often gone unnoticed and underappreciated in the church.

In light of the significant needs and opportunities just identified, I undertook doctoral study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s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to pursue these issues. In what follows I first explain the character of my research, its methodology, and my research findings. I then present proposed guidelines for multicultural mentoring at YFGC. I hope that

³ Min Kee Ha, *Shattering the Korean Dream: Korean Chinese Experiences in Seoul, Korea* (Ann Arbor, MI: UMI, 2001), 206-8.

they will help churches elsewhere that desire to develop the type of cross-cultural mentoring program discussed here. I conclude with some more general reflections on the place of multicultural mentoring at YFGC.

2 Methodology

The purpose of my research was to identify culturally appropriate mentoring practices and to develop guidelines for equipping Korean-Chinese Christians and empowering them to become future mission agents. I also wished to prepare guidelines for training multicultural pastors who can strengthen the multifaceted ministries of YFGC itself. To guide my study, I drew on Robert Clinton's mentoring theories and Geert Hofstede's theory of cultural dimensions, seeking to identify both the key factors present in mentoring practices and the significant role cultural differences play in a multicultural context.⁴

The research methodology I used consisted primarily of semi-structured interviews and surveys. The research pool was composed of Koreans, Korean-Chinese, and Chinese within YFGC, and through the interviews I sought to elicit information regarding YFGC's present mentoring culture. Using a written list of questions as a guideline for the interviews, I sought to determine the understanding of mentoring relationships held by the Korean-Chinese, their feelings related to mentoring relationships, and the expectations they held for such relationships. The questions for the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designed to identify key factors that would align with Clinton's mentoring theory, specifically, mentoring type, dynamics, and balance. The interview data were coded and analyzed, based on the frequency of key terms used by the interviewees.

Clinton's mentoring theory encompasses nine mentoring types, mentoring dynamics, and mentoring balance. He, along with the collaboration of Paul Stanley and Richard Clinton, provides guidelines that are useful for mentoring of Christian ministers.⁵ Of the approaches

⁴ See J. Robert Clinton and Richard Clinton, *The Mentor Handbook: Detailed Guidelines and Helps for Christian Mentors and Mentorees* (Altadena, CA: Barnabas, 1991); J. Robert Clinton, *The Making of a Leader* (Colorado Springs, CO: NavPress, 1988); J. Robert Clinton, "Cross-Cultural Use of Leadership Concepts," in *The Word among Us: Contextualizing Theology for Mission Today*, ed. Dean S. Gilliland (Dallas: Word, 1989), 183–98. For Hofstede, see Geert Hofstede and Michael Harris Bond, "The Confucius Connection: From Cultural Roots to Economic Growth," *Organizational Dynamics* 16, no. 4 (1988): 5–21, and Geert Hofstede,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Thousand Oaks, CA: Sage, 2011).

⁵ See Paul D. Stanley and J. Robert Clinton, *Connecting: The Mentoring Relationships You Need to Succeed in Life* (Colorado Springs, CO: NavPress, 1992).

available for examining the mentoring practices of YFGC's multicultural ministry, I found his to be the most helpful.

I also found the concept of cultural distance—which has been used to examine differences between national cultures in their ideas of what is good, right, and needed—to be useful as my research progressed. For this aspect of my research, I used Hofstede's cultural dimension theory. He defines culture as “the collective programming of the mind which distinguishes the members of one group or category of people from another” and advocates using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analyze the relationship of cross-cultural values.

The foundation for Hofstede's theory of cultural distance dimensions rests on his study of almost 116,000 questionnaires in twenty different languages from seventy-two countries. He was able to identify the following five basic problems faced by every culture:

Firstly, human and social inequality; relationship with authority.

Secondly, dealing with the unknown future and uncertainty.

Thirdly, dealing with relationships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group.

Fourthly, emotional roles between men and women.

Fifthly, focus on the future or the past.

Different cultures attempt to solve these problems differently, based on their cultural values. Within different cultures, leadership, organization, and motivation are shaped by a cultural scale that represents the different cultures' solutions for these five problems. For Hofstede, five main cultural dimensions—which correlate with the five basic problems that all cultures face—determine differences in cultural values related to work. For my research, it was important for me to identify differences in cultural values related to work held by Koreans, Korean-Chinese, and Chinese. For this purpose I conducted a survey using the questionnaire found in Hofstede's Value Survey Module 2008 (Korean and Chinese versions). This survey is widely utilized to compare culturally influenced values of two or more countries. It provided a measure of the cultural distance in values between Koreans, Korean-Chinese, and Chinese. It gave a basis for calculating a cultural distance index, which enabled evaluation of the cultural differences in values among these three groups of people in YFGC. The responses to the survey were tabulated by computer along five dimensions (power distance, uncertainty avoidance, individualism versus collectivism, masculinity versus femininity, and long-term versus short-term orientation) with an index being produced for each dimension.

In evalu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ors and mentees, culture is a critical factor. In my experience, an underlying cause of ineffective and irrelevant mentoring practices is lack of cultural understanding. With a focus on multicultural mentoring, Plueddemann states, “Today’s generation of leaders in the global church must learn new skills and be willing to discard some of the styles that made them so effective in monocultural leadership.” He explains that “church leaders must learn to cooperate with people who have radically different assumptions about leadership.”⁶ From its inception until becoming the global church that it is today, YFGC has thrived under monocultural leadership. But rapid globalization and the recent influx of immigrants show that the challenge of the future will be to develop programs that effectively take into account the country’s and ultimately the church’s growing diversity.

3 Research Findings

As I pursued doctoral research, the results of my investigations (referred to as “findings”) provided many practical ideas and suggestions for implementing a more successful mentoring model for the Korean-Chinese in YFGC. The findings show that, in terms of mentoring practices, significant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exist between the Koreans and the Korean-Chinese who are part of YFGC.⁷ The most important finding was that the Korean-Chinese in YFGC want to be treated as equal partners in church ministries and activities. The group felt the presence of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in the programs and on the part of the church leaders. On the one hand, in such settings, mentors need to be educated so that they can appreciate differences of culture and values. This awareness will work to remove stereotypes and prejudices they may have against the Korean-Chinese. On the other hand, development of the Korean-Chinese’s leadership skills and abilities through effective mentoring can provide them with the opportunity to become church leaders within YFGC. Serving as leaders would ultimately demonstrate that the Korean-Chinese have successfully attained a status equal to that of YFGC’s Korean leaders.

According to Stanley and Clinton, a spiritual guide is “a godly, mature follower of Christ who shares knowledge, skills, and basic philosophy on what it means to increasingly realize Christlikeness in all areas of life.”⁸ My research showed that the factor that most

⁶ Plueddemann, *Leading across Cultures*, 11.

⁷ My research findings are summarized in table 1 at the end of this chapter.

⁸ Stanley and Clinton, *Connecting: The Mentoring Relationships You Need*, 65.

attracted Korean-Chinese in YFGC to seek a mentoring relationship was the opportunity to receive pastoral advice from older and more experienced leaders. They hoped to receive spiritual care, guidance, and counseling from these leaders.

The mentoring relationships most commonly desired by the Korean-Chinese are “Upward Mentoring” (from older and more experienced leaders) and “Internal Peer Mentoring.” The Korean-Chinese expect to expand their potential through relationships with older and more mature Christians. Through internal peer mentoring, they seek mutual growth and accountability. But for internal peer mentoring, the Korean-Chinese prefer to have a mentoring relationship with a Korean rather than a Korean-Chinese.

My research also showed that the Korean-Chinese have a difficult time working with other Korean-Chinese because of their background as a cultural minority in China. Wariness or even a hostile attitude toward groups from other hometowns in China impacts the bond and loyalty among them while they are living in Korea. Therefore, individual care and attention are needed. Korean-Chinese are very independent decision-makers and prefer to have care and attention on an individual basis, versus in a group. This preference stems from their background of belonging to a minority culture in China and from th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they have faced in Korea.

The Power Distance Index score from the Hofstede survey shows that the Korean-Chinese have a tendency to believe that the quality of learning depends on two-way communication. They want their voices to be heard in the process of learning. They also tend to believe that a decentralized decision structure is better and more efficient and that hierarchy in organizations means an inequality of roles. This tendency may be an important obstacle that the Korean-Chinese can overcome by learning more about YFGC’s leadership practices. Understanding YFGC’s decision-making process (and how it came into being) may make problems with it less acute, even though YFGC’s hierarchical approach may not be the Korean-Chinese leaders’ preferred style of decision-making.

The Individualism Index (IDV) and the Long Term Orientation Index (LTO) scores show that the Korean-Chinese have a strong shame culture, with saving face or preserving one’s reputation as an important virtue. In a mentoring relationship, respecting the mentee’s honor and dignity is therefore important for establishing trust in the relationship. In my research the Korean-Chinese received low IDV score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ir having a strong sense of loyalty based on their hometown in China. In mentoring relationships, then, the mentor needs to understand the place of one’s hometown in the culture of the mentees in order to ease tensions and defuse potential hostility among the mentees.

The findings also show that the Korean-Chinese want their leaders to recognize their work and performance in the church. They want more recognition and encouragement from their mentors, along with the chance to exercise more freedom within their ministry.

The authoritative and charismatic leadership style in YFGC is another obstacle to establishing a healthy mentor-mentee relationship. The Korean leaders need to be willing to acquire a cross-cultural understanding and to be flexible in developing communication skills that take account of the cultural differences of their Korean-Chinese mentees. The Korean-Chinese need to understand the Yoido church system and policies. Mentors need, at the same time, to understand their mentees' culture and values, something that is necessary if stereotypes and prejudices against the Korean-Chinese are to be removed. Quite simply, we at YFGC need to recognize and embrace the Korean-Chinese as members of *our* church.

For Korean-Chinese, individual mentoring is more effective than group mentoring. According to the Power Distance Index (PDI) and interview results, the Korean-Chinese are very independent decision-makers and prefer care and attention as individuals, not as a group.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Korean-Chinese have a difficult time working with Korean-Chinese who come from different hometowns in China. The Korean-Chinese do want to maintain a close relationship with YFGC Koreans and the pastors, particularly in face-to-face pastoral care, yet all mentors should be aware of this factor in their cultural background.

4 Eight Mentoring Guidelines for the Korean-Chinese in YFGC

As an outcome of my research, I have identified eight main guidelines to help mentoring the Korean-Chinese in YFGC, which can assist in developing curricula and programs.

Firstly, equal treatment for Korean-Chinese in the church. Removing stereotypes and prejudices against the Korean-Chinese will improve the mentoring relationship. Also, church activities and ministry opportunities should be communicated in the native languages of all members in order to provide all with an equal opportunity to participate and serve.

Secondly, expansion of the leadership skills of YFGC pastors. To improve mentoring relationships, Korean leaders need to acquire cross-cultural understanding and develop flexible communication skills that will be sensitive to the cultural differences of Korean-Chinese mentees. Also, Korean leaders need to provide an orientation to the mentees regarding YFGC's culture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Thirdly, provision of pastoral care for Korean-Chinese church members. The church needs to invest time and resources in developing culturally appropriate programs to train pastors who can provide pastoral care and advice to Korean-Chinese members.

Fourthly, understanding of group dynamic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younger and the older generations of Korean-Chinese in order to communicate more effectively regarding the respective interests and needs of these two groups.

Fifthly, mentor training. Mentors need to be educated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culture and values between Koreans and Korean-Chinese, for the purpose of removing stereotypes and prejudices against the Korean-Chinese.

Sixthly, mentee training. To improve the mentoring relationship, Korean-Chinese need to receive training regarding the church's organization hierarchy, policies, and decision-making culture.

Seventhly, modifying the Pastoral Credential Program for the Korean-Chinese. This program should be modified to allow parts of the exam to be conducted in Chinese, as needed by the mentees.

Eighthly, exposure to ministry. More open and direct interaction is needed between Korean-Chinese and Koreans in YFGC. To improve the mentoring relationship, it is important for the church to open more ministry opportunities to the Korean-Chinese in the church.

5 Conclusion: Final Comments

Approximately 100 Korean-Chinese are currently members of YFGC. This number may seem insignificant in a church of 480,000 members, yet we believe that God is interested in working with small and marginalized groups of people to use them to their full potential. God sees a mustard seed, not just as a small and insignificant seed, but also as a big and precious tree that one day will produce abundant life (see Mark 4:31–32). God is glorified when we reach out to people who are unnoticed and underappreciated and empower them to bring God's kingdom into our midst. Furthermore, I believe that God has chosen the Korean-Chinese to carry out the next wave of missions in China.

YFGC has been blessed with a group of talented multicultural people who are ready to engage in new glob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e church needs to pay more attention to

these individuals, thoughtfully establishing a program to recruit, train, and groom them to take a leading role in world missions.

Compared to other Korean churches, YFGC's leadership style is unique. Because of the history of YFGC and the influences of Korean society, it is also complicated when compared to that of other Korean churches. I believe that YFGC will not easily adjust its monocultural authoritative leadership style, which has been very effective and, until recently, has led to successful church growth. It is unfortunate that the mentoring practices of the current YFGC leadership have so far proven to be ineffective in grooming cross-cultural leaders and in forming disciples who can be catalysts in the mission fields, which would move world missions to the next level.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al trends of the twenty-first century, however, clearly demand that church leaders adopt new attitudes and teach new skills to enhance the abilities of this church's leaders.

Betsy Glanville has said, "We are challenged to see the image of God in the 'other' who is very different from 'me.'"⁹ Embracing Korean-Chinese Christians in the manner that I have proposed in this chapter will, I believe, enrich our own understanding of who we are, giving us a new appreciation of God's great love for us. As disciples of Jesus, we need to value differences and promote diversity within the body of Christ so that we can learn from one another. It is my prayer that this research will help to enable change and to enhance the way leadership at YFGC is practiced from day to day so it can more significantly strengthen the worldwide body of Christ^{10,11}

⁹ Elizabeth Loutrel Glanville, "Missiological Reflections on Difference: Foundations in the Gospel of Luke," *Mission Studies* 26, no. 1 (2009): 73, doi: 10.1163/157338309X442308.

¹⁰ This chapter is based on research done for my doctoral dissertation, "The Development of Mentoring Practices Guidelines for Korean-Chinese in Yoido Full Gospel Church" (DIS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2016).

¹¹ **Table 1, Summary of Research Findings in YFGC's Korean-Chinese Mentoring Relationships:**

Mentoring dynamics: The Korean-Chinese were attracted to the YFGC leaders because of their desire for spiritual care, guidance, counseling, coaching, and ministry opportunities. In China, the leaders in the Chinese house churches lacked systematic and formal theological training. The Korean-Chinese want to find their identity and vision from their spiritual guide at YFGC. Korean-Chinese wish to grow in faith and gain ministry insight through face-to-face pastoral care from older and more experienced mentors rather than to be assigned to younger leaders. They want to receive internal peer mentoring with Korean leaders, not with the Korean-Chinese. Korean-Chinese want to be treated as equals to other Korean church members in YFGC. They do not want to be automatically assigned to a special Korean-Chinese service. They want the same opportunities to receive training in leadership as Korean members have. Korean-Chinese want to follow mentors who are fair and unprejudiced in their mentoring process, who do not unconsciously and habitually stereotype foreigners. Korean-Chinese want their mentors to recognize their progress and success. They also want to receive encouragement and spiritual guidance from the Korean leaders. They want to receive leadership and ministry training from the mentor and eventually become leaders of the church, like the Koreans.

Mentoring obstacles: The lack of cross-cultural mentors who can provide sensitive pastoral care, teaching, and guidance to Korean-Chinese becomes a great challenge in developing mentoring relationships with Korean-Chinese in YFGC. Korean-Chinese in YFGC harbor feelings of disappointment and resentment toward Korean church members because of a lack of support and acknowledgment from the church. They face double

isolation as a minority group in China and again in Korea. Mentors need to be educated regarding the differences of cultural understanding and values between Koreans and Korean-Chinese; they need to remove stereotypes and prejudice against Korean-Chinese. Korean-Chinese have a difficult time adapting to the Korean church culture. They are often confused and frustrated with Korean church leaders when they ask for quick results and frequently change policies and systems. Nor do they fully understand the authoritative and paternalistic leadership style of YFGC. The authoritative and charismatic leadership style becomes an obstacle to establishing mentor and mentee relationships. Mentors fail to acknowledge the differences in culture between Koreans and Korean-Chinese, and they impose Korean culture and values on the mentees.

Power distance factors: Korean-Chinese believe that a leader does not necessarily have significantly more power or authority than the followers do. Korean-Chinese tend to believe that a decentralized decision structure is better and more efficient. They want to have an equal two-way communication and to be consulted on matters and contribute their ideas as equal members of the church.

Individualism factors: Korean-Chinese have a strong bond and loyalty among others from their hometown in China. They may display hostility toward people from other hometowns. Korean-Chinese have a strong shame culture that pays great attention to the expectations and attentions of others. They want mentors to offer advice in culturally sensitive ways that do not emphasize shame.

Uncertainty avoidance factors: Korean-Chinese have anxiety and a desire to avoid uncertainty. Korean-Chinese are resistant to change.

Masculinity factors: In comparison with Koreans, Korean-Chinese are more aggressive and expect strong leadership from their leaders. Korean-Chinese are attracted to large organizations. Korean-Chinese want their leaders to recognize their work and performance. They long for mentors to show them undivided attention and to maintain a keen interest in their progress and achievements.

Long-term orientation factors: Both Koreans and Korean-Chinese have a shame culture and value persistence and perseverance.

Bibliography

- Clinton, J. Robert. *The Making of a Leader*. Colorado Springs, CO: NavPress, 1988.
- _____. “Cross-Cultural Use of Leadership Concepts.” In *The Word among Us: Contextualizing Theology for Mission Today*, edited by Dean S. Gilliland, 183–98. Dallas: Word, 1989.
- Clinton, J. Robert and Richard Clinton. *The Mentor Handbook: Detailed Guidelines and Helps for Christian Mentors and Mentorees*. Altadena, CA: Barnabas, 1991.
- Glanville, Elizabeth Loutrel. “Missiological Reflections on Difference: Foundations in the Gospel of Luke.” *Mission Studies* 26, no. 1 (2009): 73.
- Ha, Min Kee. *Shattering the Korean Dream: Korean Chinese Experiences in Seoul, Korea*. Ann Arbor, MI: UMI, 2001.
- Hofstede, Geert.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Thousand Oaks, CA: Sage, 2011.
- Hofstede, Geert and Michael Harris Bond. “The Confucius Connection: From Cultural Roots to Economic Growth.” *Organizational Dynamics* 16, no. 4 (1988): 5–21.
-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 (KWMA). http://kwma.org/gnuboard4/bbs/board.php?bo_table=s_03&wr_id=44.
- Kwon, Ildoo. “The Development of Mentoring Practices Guidelines for Korean-Chinese in Yoido Full Gospel Church.” DIS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2016.
- Plueddemann, James E. *Leading across Cultures: Effective Ministry and Mission in the Global Church*.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09.
- Stanley, See Paul D. and J. Robert Clinton, *Connecting: The Mentoring Relationships You Need to Succeed in Life*. Colorado Springs, CO: NavPress, 1992.

A Study of Biblical Figures and their Character Strengths through the Lens of Positive Psychology

Dr. Rev. **Ki Tae SONG**

Alphacrucis College, Lecturer

- 1 Introduction: The Understanding of Character Strengths
 - 1.1 Positive Psychology, the Background of Character Strengths
 - 1.2 Character Strengths and VIA System
- 2 The Character Strengths of Bible Characters
 - 2.1 Joseph's Character Strengths
 - 2.2 Moses' Character Strengths
 - 2.3 David's Character Strengths
 - 2.4 Paul's Character Strengths
- 3 Conclusion

Abstract

This article has examined Joseph, Moses, David and Paul, and their strengths through the lens of Positive Psychology. The highest three character strengths, in order, for each character can be summarised as follows:

Firstly, Joseph: Temperance, Justice, then Transcendence. Secondly, Moses: Courage, Justice, then Transcendence. Thirdly, David: Courage, Transcendence, then Justice. Fourthly, Paul: Courage, Justice, then Temperance.

From this, it is evident that courage is the primary character strength amongst the key characters in the bible. Justice, then transcendence, and then temperance is also a prominent character strength in the characters above.

Knowledge and Wisdom, and Humanity and Love do not appear to be prominent traits in the characters studied.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study does not conclude that those features were lacking. Rather, Knowledge and Wisdom, and Humanity and Love, can be seen as foundational character strengths that allowed the other character strengths to flourish.

Keywords

Positive Psychology, Character Strengths, Bible Characters, Temperance, Justice, Transcendence, Courage

1 Introduction: The Understanding of Character Strengths

1.1 Positive Psychology, the Background of Character Strengths

In the past sixty years, the study of human psychology has focused on negative aspects such as mental health problems.¹ This has overlooked the potential of devoting studies into the positive aspects of psychology.²

In particular, having a significant influence in the field of psychology for the past sixty years were Sigmund Freud and Carl G Jung. One of their greatest achievements was their research into mental illness, drawing in the many negative aspects of psychology into the centre of the discipline.

With such issues in mind, in 1998, Martin E. P. Seligma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sychology professor and chairma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oposed a new model in regards to model diseases. He made the following statement;

I have pondered the relevance of Positive Psychology. In times of trouble, does the understanding and alleviating of suffering trump the understanding and building of happiness? I think not. People who are impoverished, depressed, or suicidal care about much more than just the relief of their suffering. These persons care- sometimes desperately- about virtue, about purpose, about integrity, and about meaning. Experiences that induce positive emotion cause negative emotion to dissipate rapidly.³

In this way, Positive Psychology marked a turning point in the discipline. Centralizing upon the concept of ‘happiness’, studies were undertaken to deconstruct its scientific and empirical aspects, pioneering the field of ‘Positive Psychology’. Therefore, Positive Psychology became a scientific discipline that studied the moments between birth and death, asking the question, “What is a happy life?”⁴

In May 2009, Philadelphia, Seligman and a few like-minded psychologists held an academic conference on Positive Psychology. The conference brought in a variety of scholars and thinkers: Mihaly Csikszentmihalyi (noted for his notions of flow and creative fulfilment), Ed Diener (one of the lead researchers in the field of subjective well-being,⁵ and well known

¹ Christopher Peterson, *A Primer in Positive Psychology*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24.

² Until the 1990, research into the negative aspects of human psychology was 17 times greater in number than the research into the positive aspects of human psychology (Diener & Myers, 1995).

³ Martin E.P. Seligman, *Authentic Happiness* (NY: The Free Press, 2002), xiii-xiv.

⁴ *Ibid.*, 6.

⁵ In researching on happiness, different researchers referred to happiness through different terms including: subjective quality of life scale, subjective well-being, PWBS (psychological well-being), life satisfaction, happiness, well-being etc.

for his work on the law of the Mona Lisa smile)⁶ and Christopher Peterson (known for his research in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With the leading minds of the discipline coming together, research in Positive Psychology deepened and expanded greatly as a legitimate field in the discipline.

1.2 Character Strengths and VIA Systems

1.2.1. The concept of Character Strengths

In 2000, with the support of the Mayerson Foundation, Seligman founded the VIA (Value-in-Action) Institute. This allowed the systematic and academic research and study of positive human qualities. Soon after, joining the team was Christopher Peterson, a professor of psychology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with a global standing on his work in optimism, health, character and well-being.⁷ This team sought to research into and discover the virtues common to all cultures. They researched into the philosophical works of Aristotle, Plato, Aquinas and Augustine. They explored the values of different religions by studying books such as the Old Testament, the Talmud and the Koran. After thoroughly studying these works, they put together a list of 240 character strengths for adults and a list of 190 for children. The list was reduced to 24 kinds of strengths and received global recognition. This list was then organised into a list of 6 core virtues known as the “High Six.” In July 2004, the *American Psychologist* published the “VIA Character Strengths and VIA classification system.”⁸

1.2.2 The VIA Classification System

The “High Six” selected through this VIA Classification process are the virtues that consistently stand beyond the forces of time and culture. These 6 virtues are sub-categorized into 24 strengths.

1.2.2.1 Wisdom and Knowledge

⁶ “Professor Ed Diener asked to imagine a frowning Mona Lisa. You probably would not want to date them. However a happy and smiling Mona Lisa would look like a cheerleader. They would be a fun person but would not likely to be deep. A happy Mona Lisa would be fun company at the beach however they would be wise in governing a country. Though positive emotions are beneficial, negative emotions help us live. Therefore I advise you to be like Mona Lisa. 17% of Mona Lisa’s face is said be negative emotions. Like Mona Lisa, there should be times when we should express a little negative emotion in our lives.” Kim Jong Hwan, *Christian Review*, 17 July 2013.

⁷ Peterson, *A Primer in Positive Psychology*, 254.

⁸ Martin E. P. Seligman,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Nashville: Atria Books, 2012), 243-65; idem, *Authentic Happiness*, 140-61; Christopher Peterson and Martin E. P. Seligman,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Y: Oxford Press, 2004).

This first virtue is based on the gathering and activating of information and making wise decisions to live a better life.

Firstly, Curiosity and Interest in the World: The strength to feel interest and concern in new experiences, th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Rather than being limited to one aspect, the range can be extensive.

Secondly, Love of Learning: The motivation and strength to learn new skills, knowledge and subjects. This ability comes from not a posture of obligation but a genuine interest to learn.

Thirdly, Judgement: The strength to thoroughly examine and analyse things from different angles. This strength also includes the attitude to adapt to and flexibly accommodate new facts and situations.

Fourthly, Creativity: The strength to think in a productive and creative way in the process of conceptualising things. This strength includes the ability to make sense of the various things practically around the world.

Fifthly, Social Intelligence/Personal Intelligence/Emotional Intelligence: The ability to rightly respond and cater to the various emotions and personalities of others in diverse social settings.

Sixthly, Perspective: The strength to see different situations from a holistic angle. This strength includes the ability to counsel others wisely.

1.2.2.2 Courage

The virtue based on the will to overcome both internal and external difficulties and fulfil desired goals.

Firstly, Valour: The physical and moral ability to stand up against and overcome difficult situations and to act and speak according to one's own beliefs.

Secondly, Perseverance: The strength to continue with and finish a set goal especially through difficulties.

Thirdly, Integrity: The strength to reveal one's inner self and be honest to others. This strength includes the abolishing of a pretence and representing one's sincere intentions and commitments by word or deed.

1.2.2.3 Humanity and Love

This virtue involves positive social interactions with other people: including friends, acquaintances, family members and also strangers.

Firstly, Kindness and Generosity: The personal inclination to help others out of good motive rather than self-interest.

Secondly, Loving Others and Allowing Oneself to be Loved: the strength to practice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to receive those same feelings.

1.2.2.4 Justice

This virtue goes beyond one-one-one relationships and concerns how an individual responds to a larger group.

Firstly, Citizenship: The strength to recognise oneself as belonging to a particular group and to faithfully devote themselves to the role they have in that group.

Secondly, Fairness: The strength to provide equal opportunity and treatment to all and exclude personal biases.

Thirdly, Leadership: The strength to identify characteristics, manage, resolve conflict issues in a compassionate manner, and maintain good relationships in the organised group one belongs to.

1.2.2.5 Temperance

This virtue refers to the appropriate and moderate expression of one's appetites and wants so that it is not done in the harm of others.

Firstly, Self-control: The strength to adjust various emotions, desires, behaviours and needs accordingly

Secondly, Prudence: The strength to choose not to undertake in unnecessary risks. This strength includes the skill to resist short term impulses for long term success.

Thirdly, Humility and Modesty: The strength not to seek the spotlight rather allowing the accomplishments speak for themselves. This strength has a strong element of unpretentiousness.

1.2.2.6 Transcendence

This virtue refers to the emotional strength to reach outside to something larger and more permanent.

Firstly, Appreciation of Beauty and Excellence: The strength to recognize beauty and the inclination to be awed by excellence in many areas of life.

Secondly, Gratitude: The strength to be aware and feel thankful to the grace and courtesy received from others.

Thirdly, Hope: The strength to take a positive stance and make the effort towards the future with an attitude of optimism and expectation of good results.

Fourthly, Spirituality: The strength to live in having faith in God's ultimate purpose and meaning in life.

Sixthly, Forgiveness: The strength to give others another chance for a wrong they have committed under a principle of mercy rather than revenge.

Seventhly, Humour and Playfulness: the strength to laugh and have delighted seeing the light side of life. This strength has a positive impact on others.

Eighthly, Passion: The strength to commit body and soul into the activity at hand. This strength is infectious to others and cultivates inspiration.

2 The Character Strengths of Bible Characters

There are several brilliant figures portrayed in the bible. However, this article will be focusing on three figures from the Old Testament and one figure from the New Testament. These figures include Joseph, Moses, David and Paul.

Joseph, as a migrant in Egypt, became the prime minister and demonstrated excellent qualities of servant leadership. Moses, in leading the Israelites in the Exodus demonstrated the qualitie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David, who had an important role in the redemptive history of mankind, demonstrated the qualities of shepherd leadership. In the New Testament, Paul portrayed the qualities of servant leadership. Each of these people have exhibited through many situations various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2.1 Joseph's Character Strengths

Joseph grew up in a family of 11 brothers, 4 mothers, and a range of conflict and suffering. He grew up with dreams of being a leader but the reality of being sold as a slave. However despite such adversity, Joseph was able to stand up as a great migrant leader. His character strengths are as follows:

2.1.1 Love of Learning

Joseph made every environment an opportunity to learn. As a slave in Potiphar's house, as a prisoner and as the Prime Minister of Egypt, Joseph was able to excel in whatever he did

by learning and growing in the environment.⁹ Particularly, the time in jail was an opportunity for him to grow and develop. Serving the political prisoners, Joseph was able to learn and have great insight into the politics, culture, language and courts of Egypt. He was able to learn what kind of person Pharaoh was. He learned about Pharaoh's heart and learned what moved him. He served all the people he met and treated them as his teachers. His time in jail could be considered the darkest period of his life; however he used it to gain an extreme amount of knowledge and leadership.

2.1.2 Judgement and Open-Mindedness

Joseph had to have a plan for his family to move and settle into Egypt. After his planning, he showed his plan to Pharaoh. Though he knew he had great power and authority, he acknowledged that he was not to do whatever he pleased.¹⁰

Joseph already knew how the Egyptians would react to his plan. He had worked and lived with both Pharaoh and the people of Egypt for many years. When his brothers were going to meet Pharaoh, Joseph instructs his brothers: "you should answer, 'Your servants have tended livestock from our boyhood on, just as our fathers did.' Then you will be allowed to settle in the region of Goshen, for all shepherds are detestable to the Egyptians" (Gen 46:34). This was not telling his brothers to lie but to take care in their word usage. He told them not to say the 'shepherd' as it was 'detestable to the Egyptians'.

As someone who gained one of the top leadership positions in the country, Joseph's judgements were not based on his selfish and subjective perceptions, rather, he was able to seek an objective standard through years of observation, research and learning.

2.1.3 Creativity and Practical Intelligence

Joseph was able to accept and overcome several hardships and challenges through a creative and innovative approach. This was particularly evident during the famine where people gave up everything they owned including their own hope. Joseph's innovative plan was to distribute the population all over the land. Previously, areas had been very densely populated. In those densely populated places, people had their jobs, homes, farms and neighbours. Joseph policy instructed them to leave it all behind. To make this happen, Joseph had to treat the people

⁹ Claus Westermann, *Genesis 37-50 Commentary*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2), 73-8.

¹⁰ Jim George, *10 Minutes to Knowing the Men and Women of the Bible* (Eugene, OR: Harvest House Publishers, 2008), 49-50.

well in order to convince them. “And Joseph reduced the people to servitude, from one end of Egypt to the other” (Gen 47:21). So in the face of harsh difficult situations, Joseph responded creatively and effectively. He also made his followers honest and upholds integrity by following his policies. Joseph was also able to make his people self-sufficient.

“But when the crop comes in, give a fifth of it to Pharaoh. The other four-fifths you may keep as seed for the fields and as food for yourselves and your households and your children” (Gen 47:24).

Because of his character and personality, Joseph’s followers were able to trust him, be obedient to him, accept his plan, and sacrifice their labour to him.

2.1.4 Social intelligence, personal intelligence,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control

Whoever he met and wherever he met them, Joseph was able to create a good relationship with them. These relationships were not momentary but were projected towards the future. Through his good relationships with Potiphar, the Pharaoh’s baker and cupbearer, Joseph was able to gain the great knowledge and wisdom that raised him up as a powerful politician.

He also showed a great degree of self-control when he was being tempted by Potiphar’s wife,¹¹ preventing himself from sinning. Even after being falsely accused and imprisoned, Joseph silently accepted the punishment, paralleling the image of the sheep in Isaiah 53:7.¹² By taking the punishment and saving Potiphar’s wife’s face and preventing his master’s house from being destroyed, Joseph displays the amount of care and regard he has for other people.¹³

Joseph was always in a position of servanthood. Serving was instilled in Joseph’s lifestyle. Through Joseph’s life, we can see that serving is a key principle in human relationships. Joseph’s emotional intelligence showed that he was very wise in when to reveal and when to hide his emotions as a leader. Because Joseph forgave his brothers’ sins, Joseph did not hold any animosity towards them. Though he had a lot of emotions, he was not the type to easily show and release them. Thus Joseph was a strong leader who could control his emotions.¹⁴

2.1.5 Perspective

¹¹ F. B. Meyer, *Joseph: Exalted through Trials* (NY: AMG Publishers, 2001), 25.

¹² Lindsay Wilson, *Joseph Wise and Otherwise* (Bletchley: Paternoster, 2004), 108.

¹³ Liam Goligher, *Joseph, The Hidden Hand of God* (Scotland: Christian Focus Publications, 2008), 68-9.

¹⁴ Ki Tae Song, *Hoju Dongailbo*, May 14, 2010, 9.

Joseph was not only a leader who predicted the famine and abundance, but also was one who was prepared fully for them. Additionally he was a leader who was able to lead a great change. During the famine, despite the country being in an extreme crisis, Joseph was still able to anticipate the country's future and established a land tax. Through this tax, Joseph acquired a portion of the people's harvests so that he could redistribute it to those who did not have land. Joseph was a leader who was able to equally satisfy the needs of all men.¹⁵

2.1.6 Valour and Bravery

Joseph was brave and had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In doing an errand for his father, Joseph walked 60 miles alone to Sechem wandering in the wilderness then to Dothan. Though it was a route that was dangerous enough for his brothers to convince their father of his death,¹⁶ Joseph was obedient and joyfully carried out his task (Gen 37:12-17).

2.1.7 Perseverance, Industry, and Diligence

Joseph's most rigorous training was when he had to wait. For thirteen years Joseph waited patiently. These thirteen years consisted of 11 years in Potiphar's house and two years in prison. Until the dream that God had given him came true, Joseph showed diligence and perseverance in waiting.

2.1.8 Integrity, Genuineness, and Honesty

Having found favour in his master's eyes, Potiphar entrusted to Joseph's care everything Potiphar had owned and Joseph served his master faithfully (Gen 39:4-5). Joseph earned a deep level of trust from his master. Their relationship was one of interdependence.¹⁷ Joseph had an uncompromising standard of loyalty to both his master and to God. It was this quality that protected his life. Joseph was someone who constantly pursued holiness. His qualities of integrity,¹⁸ genuineness and honesty remained during and after his time in prison. These qualities were what protected him and built him as a leader in the home, the prison, and also up in the nation.

¹⁵ Meyer, *Joseph*, 87.

¹⁶ Bill T. Arnold, *Genesis, The New Cambridge Bible Commenta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319-20.

¹⁷ Don Reid, *Heroes & Outlaws of the Bible* (Minnesota: New Leaf Press, 2002), 43.

¹⁸ M. Chandrakumar, *Leadership Insights from Heroes of the Bible* (Colorado Springs: Authentic Books, 2007), 214. This book reveals that Joseph's 3 key character strengths were revealed when he fled the temptation from Potiphar's wife. These 3 character strengths were passion, power and purity.

2.1.9 Kindness and Generosity

Joseph's trademark was that he was a "man of forgiveness."¹⁹ Joseph was a very generous leader. When he reached a position of national authority, he did not seek to punish those from his past such as Potiphar's wife who led him to jail and the cupbearer who almost forgot about him.

He was a leader who knew how to care for and nurture his family. Joseph was able to forgive his brothers who sold him off as a slave because he had a correct understanding of God's authority,²⁰ But Joseph said to them, "Don't be afraid. Am I in the place of God?" (Gen 50:19). Joseph understood that the only one who could punish his brothers was God.

2.1.10 Citizenship, Duty, Teamwork, Loyalty, Fairness, and Leadership

Joseph conducted his distribution process fairly. As a person of integrity, he did his duty with diligence, ensuring the survival of Egyptians, Canaanites and Hebrews.²¹

Though people came to Joseph empty-handed, Joseph valued their dignity and respected each and every one of them (Gen 47:15). He respected those who had no money by asking them to bring what livestock they had in exchange for the food. This method of barter went for almost one year (Gen 47:16). This was an essential tool for survival during the famine. By not giving away the grain for free, Joseph prevented waste and promoted work and saving. This trade method also anticipated the fact that the animals were not going to survive without the grain. This meant that he was able to feed both the animals and the people (Gen 47:17).²²

By doing this, Joseph was able to fairly distribute the grain that God had provided during the years of abundance. Joseph's wise policy and leadership was a chance for him to: be loyal to Pharaoh, save the people, and tighten the nation's discipline.

2.1.11 Prudence, Discretion, Caution, and Humility

At the core of Joseph's leadership is sincerity and humility. This humility is knowing one's self and keeping one's position. Joseph was obedient to the authority of both God and Pharaoh (Gen 47:1-2, 7, 11).²³ During the famine the people treated Joseph as if he was a god saying "You have saved our lives," they said. "May we find favour in the eyes of our lord; we

¹⁹ Charles R. Swindoll, *A Man of Integrity and Forgiveness, Joseph* (TX: Word Publishing, 1998), 4.

²⁰ Goligher, *Joseph*, 117-8.

²¹ Walter Brueggemann, *Interpretation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Genesis* (Georgia: John Knox Press, 1982). 356.

²² Meyer, *Joseph*, 86-7.

²³ Lloyd J. Ogilvie, *The Communicator's Commentary, Genesis* (Dallas: Word Books, 1986), 382-4.

will be in bondage to Pharaoh.” (Gen 47:25),²⁴ however, Joseph did not presume a prideful position, instead remained humble²⁵

As Pharaoh allowed, Joseph was able to settle his family on a most fertile Nile Delta. He first prudently chose five of his brothers as representatives of his other brothers to the throne then later got his father.

Throughout Joseph’s life, as an employee of one person, Joseph illustrated continuous loyalty, wisdom, objectivity and responsibility.²⁶ Wherever he went and whatever he did, he found serving as his mission. Rather than being served, he was a leader that enjoyed serving others.

2.1.12 Gratitude, Hope, Optimism, and Future-Mindedness

In every situation, Joseph had a great skill to adapt. From being a slave as well as a manager in Potiphar’s house Joseph was able to adapt and excel in his roles. Even in what is considered to be the worst situation, Joseph was able to adapt well to his time in prison. This was because, no matter what he did, he had a positive mindset of always being before God (Coram Deo), not losing hope in the dream God had given him. This allowed him to live his life with great gratitude, hope, optimism and future-mindedness no matter what situation he was in.

2.1.12 Spirituality, Sense of Purpose, Faith, and Religiousness

Spirituality describes a life that has a deep relationship with God and a life under God’s presence. It describes a life that is fulfilled and satisfied in the darkest of situations. It describes a life that knows how to be humble and serving during the abundant times. Looking at Joseph’s life, despite being deprived of his free status, his clothes, his father, he was not robbed of his walk with God. It was a walk that even the pagan god-worshipping Potiphar was able to recognise (Gen 39:3). Though he got further away from his parents siblings and relatives, he drew closer to God preventing a life of sin. Joseph’s spirituality was what allowed him to endure extreme hardship and what keep him from being saddened or frustrated. Because Joseph had such a deep relationship with God, he was able to quietly endure and resolve his experience of being a slave for 10 years.²⁷ Therefore Joseph was always in God’s hand and he always

²⁴ Swindoll, *Joseph*, 176.

²⁵ Meyer, *Joseph*, 90.

²⁶ Swindoll, *Joseph*, 174-5.

²⁷ R. T. Kendall, *A Man after God’s Own Heart* (Scotland: Christian Focus Publications, 2002), 47.

uplifted God's name. No matter what the situation, his public faith in God can be seen from the following verse, "I cannot do it," Joseph replied to Pharaoh, "but God will give Pharaoh the answer he desires" (Gen 41:16).

2.2 Moses' Character Strengths

The leadership that Moses demonstrated in the wilderness shows a leadership that is actively obedient to God. Moses was a leader that moved the hearts of his people through the vision of the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By partnering with a wider team, (his brother, Aaron, sister, Miriam, father-in-law Jethro for example), Moses demonstrated qualities of team leadership. He was also effective in his skill in delegating roles and positions of authority to better manage the people. He led in a democratic manner and made decisions centred upon God's will. He had a purpose of building God's kingdom in his leadership by disciplining Joshua.²⁸ This near-perfect nature of his leadership can be summarised into the following character strengths.

2.2.1 Curiosity and Love of Learning

Growing up in Egypt as the princess' adopted son, Moses spent forty years in the palace where he was educated and physically trained at a very high level. This period was a time where he underwent great physical and intellectual training.²⁹ With this opportunity and time to learn, Moses was able obtain the systematic theology and thinking to write the Pentateuch.³⁰ Though he had abundant wealth and power in the palace, he instead grew a heart of curiosity for the socially marginalised- the Hebrew people. However his character traits of tremendous force, recklessness and passion took the lead. During this period, due to his aggressiveness and violence, he committed murder forcing him to run away and spend 40 years in the Midian wilderness. His time in the wilderness was a time of extensive learning.³¹ From his mistakes, he underwent exceptional character growth in both his personality and his faith.

2.2.2 Judgement, Critical Thinking, and Open-Mindedness

The author of Hebrews writes: "By faith Moses, when he had grown up, refused to be known as the son of Pharaoh's daughter. He chose to be mistreated along with the people of

²⁸ Henry Blackaby and Richard Blackaby, *Spiritual Leadership* (TN: Broadman & Holman, 2001), 79, 278.

²⁹ Lennart Moller, *The Exodus Case* (NV: Scandinavia Publishing House, 2000), 106-7.

³⁰ Blackaby, *Spiritual Leadership*, 114.

³¹ Charles R. Swindoll, *A Man of Selfless Dedication, Moses* (TX: Word Publishing, 1999), 51-9.

God rather than to enjoy the fleeting pleasures of sin. He regarded disgrace for the sake of Christ as of greater value than the treasures of Egypt, because he was looking ahead to his reward” (Heb 11:24-26). This shows Moses’ capacity of having a clear judgement of what God’s will is.³²

When giving up his status of being the princess’ adopted son, from a secular perspective, he was in a position of losing everything. Above all, he was in line to becoming a leader in the most powerful country at that time,³³ having the potential of becoming one of the most powerful political figures in the world. As the author of Hebrew writes, he gave up the treasures of Egypt for the greater value of being disgraced for the sake of Christ. This demonstrates an extreme level of judgement and critical thinking on what he judges as true.

Also, when Moses came down from Mount Sinai with the Ten Commandments, the Israelites were worshipping a golden calf. In this situation, he was able to judge what was happening and he did not compromise with them.³⁴ However he did not stop there, he prayed to the Lord “Why should the Egyptians say, ‘It was with evil intent that he brought them out, to kill them in the mountains and to wipe them off the face of the earth’? Turn from your fierce anger; relent and do not bring disaster on your people. Remember your servants Abraham, Isaac and Israel, to whom you swore by your own self: ‘I will make your descendants as numerous as the stars in the sky and I will give your descendants all this land I promised them, and it will be their inheritance forever” (Ex 32:12-13). In this way his critical thinking and judgement, led him to pray a covenant seeking prayer with a warm and overflowing heart.³⁵

2.2.3 Creativity and Originality

Moses’ creativity and originality was derived from his obedience to the Lord. Through this obedience Moses was able to perform a diverse range of unprecedented, original and creative miracles.³⁶ In one way, Moses himself didn’t demonstrate any of his own creativity or originality. The creativity and originality came as he moved in obedience with God’s orders. The 10 plagues that Moses facilitated were all products of God’s sovereignty and Moses’ obedience. This pattern is also seen in the parting of the Red Sea and the Bronze Snake.

³² Ibid., 107.

³³ Famous 1st Century historian, Josephus, states that because Pharaoh did not have a son at that time, Moses had a high chance of being the next Pharaoh and that the education he received would have been as if he was Pharaoh’s son- paraphrased from Greg Laurie, *Losers and Winners, Saints and Sinners* (NY: Warner Faith, 2005), 269.

³⁴ Blackaby, *Spiritual Leadership*, 141.

³⁵ Carol Meyers, *Exodus, The Cambridge Bible Commenta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253-4.

³⁶ F. B. Meyer, *Moses: The Journey of Faith* (NY: AMG Publishers, 2002), 61.

2.2.4 Social Intelligence, Personal Intelligence, Emotional Intelligence, Kindness, and Generosity

During the time in the wilderness with the Israelites, there were times of rebellion and complaints. During this time, he did not turn away from their difficulties and earnestly prayed to God. And through Moses, God provided living water out of a rock. Of course, these are not the direct miracles of Moses. However, Moses was able to listen to the moans and the struggles of the Israelites.³⁷ In this way Moses demonstrated the understanding to fill the needs of the Israelites.³⁸ This showed Moses' social intelligence as a leader.

An underlying crisis Moses went through was the constant challenges to his authority. Despite being challenged in a number of ways, Numbers 12:3 highlights a remarkable character of Moses, "Now Moses was a very humble man, more humble than anyone else on the face of the earth." This is the evaluation that God bestows upon Moses and it is evident through his enduring kindness and generosity in ceaselessly interceding for his people instead of being cynical and judgemental against his people.³⁹

2.2.5 Perspective

Before his passing Moses had an insight into what the future of Israel would look like preaching that they should obey God's Law to receive his blessing (Dt 31:9-13). He foresaw that they were going to rebel (Dt 30:1-5), however he also had insight into the New Covenant (Dt 30:6-20). Such proclamations demonstrated Moses' prophetic characteristics.⁴⁰ This insight provided a detailed and systematic standard and laws for the Israelites to abide by.⁴¹ On the Mount Gerizim Moses preached the blessings that would come from obeying the law and on Mount Ebal, he proclaimed how curses will come from disobeying the law (Dt 11:26-29). Therefore with his insight into the future, Moses was able to explain and capture the hearts of his people.⁴²

2.2.6 Valour and Bravery

³⁷ George V. Pixley, *On Exodus* (NY: Orbis Books, 1987), 99-100.

³⁸ Meyer, *Moses*, 112.

³⁹ Andrew Sach and Richard Alldritt, *Dig even Deeper* (IL: IVP, 2010), 161; Meyer, *Moses*, 159-160.

⁴⁰ Swindoll, *Moses*, 353-4.

⁴¹ Meyer, *Moses*, 189-91.

⁴² Bernard L. Ramm, *His Way Out* (CA: G/L Publications, 1974), 193-4.

In order to achieve a mission, the leader must turn that mission into a vision. Moses was able to turn the mission and calling he had from God into a vision.⁴³ The vision Moses had been the Exodus of his people and leading his people to the land of Canaan, the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However, there was a lack in material to fill everyone's needs. They needed water in the wilderness, and food in the absence of harvest.

Even in such difficult circumstances, Moses was able to continue sharing his vision and his dream about the land of Canaan. Moses was one of the most effective leaders in sharing his vision to his followers and getting his followers to participate in his vision. As a result of his vision being shared with his people, after the spies returned from Canaan, they too acknowledged that Canaan was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⁴⁴ Moses' vision was planted deep in the hearts of his followers (Num 13:27. Dt 6:3; 11:9).

2.2.7 Perseverance, Industry, Diligence, Modesty, and Humility

As a leader one of his outstanding characteristics was his humility and perseverance. After fleeing Egypt, as he was in the wilderness for 40 years Moses gained humility and perseverance. Moses' perseverance is shown through his continual confrontations with Pharaoh to let his people go. Each time Moses warned Pharaoh and came down with disasters, Pharaoh promised to let the Hebrews go. However, as soon as those disasters went away, he broke his promise and oppressed the Hebrew people even harder. Moses persevered, confronting Pharaoh 10 times until Pharaoh finally gave in.

After the Exodus, even whilst the Hebrews rebelled and challenged Moses' authority, Moses was able to persevere.⁴⁵ This characteristic of perseverance is something that grew in Moses from the many experiences he went through. Moses went from living in the most luxurious palace to living in the middle of the barren wilderness⁴⁶. From his fatal mistakes, despair, failure and frustration, Moses was able to grow in his character and perseverance.⁴⁷ Also, from shepherding Jethro's sheep, Moses was able to change from his once ruthless and violent character to a character of humility and modesty. Despite Moses' outstanding perseverance, he had a very humble posture before God. His humility was obedience to the Lord and was his core character personality strength as a leader.

⁴³ Meyer, *Moses*, 127-32.

⁴⁴ Norman J. Cohen, *Moses and the Journey to Leadership* (VT: Jewish Light, 2007), 98-9.

⁴⁵ Ruth Haley Barton, *Strengthening the Soul of Your Leadership* (IL: IVP, 2008), 155-9.

⁴⁶ Blackaby, *Spiritual Leadership*, 41.

⁴⁷ J. A. Motyer, *The Message of Exodus* (IL: IVP, 2005), 113.

2.2.8 Integrity, Genuineness, and Honesty

At first, midst his deep despair in the wilderness, Moses did not accept God's hcall to leave to Egypt. However, after this calling, the mission he had forgotten about helping the Hebrew people was reawakened. After this mission was reawakened, it turned into a vision that gave value to his life.⁴⁸ His mission consisted of two things: firstly, freeing the Hebrew slaves in Egypt, secondly, leading the Hebrew people to Canaan, the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Ex 3:17). In leading the Hebrew people through the wilderness, he did not once depart from this vision. He held integrity to his mission and pursued it with honesty until the end.

2.2.9 Loving and Allowing Oneself to Be Loved

Moses was someone who loved his people and his country. At first he grew up in a very wealthy environment which was different to his people. The wealth, academic and position that Moses held was incomparable to any other Hebrew. However, Moses was still able to acknowledge his identity as a Hebrew. A leader cannot place himself above his followers and flow harmoniously with his followers.⁴⁹ Further, a leader cannot appeal to his followers by simply saying they are the same as them without going through the same experiences as them. By going through the similar struggles as his people in the wilderness, Moses was able to relate with his people.⁵⁰ By devoting his life to God and being around his people, there was an automatic overflow of loving his people.

2.2.10 Citizenship, Duty, Teamwork, and Loyalty

Though Moses loved his people, he was not the kind to blindly cover the trespasses and sin of his people. Moses asserted a clear direction of right and wrong to his people. He also asserted the standard of having an identity as God's people, harvesting a great sense of citizenship. In their time in the wilderness, Korah, Dathan and On (son of Peleth) along with 250 Israelite men, rose up against Moses. However because Moses saw this as a rebellion against God, not himself, he prayed to God to not accept their offerings. In response to his prayer, God opened the earth's mouth and swallowed them and their households.

While Israel was staying in Shittim, the men began to indulge in sexual immorality with the Moabite women. Further Israel yoked themselves to the Baal of Peor. Seeing this unrighteousness, Moses did not pass it lightly, instead he had a righteous anger against what

⁴⁸ Swindoll, *Moses*, 146-7.

⁴⁹ George, *10 Minutes to Knowing the Men*, 55-6.

⁵⁰ Cohen, *Moses*, 88-9.

happened. Through such occurrences Moses was declaring the citizenship the Israelites had as people of God.

2.2.11 Fairness and Equality

Moses did not live to build his wealth, reputation or power. Moses was someone who selflessly loved his people. Rather than himself gain, Moses strived to abolish prejudice amongst his people.⁵¹

It is an almost impossible task to personally cater to 2.5 million people, however, as a judge, Moses was able to directly care for them and solve many difficult situations amongst his people. This showed his attentiveness, his kindness and personality to care for individuals. By directly communicating to his people, Moses was always with his people.⁵² In particular, Moses was able to abandon his own ideas if new better ideas were put forward to him.⁵³ By taking in Jethro's suggestion to delegate leaders within his people, Moses was able to foster a greater fairness and equality amongst his people.

2.2.12 Leadership

Moses was a leader in two scales: he rescued not only the individual people but the nation of Israel out of slavery. In this time, he also received from God the law and created a structure and system amongst the people. He ceaselessly prayed for the Israelites who continuously rebelled against him and against God. He had the role of a priest praying for his people's forgiveness.

He also preached to his people to obey the Law that was given and reproached his people when they disobeyed. He preached to them to obey God's law to be blessed eternally and he also preached that the disobedience to the law would bring destruction.⁵⁴ In this way he also had the role of a prophet.

2.2.13 Passion, Hope, Optimism, and Future-Mindedness

At the age of 80, when Moses seeing the burning bush, Moses newly encountered God (Ex 7:7; Acts 7:30). After encountering God, like the bush Moses too burned with passion to

⁵¹ Blackaby, *Spiritual Leadership*, 209.

⁵² Cohen, *Moses*, 79.

⁵³ Swindoll, *Moses*, 257-261.

⁵⁴ Deuteronomy records Moses' last 3 sermons before his death. The underlying message of these sermons is say obeying the law will bring blessing and disobedience to the law will bring destruction.

fulfil God's mission. He took on the 40 days as if it was 1 day.⁵⁵ Even in the worst situation, he did not lose hope of the Promised Land. Every time Moses was faced with adversity, he was able to conquer it with new miracles from God. The thing he was most passionate about was the law and being obedient to it to the end.

2.2.14 Spirituality, Sense of Purpose, Faith, and Religiousness

Moses was faithful in all God's house (Heb 3:2), this is elaborated further in Numbers 12:7, "But this is not true of my servant Moses, he is faithful in all my house." In particular, the incident of the golden calf is seen as clearly showing Moses' righteous anger (Ex 32:1-33:6).⁵⁶ However, after this, he prayed and contended for his people before God (Ex 32:31-32; Dt 9:4-21). In this way, Moses can be seen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intercessors in the Old Testament.⁵⁷

It is written in Deuteronomy, "Since then, no prophet has risen in Israel like Moses, whom the Lord knew face to face," (34:10). Moses is recorded as someone who spoke face to face with the Lord (Ex 33:11; Num 12:8).

Moses' leadership, his wisdom and all the great things that he did were not from his own strength but from God. By being with God, Moses gained spiritual strength, and through that strength he led the people of Israel.⁵⁸ In every difficult situation, he went to God and led his people according to the way God revealed to him.

Of course, he was not a great leader from the beginning. When he was first called in the wilderness, he was full of fear and doubt.⁵⁹ The reason he could become such a great leader was through the strength from God and from the relationship he had with God.

2.3 David's Character Strengths

2.3.1 Curiosity, Interest in the World, and Love of Learning

David grew up amongst small-scale livestock farmers, shepherding and caring for a flock until he was 20. As he was shepherding, everything that he saw and observed became an object of his curiosity. The Psalms that he wrote reveal his curiosity on the things around him and the viewpoint God had in all this.⁶⁰ Particularly, Psalm 23 not only illustrates his curiosity

⁵⁵ John I. Durham, *Word Biblical Commentary, Exodus* (TN: Thomas Nelson Publishers, 2001), 88.

⁵⁶ Sach and Alldritt, *Dig even Deeper*, 154-5, 160-7.

⁵⁷ Blackaby, *Spiritual Leadership*, 151.

⁵⁸ Meyer, *Moses*, 127-128.

⁵⁹ Cohen, *Moses*, 15-27.

⁶⁰ Dale Ralph Davis, *Looking on the Heart* (IL: Baker Books, 1994), 103-4.

about nature but it can also be seen as a climactic spiritual confession. David played the harp, wrote poetry and was also a singer. When Saul was depressed, David had the role of a musical therapist to heal his depression.

David was not just observant towards nature but he also had a great curiosity towards events, accidents and sounds. In particular, on his way to check up on his brothers during the war, David did not ignore the sounds of Goliath ridiculing God and His people. Hearing this, with a provoked and curious heart, he asked the men standing near him “What will be done for the man who kills this Philistine and removes this disgrace from Israel? Who is this uncircumcised Philistine that he should defy the armies of the living God?” (1 Sam 17:26). Hearing, this David’s older brother, Eliab was enraged at David’s curiosity, but it is this initial curiosity that eventually defeated Goliath and raised David as a war hero of Israel.⁶¹

2.3.2 Judgement, Critical Thinking, and Open-Mindedness

David’s sense of judgement is highlighted in the Desert of En Gedi. When Saul was in pursuit to kill David with 3000 of his trained men, Saul heard that David was spotted in the Desert of En Gedi. Saul and his trained men immediately proceeded to En Gedi. In this time David had several golden opportunities to kill Saul such as when Saul was relieving himself and when he was asleep. However, instead of killing Saul, David only cut the corner of Saul’s robe. By not killing Saul, David exercised highly wise judgement, stating “I will not lay my hand on my lord because he is the Lord’s anointed” (1 Sam 24:10).

This was also a demonstration of David’s open-mindedness, as illustrated in 1 Sam 24:12-13, “May the Lord judge between you and me. And may the Lord avenge the wrongs you have done to me, but my hand will not touch you. As the old saying goes, ‘From evildoers come evil deeds,’ so my hand will not touch you.” This showed that in judging the situation, David humbled himself to a position of open-mindedness to acknowledge God being the ultimate decision maker.

The 3000 trained men who witnessed David’s actions had their hearts deeply turned to support David. If David had killed Saul at that moment, the 3000 trained men of Saul could have easily overcome David and his men. But because of his spiritual judgment and open-mindedness, David was able to achieve his purpose in the best way possible.

⁶¹ Louis Albert Banks, *Saints and Sinners of the Bible* (TN: AMG Publishers, 2001), 152-3.

Such judgment and open-mindedness is not formed from one's skill to strategize. This is something that is formed from a great depth of integrity and character. Above all, David's had a spiritually intimate and holy motivation behind his actions, as follows.⁶²

Firstly, David could not kill somebody God had anointed as king. Secondly, David had a non-violent, non-resistant mindset.

Observing the many other chances David had to kill Saul, the above two characteristics can clearly be seen as principles David strictly lived by.⁶³ Particularly, when the Amalekite reported that he killed Saul, instead of thanking him for killing Saul, David broke down in mourning, asking him "Why weren't you afraid to lift your hand to destroy the Lord's anointed?" (2 Sam 1:16) Observing David's behaviour of tearing his clothes, mourning, weeping and fasting (1 Sam 1:12), it is evident how consistent David's character was to his judgment and open-mindedness.⁶⁴

2.3.3 Ingenuity, Originality, Practical Intelligence, and Street Smarts

David defeated Goliath in a way no one could have imagined. To be victorious in a battle, weapons, armour, swords and spears were considered essential. However, David used none of these weapons and did not wear the armour Saul had offered him, "Then Saul dressed David in his own tunic. He put a coat of armour on him and a bronze helmet on his head. David fastened on his sword over the tunic and tried walking around, because he was not used to them." (1 Sam 38-39). So instead, "David triumphed over the Philistine with a sling and a stone; without a sword in his hand he struck down the Philistine and killed him." (1 Sam 17:50). This uniqueness and originality was not something David brought on his own strength but it was because he had the strength of the Lord, "...but I come against you in the name of the Lord Almighty" (1 Sam 17:45).

2.3.4 Social Intelligence, Personal Intellig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Though David was a powerful warrior at war; in the context of family, he showed an emotional and caring side.⁶⁵ When David's son, Absalom fled after murdering his half-brother Amnon, David revealed his emotional intelligence by longing to see Absalom (2 Sam 13:39). David had the capacity to feel the emotional pain and longing when his rebellious son died (2

⁶² Kendall, *A Man after God's Own Heart*, 189.

⁶³ Mark Gerzon, *Leading through Conflict* (Massachusetts: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2006), 61-2.

⁶⁴ Kendall, *A Man after God's Own Heart*, 259-60.

⁶⁵ John Goldingay, *Men Behaving Badly* (Bletchley: Paternoster Press, 2002), 251-6.

Sam 18:33). By being able to show endless compassion and love to the son who had led a rebellion against him, David was a man of tender and deep emotion.⁶⁶

David's personal intelligence can be seen in his lifelong friendship with Jonathan. When David became the King of Israel, David did not discard of his friendship with Jonathan who was the son of the former king, Saul. At no point did David put an authority over Jonathan as King, rather David and Jonathan formed one of the greatest friendships of the bible. This friendship lasted even after Jonathan's death. David actively searched for Jonathan's disabled son, Mephibosheth. David took Mephibosheth into his house, treated him like a prince and ate together with him at the table (2 Sam 9:11).

2.3.5 Perspective

As a teenager, David was appointed and anointed as King by Samuel (1 Sam 16:9). Before he became King however, David had to overcome many barriers and difficult situations. David did not live under the fantasy that he was already king. He was in a posture of preparation for the future.⁶⁷ In the situations he had no choice but to wait, David did not waste his time and developed many different skills.⁶⁸ In particular, during the several persecutions from Saul, he had to endure great levels of pain and difficulty. However, it was such adversity that developed and trained his character to become the greatest king of Israel. David's devotion and ability to overcome crises had a significant role in the unification between Judah and Israel.⁶⁹ David not only unified the land but also the hearts of the people. It was such accomplishments that David's preparation and developed character was able to achieve.

2.3.6 Valour and Bravery

As mentioned, the Philistine giant Goliath mocked and ridiculed Israel. Trapped by their fear, none of the Israelites made a stand against Goliath. Israel had lost the battle before it had even started. It was in this situation that the 20 year old David bravely stood up, burning with righteous anger. In this situation, David was a greater giant than Goliath.⁷⁰ When the concerned Saul warned him not to go (1 Sam 17:33),⁷¹ David bravely answered,

⁶⁶ Kenneth Prior, *Perils of Leadership* (IL: IVP, 1990), 52-4.

⁶⁷ Blackaby, *Spiritual Leadership*, 268.

⁶⁸ C. R. Swindoll, *A Man of Passion and Destiny, David* (TX: Word Publishing, 1997), 108-10.

⁶⁹ Kendall, *A Man after God's Own Heart*, 37-8.

⁷⁰ Swindoll, *David*, 39-40.

⁷¹ Kendall, *A Man after God's Own Heart*, 53-61.

“Your servant has been keeping his father’s sheep. When a lion or a bear came and carried off a sheep from the flock, I went after it, struck it and rescued the sheep from its mouth... The Lord who rescued me from the paw of the lion and the paw of the bear will rescue me from the hand of this Philistine” (1 Sam 17:34-37)

It is such bravery that defeated Goliath and opened his future to ruling Israel. In David’s dialogue with Goliath, Goliath curses David by his gods (1 Sam 17:43) and David responds by proclaiming the power of his God (1 Sam 17:45-47). In this way, the battle is elevated to a battle between Goliath’s god and David’s God and it is David’s faith in his God that establishes David’s valour and bravery.

2.3.7 Perseverance, Industry, and Diligence

Caring for the sheep that his father entrusted him with was an instrumental part of his life in building these characteristics. As a teenager, David defended his sheep against bears and lions. From this, David learnt and developed his technique in using the sling. He developed this skill so finely that he was able to defeat Goliath using this technique alone. This everyday technique became a skill to save a nation.⁷² This was the starting point of seeing David’s potential as king. From being diligent and building a passionate perseverance from a young age, God prepared David to have a great future.

2.3.8 Integrity, Genuineness, Honesty, Kindness, and Generosity

As reported above, despite his opportunities in the cave of En Gedi to kill Saul, David did not kill him. Thousands of years before the New Testament was recorded, David was living out what Paul wrote, “Do not repay anyone evil for evil. Be careful to do what is right in the eyes of everyone.” (Rom 12:17). Although Saul pursued to kill David for many years, David was not glad receiving the news of Saul’s death. Instead he wept, mourned and fasted. After unifying the nation, instead of killing off Saul’s household, he asks “Is there anyone still left of the house of Saul to whom I can show kindness for Jonathan’s sake?” (2 Sam 9:1). From calling the name “Saul,” it shows that David had a deep heart of kindness and generosity despite the great deal of suffering Saul put David through.

David’s integrity, genuineness, honesty, kindness and generosity extended to Saul’s grandson and Jonathan’s son, Mephibosheth. Because of his brotherly friendship with Jonathan,

⁷² Greg Laurie, *Losers and Winners, Saints and Sinners* (NY: Warner Faith, 2005), 62.

David had a genuine concern towards Mephibosheth. He did not treat Mephibosheth with kindness for any self-gain but rather out of an honest heart to love.⁷³

2.3.9 Citizenship, Duty, Teamwork, and Loyalty

More than anything, David's sense of citizenship duty and loyalty is emphasised when David and his men went to retrieve the ark of God back to Jerusalem from the house of Obed-Edom. This showed the devotion David has to his people's spiritual citizenship. When governing the nation, David placed the Levites in a special position, reconci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Judah and Jerusalem. This structure that David organised established Israel's theocracy.⁷⁴ By retrieving the ark that was left for 30 years back to Jerusalem, the people of Israel were able to recognise the sovereignty of God in the nation during David's reign.⁷⁵

2.3.10 Leadership

During his time in the En Gedi Desert, the people that were around David were "those who were in distress or in debt or discontented" (1 Sam 22). In an environment where it was difficult for David to sustain even just himself, many of these people depended on him. This was a group of roughly 400 people. The degree of conflict and difficulty within this group was significant.⁷⁶

However, David was able to overcome and resolve all these conflicts. The 400 that gathered with David at Adullam were reborn as a legendary group of brave warriors under David's leadership.⁷⁷ David totally changed these people's lives, instilling within them a vision, purpose, dignity, order and discipline.⁷⁸ In the worst conditions, David dreamt the highest dreams and planted the best visions. This dream was to "awaken the dawn" of a dark Israel (Ps 57:8). Because he had such visions, David was able to live in praise and thankfulness despite the harsh conditions. When David eventually became King, from the 400 that he commanded, he selected a few to be in charge of his administration.

A charismatic leader is one that leads his followers with his individual character strengths. This is a trait normally found in leaders in politics and in religion.⁷⁹ Beyond this

⁷³ Kendall, *A Man after God's Own Heart*, 329-36.

⁷⁴ Alfred Edersheim, *Bible History-Old Testament* (Massachusetts: Hendrickson, 1995), 533.

⁷⁵ Eugene H. Peterson, *Leap Over A Wall* (NY: Harper Collins, 1997), 176.

⁷⁶ Kendall, *A Man after God's Own Heart*, 147-55.

⁷⁷ Blackaby, *Spiritual Leadership*, 283.

⁷⁸ *Ibid.*, 268.

⁷⁹ M. E. Spener, "What is Charisma?"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24 (March, 1978): 341-54.

charisma, David had the ability to transform his followers. A true leader is one who can transform his followers.

2.3.11 Humility and Modesty

After committing his power-abusing crime against Bathsheba and Uriah, when Nathan came to rebuke David,⁸⁰ David showed the humility to listen, accept and repent hearing the news. From this, David was able to free his spirituality, resolve conflict and grow into an even greater leader (2 Sam 12).⁸¹

In fleeing from Absalom, David and his men were confronted by Shimei who kept cursing David. Despite the fact David had all his guards with him and despite Abishai asking David if he can kill Shimei, David humbly takes in the curses of Shimei. David states “My son, my own flesh and blood, is trying to kill me. How much more, then, this Benjamite! Leave him alone; let him curse, for the Lord has told him to...” (2 Sam 16:11). To be able to restrain from retaliating, in the extreme political, physical and emotional circumstances, David’s response to Shimei’s cursing revealed David’s faith, modesty and humility.

2.3.12 Gratitude, Hope, Optimism, and Future-Mindedness

In David’s continual flea from Saul’s relentless pursuit and persecution, David goes to Gath to seek political asylum. However on the day he arrives, his identity as king is suspected. This causes David to fear for his life so he pretends to be insane by making marks on the doors and letting saliva run down his beard. This results to him being thrown out of Gath. Through all these difficult situations, David kept his gaze fixed on God.⁸² By going through difficulties to the extent that he has to act like a madman, David is still able to respond in a song of hope and thanksgiving (Ps 34:1-3).

In the circumstances of not knowing when he will die, the characteristics of joy, hope, gratitude and future-mindedness flourish within David’s heart.

2.3.13 Spirituality, Sense of Purpose, Faith, and Religiousness

God has a focus on people.⁸³ David’s faith and spirituality starkly contrast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typical leader. It is David’s desire to be right before the Lord that allowed

⁸⁰ Chandrakumar, *Leadership Insights from Heroes of the Bible*, 47-8.

⁸¹ Laurie, *Losers and Winners*, 73-8.

⁸² Kendall, *A Man after God’s Own Heart*, 139-40.

⁸³ Laurie, *Losers and Winners*, 63-5.

him to overcome the many difficulties and rise as the King of Israel.⁸⁴ Also when he had to make important decisions, David went on his knees to pray (2 Sam 2:1). David's obedience to God's response to his prayers resulted to many difficult situations. However midst those difficulties David was able to trust in God's faithfulness. David's repentance after committing adultery with Bathsheba is a pinnacle example of David's spirituality and position before God. (2 Sam 12:7-13)⁸⁵

God testifies David as "a man after my own heart" (Acts 13:22). This declaration becomes the source and reason behind David's actions. This showed that David was not someone who lived according to his own heart but according to what God's heart desired.

2.4 Paul's Character Strengths

Paul is can be considered to have the greatest impact during the growth of the Early Church period. Being able to lead a multicultural environment, Paul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greatest leaders in church history.⁸⁶ Through the books of Acts and Paul's Epistles, Paul's leadership is illustrated through his acts of church planting and nurturing midst the political, religious and cultural structures of the Roman Empire.⁸⁷

2.4.1 Curiosity, Interest in the World, and Love of Learning

Paul was born into a prestigious family and studied under Gamaliel. He was very knowledgeable and respected due to his academics (Eph 4:13).

Despite being a top scholar, Paul always had the posture to know and believe in Jesus Christ.⁸⁸ By reading the Old Testament and the teachings of Jesus, Paul continuously gathered and processed the spiritual and theological knowledge he needed for his ministry. Through the intimate relationships he had with the local churches,⁸⁹ Paul was able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problems they had.⁹⁰ In response, Paul wrote very informative, theologically rooted and helpful letters to guide the churches.

Through all his experiences and materials, Paul always had a posture to learn. This allowed him to acquire a very wide range of knowledge. Despite already being an established scholar, from his love of learning, Paul was able to deepen his knowledge of God to not just an

⁸⁴ George, *10 Minutes to Knowing the Men*, 108

⁸⁵ Laurie, *Losers and Winners*, 71.

⁸⁶ Prior, *Perils of Leadership*, 174-8.

⁸⁷ Larry Richards, *Every Man in the Bible* (TN: Thomas Nelson Publishers, 1999), 177-9.

⁸⁸ Blackaby, *Spiritual Leadership*, 114.

⁸⁹ Richards, *Every Man in the Bible*, 180-2.

⁹⁰ George, *10 Minutes to Knowing the Men*, 224.

academic but a spiritual level,⁹¹ enabling him to set out the doctrines for the Early Church. These doctrines are now part of the bible.⁹²

2.4.2 Judgment, Critical Thinking, and Open-Mindedness

The consistent principle that forms the basis of Paul's action is his faith in his calling. A calling is not an essential component in secular positions of leadership. However, in positions of Christian leadership, it is essential. A calling mindset maintains the leader's direction and goal. It also becomes a source of motivation. It also can be the basis of judgement.⁹³

Paul takes a strong stance in his judgment when he encounters Elymas the sorcerer, looking straight at him and saying "You are a child of the devil and an enemy of everything that is right!" (Acts 13:10). Not only is his judgment demonstrated towards enemies of the gospel, Paul also takes a stance towards fellow believers, Paul rebukes Peter for his hypocrisy (Gal 2:11). Seeing these characteristics, Paul may seem like an extreme person, however it goes to demonstrate Paul's uncompromising belief in the truth and judgment of the gospel.

At the same time, Paul was very soft and open-minded towards his disciples and local church members. "Whatever you have learned or received or heard from me, or seen in me—put it into practice. And the God of peace will be with you" (Phil 4:9). This shows Paul is very open-minded and tolerant towards the church he planted.

2.4.3 Ingenuity, Originality, Practical Intelligence, and Street Smarts

Paul was a very clear and creative interpreter of the Old Testament. He was also very intelligent in practically applying the theology behind the cross of Christ.⁹⁴ With his knowledge, Paul had the gift to present the gospel in a creative, practical, informative and contextual way. Particularly, observing his epistles, roughly half of his content is a deep explanation of the doctrines and theology of the gospel and the other half is on the practical repercussions and applications of them. Because of this, the important materials we have in explaining the gospel are largely derived from Paul's works.⁹⁵ This demonstrates Paul's originality and practical ability in the gospel.⁹⁶ Paul had the street smarts to present the gospel in the most effective way possible depending on what kind of environment he was in.

⁹¹ Albert Mohler, *The Conviction to Lead* (Minneapolis: Bethany House Publishers, 2012), 167-73.

⁹² John McRay, *Paul, His Life and Teaching* (IL: Baker Academic, 2003), 263-70.

⁹³ Bill Farrel, *The 10 Decisions a Leader can Make* (OR: Harvest House Publishers, 2013), 39-40, 109-10.

⁹⁴ Herbert Lockyer, *All the Apostles of the Bible* (IL: Zondervan, 1972), 222-4.

⁹⁵ McRay, *Paul*, 273-81.

⁹⁶ Richards, *Every Man in the Bible*, 180.

2.4.4 Social Intelligence, Personal Intellig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Paul was not a leader who was far from others or alone with secrets.⁹⁷ Paul always had his friends, disciples and co-workers around him.⁹⁸ There is a high number of 70 people who would not be mentioned in the bible had they not had relationship with Paul.⁹⁹

For example: Damascus and Ananias who helped Paul's Gentile ministry as an evangelist(Acts 9 , 2 Cor 11:32), Barnabas(Acts 9:27, Acts 11:24), Silas(Acts 17:04 , 10; 1Thes 1:1, Acts 16:19-24, 2Cor 1:19 , Acts 18:1-5), Lystra, Timothy(Col 1:3, 2 Tim 3:15, Acts 16:1, 1Tim 1:2), doctor Luke(Col 4:11,14), Priscilla and Aquila(Rom 16:3, 2 Tim 4:19, 16:19, Acts 18:2), Apollos of Alexandria(Acts 18: 24-25, Ti 3:13), and countless others.

Including all those listed above, the people Paul personally met were able to have a unique impact on his own life and ministry just as Paul was able to impact theirs.¹⁰⁰ This intimacy is shown in Romans 16:4 in describing his relations with Priscilla and Aquila "They risked their lives for me. Not only I but all the churches of the Gentiles are grateful to them."

Not only did he have relations with believers, Paul was also very socially active amongst non-believers. For example, Paul was friends with the officials of the province in Ephesus (Acts 19:31), he also had good relations with Julius the centurion (Acts 27:43). Paul's ability to form good relations with both believers and non-believers is an effective illustration of his social and personal intelligence.¹⁰¹

2.4.5 Perspective

When Paul was being escorted to face trial in Rome, before the ship set sail, Paul warned them "Men, I can see that our voyage is going to be disastrous and bring great loss to ship and cargo, and to our own lives also" (Acts 27:10). Paul is speaking from the status of a prisoner and speaking up in such a manner is not something that he allowed to do. However because he was able to see the urgency of the situation, Paul actively spoke up. This shows that regardless of his status or the situation, Paul is willing to speak his perspective, not for his own benefit, but for the interests of others. This illustrates his servant leadership.¹⁰² However, despite his

⁹⁷ Charles. R. Swindoll, *A Man of Grace and Grit, Paul* (TX: The W Publishing Group, 2002), 219.

⁹⁸ Henry Blackaby and Tom Blackaby, *Anointed to be God's Servants* (TN: Thomas Nelson Publishers, 2005), 41-2.

⁹⁹ F. F. Bruce, ed., *Unlocked the Bible: Key to Discovering the People and Places* (TN: Thomas Nelson, 2011), 8-9.

¹⁰⁰ Blackaby, *Anointed to be God's Servants*, 25.

¹⁰¹ Richards, *Every Man in the Bible*, 178.

¹⁰² Robert Harrison, *Oriel's Travels* (England: Scripture Union, 2003), 204-5.

advice, the authorities did not listen to him. At last, according Paul's perspective and prediction, there was a monsoon and the ship faced shipwreck.

A leader must be able to have a perspective into the future and have a correct judgment based on the direction of the community. Leaders should also be able to ensure the community's safety.¹⁰³ Thus in the crisis of shipwreck, amongst the 276 people desperate for survival, Paul was able to stand up again with his perspective into the future. He calmed the people by presenting them with a hope, purpose and vision¹⁰⁴ "But now I urge you to keep up your courage, because not one of you is lost... last night an angel of the God to whom I belong and whom I serve stood beside me and said, 'Do not be afraid, Paul. You must stand trial before Caesar; and God has graciously given you the lives of all who sail with you'" (Acts 27:22-24).

A servant leader always places the safety and salvation of his community as his top priority. In the situation of crisis, the leader becomes the force that radically changes the followers' perspectives of the circumstance by presenting a clear and convincing vision of their own perspective.

2.4.6 Valour and Bravery

In order to spread the gospel, Paul acted with great valour and bravery.¹⁰⁵ Paul did not consider anything a waste, including his life, if it was for the gospel. Despite the hard and frightening circumstances that he had to face, Paul ran towards his mission without the slightest hesitation.¹⁰⁶ Paul had to risk his life every time he set sail to spread the gospel, he was also risking being imprisoned by spreading the gospel. Despite these risks, Paul's passion and fervency to carry out his mission only increased, demonstrating the valour and bravery Paul had from God to spread the gospel. Paul's valour and bravery for the gospel is effectively summarised in the 2 Cor 12:23-33.

2.4.7 Perseverance, Industry, Diligence, Zest, Passion, and Enthusiasm

Paul's relentless Christ-centred life¹⁰⁷ in spreading the gospel through extreme adversities was characterised by his flaming perseverance and passion and his consistent diligence and industry. Paul understood himself as a slave of Christ and joyfully received the

¹⁰³ J. Robert Clinton, *The Making of a Leader* (CO: Navpress, 2012), 33-4.

¹⁰⁴ Swindoll, *Paul*, 292-8.

¹⁰⁵ Lockyer, *All the Apostles of the Bible*, 218-9.

¹⁰⁶ Christopher D. Hudson, *Fascinating People of the Bible* (OH: Barbour Publishing, 2009), 37.

¹⁰⁷ Robert L. Reymond, *Paul, Missionary Theologian* (Scotland: Christian Focus Publications, 2000), 59.

chain of being bounded to Christ.¹⁰⁸ Paul rested his authority on Christ speaking through him.¹⁰⁹

Paul had a very strong personality. He passionately fought for what he believed was right. For example in Galatians 2, Paul was relentless and diligent to ensure that the Church was going the right direction by rebuking the hypocrisy amongst the Jews.¹¹⁰

Before his conversion on the road to Damascus, Paul was someone who intensely persecuted the church of God and tried to destroy it (Gal 1:13; Phil 3:6). This characteristic of Paul is reflected after his conversion and it is what drives him to persevere through suffering while spreading the gospel. Paul's apostolic zeal carried him strongly as he spent time trying to evangelize the whole of the Roman Empire. Despite the recurring hardships, as a tentmaker, Paul continued to expand the gospel. Amongst his letters, Paul states how he has "gone without sleep" (2 Cor 11:27). This characteristic can be illustrated in a way that when he was working with Priscilla and Aquila as a tentmaker, Paul must have made tents and spread the gospel in the midst of minimal sleep.

Paul was someone who diligently thrived with passion to achieve his mission; he was someone who put the totality of his physical, spiritual and mental being into persevering for the gospel. This is a form of charisma bestowed by God's grace and this seems to be one of the basic qualities behind Paul's leadership.

2.4.8 Integrity, Genuineness, and Honesty

Though Paul was being transferred to Rome as a prisoner, the centurion named Julius who was in charge of him allowed Paul to go to his friends so they might provide for his needs (Acts 27:1-3).¹¹¹ This showed that Julius saw an honest and genuine characteristic of Paul, enough for Julius to show such kindness to him.

The characteristics of integrity, genuineness and honesty are qualities that arise when one fully acknowledges the sovereignty of God. These characteristics arise when one is obedient with a servant heart and when one is confident about their identity under God.¹¹² Paul's characteristics of integrity, genuineness and honesty were a driving force overcoming the several crises in his difficult ministry. When he was being persecuted due to his different teachings, despite the social alienation, his followers continued to stand firm and encourage

¹⁰⁸ McRay, *Paul*, 52.

¹⁰⁹ Blackaby, *Spiritual Leadership*, 79-80.

¹¹⁰ Lockyer, *All the Apostles of the Bible*, 208-10.

¹¹¹ Swindoll, *Paul*, 287-8.

¹¹² Blackaby, *Spiritual Leadership*, 189.

him. His genuineness, integrity and honesty in addressing them with the gospel was one main reason for this.

2.4.9 Kindness, Generosity, and Love

The core principles of the Christian faith are loving God and His people. Paul was able to serve the early church with such flourishing passion because he had an overflowing sacrificial, ‘agape’ love. Rather than leading out of dull duty and obligation, Paul nurtured and led the Early Church by being centred upon love.¹¹³

Paul nurtured and led the churches with a father’s heart (1 Cor 4:14; 1 Thes 2:11). Paul states to the Corinthian church how although they may have many teachers and guardians in Christ, they do not have many fathers. He states that he became their father through the gospel (1 Cor 4:15). This illustrates how Paul’s love for the Corinthian church is built on the presentation of the gospel to them.

Paul’s parental love also is shown through his leadership. By being a role model for the church, by being someone who the churches can imitate, Paul’s fatherly love is shown.¹¹⁴

Paul also shows a motherly, nurturing love by comparing his care for them with the pains of childbirth (Gal 4:19).¹¹⁵ This motherly love is highlighted further when he writes to the Thessalonians “Just as a nursing mother cares for her children, so we cared for you. Because we loved you so much, we were delighted to share with you not only the gospel of God but our lives as well” (1 Thes 2:7-8).

The above examples show that Paul’s kindness and generosity were rooted in his love for the Early Church. A love like that between a parent and a child as the parent responds to the sensitive needs of the child by serving and nurturing them.¹¹⁶

2.4.10 Citizenship, a Sense of Duty, Teamwork, and Loyalty

Paul’s leadership to the Early Church was built around a close relationship and community amongst the Early Church. This relationship was not one of dictatorship and forcefulness; rather it was organic, selfless and team-driven. Instead of using his apostolic authority and charisma for increasing the church for his own benefit,¹¹⁷ Paul used these gifts

¹¹³ Hans Finzel, *Empowered Leaders* (TX: The W Publishing Group, 1998), 53-4.

¹¹⁴ John F. MacArthur, ed., *Introduction to Biblical Counselling* (TX: Word Publishing, 1994), 177, 276, 365.

¹¹⁵ Blackaby, *Spiritual Leadership*, 176.

¹¹⁶ Edward R. Dayton and Ted W. Angstrom, *Strategy for Leadership* (IL: Baker Books, 1979), 69-70.

¹¹⁷ Blackaby, *Anointed to be God’s Servants*, 127-9.

as a means to serve and build a greater sense of community and citizenship centred on God, not himself.

Though he had many difficulties in his ministry, Paul was able to overcome the many adversities through the teamwork he built with many of his ministry supporters such as Priscilla and Aquila, Timothy, Silas and Barnabas. From looking at Paul's mission strategy, it is evident that it was very well established and required a high level of administration. This can be explained through his teamwork. Through teamwork, by centring upon the Mediterranean River, Paul was able to have the gospel carried out all throughout the Roman Empire.¹¹⁸ This teamwork was not to spread his own name or his own citizenship, but to proclaim a heavenly citizenship across the lands (Phil 3:20).

2.4.11 Leadership

As mentioned before, in raising up his followers, Paul demonstrates a sacrificial leadership that is like a mother nurturing a child (1 Thes 2:7-8). This leadership illustrates the relentless love of a nursing mother, echoing one of Christ's teachings, "Jerusalem, Jerusalem, you who kill the prophets and stone those sent to you, how often I have longed to gather your children together, as a hen gathers her chicks under her wings, and you were not willing" (Matt 23:37). This aspect of leadership that Paul demonstrates is one that is very gentle.

When making a decision, Paul did not act in an authoritarian or dictating manner. Instead he demonstrated a leadership that involved the consideration of others (Acts 15:6).¹¹⁹ This was to unite the Early Church. And for the Early Church will advance in one unit.¹²⁰

Paul's administrative and organisational leadership is seen through his strategic church plants. He planted churches in target areas in order to effectively spread the gospel. In Asia, he planted a church in Ephesus; in Macedonia, a church in Thessalonica; in Achaia, a church in Corinth. By planting churches in these major cities, the gospel overflowed to smaller surrounding cities. In this way Paul shows a strategic form of leadership.

William Ramsay stated that Paul was on a mission to establish a spiritual empire that paralleled the Roman Empire.¹²¹ Rainer Riesner and James Scott say that in light of Genesis 10 and Isaiah 66, Paul's mission was to spread the Gospel to all nations.¹²²

¹¹⁸ Swindoll, *Paul*, 181-3.

¹¹⁹ Blackaby, *Spiritual Leadership*, 202-4.

¹²⁰ Edwin. B. Young, *The Creative Leader* (TN: Broadman & Homan, 2006), 171-3.

¹²¹ McRay, *Paul*, 125.

¹²² *Ibid.*, 82.

Paul also had a creative leadership when combining the Jewish traditions with the Greek traditions in his ministry. This kind of skill is important for Christian leaders. Many Christian leaders go ill-prepared relying on their view of the Holy Spirit. Christian leaders need to know their mission field and be able to strategise with the Holy Spirit.¹²³ No matter what the leadership style is, an open mind and acceptance of the Holy Spirit's guidance is essential. Systems to organise and administer a people under a strategy are also important. Paul is an excellent model of both qualities.

2.4.12 Self-Control, Thoughtfulness, Prudence, Humility, and Modesty

Amongst Paul's leadership characteristics is the synchronisation between his faith and his life. One of Paul's greatest struggles was when he was being escorted to Rome as a prisoner, spending 14 days of terror in the ocean. Paul was able to encourage and enliven the other people in the shipwreck when he proceeded to pray and eat some bread (Acts 27:35). In the midst of death, Paul's acts of hope paved a way to transform the others in the ship. This further united everyone and allowed everyone to survive by reaching the island.

Through this, Paul was no longer a prisoner but a leader amongst those in the ship. The leadership Paul displayed in this difficult situation showed his thoughtfulness for others and his humility to serve others showed to be the most effective way in helping others.¹²⁴

Leadership flourishes when the leader moves forward with the followers while serving them. This is shown through Paul.

2.4.13 Hope, Optimism and Future-Mindedness

Despite being in a most wretched situation of a shipwreck, Paul proclaimed a message of hope from God. As a result of this, he planted hope within the hearts of the darkened and dying prisoners (Acts 27:21-25).¹²⁵

Despite being imprisoned, Paul proceeded to sing and pray, showing a great optimism towards the future (Acts 16:25). His letter to the Philippians that he wrote whilst in prison is filled with commands to "rejoice". In this letter, through his suffering, Paul's characteristics of hope, optimism and future-mindedness are illustrated.

¹²³ Doug Murren, *Leader Shift* (CA: Regal Book, 1994), 133-4.

¹²⁴ John C. Maxwell and Jim Dornan, *Becoming A Person of Influence* (TN: Thomas Nelson Publishers, 1997), 15-7, 179-80.

¹²⁵ John C. Maxwell, *Thinking for a Change* (NY: Warner Books, 2003), 97-9.

In communities, a great crisis is not determined by the crisis in itself but the attitudes of the leader and the followers towards the crisis. For this reason, no matter what the situation, a spiritual leader must be able to pioneer a hope and faith amongst his followers.¹²⁶ Also the leader must be able to give the followers to grow no matter what the situation is.¹²⁷ This is the leader trusting in God's absolute sovereignty and showing sincere love and servant hood to his followers. In this way, Paul not only has a great ability in managing crises but is also able to facilitate great growth amongst his followers through the crises.

2.4.14 Spirituality

On the road to Damascus, Paul received the grace of forgiveness and salvation. This conversion was not something that remained in his learned mind but something that he experienced in his whole body. He first interpreted his experience through the Old Testament. He then put it in the light of Jesus' teachings.¹²⁸ This confirmed what he experienced. This allowed Paul to have a great convic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truth of the gospel. His first revelation combined with his knowledge and surveying of teachings, resulted to a deep understanding of the doctrines of the gospel.

As an apostle he was aware that his first duty was to receive the revelation of Christ and secondly to spread it and make it known.¹²⁹ As a way to make Christ known and to spread this revelation he thought of two methods. Firstly, through proclaiming the gospel of Christ crucified with his mouth. Secondly, through living a life that reflects Christ.¹³⁰

Paul is stating that he doesn't live for his own gains and privileges but only to reveal the good news of Christ. He revealed this through living a life devoted to Christ. The result of this was the life of Jesus being revealed in his body.

3 Conclusion

¹²⁶ Barbara Sher and Annie Gottlieb, *Teamworks!* (NY: Warner Books, 1989), 108-9.

¹²⁷ John C. Maxwell, *The 21 Most Powerful Minutes in a Leader's Day* (TN: Thomas Nelson Publishers, 2000), 335-6.

¹²⁸ Lockyer, *All the Apostles of the Bible*, 208-9.

¹²⁹ Robert L. Raymond, *Paul Missionary Theologian: A Survey of his Missionary Labours and Theology* (Ross-shire: Christian Focus Publications, 2000), 86-7.

¹³⁰ Richards, *Every Man in the Bible*, 179-80.

This article has examined Joseph, Moses, David and Paul, and their strengths through the lens of Positive Psychology. The highest three character strengths, in order, for each character can be summarised as follows:

Firstly, Joseph: Temperance, Justice, then Transcendence. Secondly, Moses: Courage, Justice, then Transcendence. Thirdly, David: Courage, Transcendence, then Justice. Fourthly, Paul: Courage, Justice, then Temperance.

From this, it is evident that courage is the primary character strength amongst the key characters in the bible. Justice, then transcendence, and then temperance is also a prominent character strength in the characters above.

Knowledge and Wisdom, and Humanity and Love do not appear to be prominent traits in the characters studied.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study does not conclude that those features were lacking. Rather, Knowledge and Wisdom, and Humanity and Love, can be seen as foundational character strengths that allowed the other character strengths to flourish.

Bibliography

- Alldritt, Richard and Andrew Sach. *Dig even Deeper*. IL: IVP, 2010.
- Angstrom, Ted W. and Edward R. Dayton. *Strategy for Leadership*. IL: Baker Books, 1979.
- Arnold, B. T. *Genesis, The New Cambridge Bible Commenta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Banks, L. A. *Saints and Sinners of the Bible*. TN: AMG Publishers, 2001.
- Barton, R. H. *Strengthening the Soul of Your Leadership*. IL: IVP, 2008.
- Blackaby, Henry and Richard Blackaby. *Spiritual Leadership*. TN: Broadman & Holman, 2001.
- Blackaby, Henry and Tom Blackaby. *Anointed to be God's Servants*. TN: Thomas Nelson Publishers, 2005.
- Bruce, F. F. ed. *Unlocked the Bible: Key to Discovering the People and Places*. TN: Thomas Nelson, 2011.
- Brueggemann, W. *Interpretation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 Preaching, Genesis*. Georgia: John Knox Press, 1982.
- Chandrakumar, M. *Leadership Insights from Heroes of the Bible*. Colorado Springs: Authentic Books, 2007.
- Clinton, J. R. *The Making of a Leader*. CO: Navpress, 2012.
- Cohen, N. J. *Moses and the Journey to Leadership*. VT: Jewish Light, 2007.
- Davis, D. R. *Looking on the Heart*. Grand Rapids: Baker Books, 1994.
- Durham, J. I. *Word Biblical Commentary, Exodus*.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1.
- Edersheim, A. *Bible History-Old Testament*. MA: Hendrickson, 1995.
- Farrel, B. *The 10 Decisions a Leader Can Make*. Eugene, OR: Harvest House Publishers, 2013.
- Finzel, H. *Empowered Leaders*. TX: The W Publishing Group, 1998.
- George, J. *10 Minutes to Knowing the Men & Women of the Bible*. OR: Harvest House Publishers, 2008.
- Gerzon, M. *Leading through Conflict*.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2006.
- Goldingay, J. *Men Behaving Badly*. Bletchley: Paternoster Press, 2002.
- Goligher, L. *Joseph, The Hidden Hand of God*. Scotland: Christian Focus Publications, 2008.
- Harrison, R. *Oriel's Travels*. England: Scripture Union, 2003.
- Hudson, C. D. *Fascinating People of the Bible*. OH: Barbour Publishing, 2009.
- Kendall, R. T. *A Man after God's Own Heart*. Scotland: Christian Focus Publications, 2002.

- Laurie, G. *Losers and Winners, Saints and Sinners*. NY: Warner Faith, 2005.
- MacArthur J. F. ed. *Introduction to Biblical Counselling*. TX: Word Publishing, 1994
- Maxwell, J. C. and Dornan, J. *Becoming a Person of Influence*. TN: Thomas Nelson Publishers, 1997.
- Maxwell, J. C. *The 21 Most Powerful Minutes in a Leader's Day*. TN: Thomas Nelson Publishers, 2000.
- Maxwell, J. C. *Thinking for a Change*. NY: Warner Books, 2003.
- McRay, J. *Paul, His Life & Teaching*. IL: Baker Academic, 2003.
- Meyer, F. B. *Joseph: Exalted through Trials*. NY: AMG Publishers, 2001.
- _____. *Moses: The Journey of Faith*. NY: AMG Publishers, 2002.
- Meyers, C. *Exodus, The Cambridge Bible Commenta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Mohler, A. *The Conviction to Lead*. Minneapolis: Bethany House Publishers, 2012.
- Moller, L. *The Exodus Case*. NV: Scandinavia Publishing House, 2000.
- Murren, D. *Leader Shift*. CA: Regal Book, 1994.
- Ogilvie, L. J. *The Communicator's Commentary, Genesis*. TX: Word Books, 1986.
- Peterson, C. *A Primer in Positive Psychology*.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Peterson, E. H. *Leap Over A Wall*. NY: Harper Collins, 1997.
- Pixley, G. V. *On Exodus*. NY: Orbis Books, 1987.
- Prior, K. *Perils of Leadership*. IL: IVP, 1990.
- Ramm, B. L. *His Way Out*. CA: G/L Publications, 1974.
- Reid, D. *Heroes & Outlaws of the Bible*. Minnesota: New Leaf Press, 2002.
- Raymond, Robert L. *Paul Missionary Theologian: A Survey of his Missionary Labours and Theology*. Ross-shire: Christian Focus Publications, 2000.
- Richards, L. *Every Man in the Bible*. TN: Thomas Nelson Publishers, 1999.
- Seligman, Martin E. P.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Nashville: Atria Books, 2012.
- _____. *Authentic Happiness*. NY: The Free Press, 2002.
- Sher, B. and Gottlieb, A. *Teamworks!* NY: Warner Books, 1989.
- Song, K.T. *Hoju Dongailbo*. 14 May 2010.
- Spener, M. E. "What is Charisma?"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24 (March, 1978): 341-54.
- Swindoll, C. R. *A Man of Grace and Grit, Paul*. TX: The W Publishing Group, 2002.
- _____. *A Man of Integrity and Forgiveness, Joseph*. TX: Word Publishing, 1998.
- _____. *A Man of Passion & Destiny, David*. TX: Word Publishing, 1997.

_____. *A Man of Selfless Dedication, Moses*. TX: Word Publishing, 1999.

Westermann, C. *Genesis 37-50 Commentary*.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2.

Wilson, L. *Joseph Wise and Otherwise*. Bletchley: Paternoster, 2004.

Young, E. B. *The Creative Leader*. TN: Broadman & Homan, 2006.

로마서 1:3-4의 기독교론 이해: 로마서 주제들의 연결성을 따른 접근

(The Christology of Romans 1:3-4: An Approach according to the Thematic Links in the Epistle)

최영현

Alphacrucis College 교수

- 1 들어가는 말
- 2 로마서 1:3, 4을 거론하는 사도 바울의 ‘근본’ 의도
- 3 “육신으로는”(롬 1:3)이라는 어구 사용의 의도(I):
- 4 “육신으로는”이라는 어구 사용(롬 1:3)의 의도(II):
- 5 “육신으로는”과 “성결의 영으로는”의 대조적 어구들(롬 1:3, 4)의 사용의 의도(I)
- 6 “육신으로는”과 “성결의 영으로는”의 대조적 어구들(롬 1:3, 4)의 사용의 의도(II)
- 7 “육신으로는”과 “성결의 영으로는”의 대조적 어구들(롬 1:3, 4)의 사용의 의도(III)
- 8 나가는 말

초록(Abstract)

본고는 롬 1:3, 4의 기독교론이 예수님의 존재의 두 단계, 곧 그분의 비하와 승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본고는 거룩의 영을 성령으로 보는 견해나, 예수님이 부활로 인하여 이제 신자에게 생명을 부여하실 수 있는 상태 곧 성령과 교호적으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적시한다. 로마서의 문맥에서, 육은 연약성, 죄성, 언약 (특히 시내산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부여 받은 특별한 조건들을 의미하며, 영은 하나님적인 특성이나 면모를 가리킨다. 본고는 1:3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 함은 긍정적으로는, 유대인에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긍지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서 왔음)를 심어주고 이방인에게는 유대인을 존중할 것을 권면하는 (그러나 유대인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는 처지에서 ‘육적’인 것을 이방인에게 강요해서는 안됨을 권면하는), 사도의 목회적 전도적 취지에서 나온 말로 이해한다. 한편, 사도가 영에 ‘거룩’을 붙여 ‘거룩의 영’이라고 한 것은 육의 특성이 아니라 오직 이 영적 측면을 따라 인간이 거룩과 영광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하기 위한 의도적 어구다. 도덕적 율법과 할례, 안식일, 음식법을 부여 받은 유대인이나 그렇지 않은 이방인이나 막론하고 육이 아니라 영을 따라야 언약과 죄를 이기고 거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께 있는 여러 육적인 면모들 중에 하나 곧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취하고, 많은 영적 측면들 중에서 ‘죽음에서의 부활’을 취함으로써, 사도는 예수님의 경우처럼 육적인 것에 의해서 아니라 영적인 것을 따름으로 사람의 칭의, 거룩, 부활, 영광에 이르게 됨을 가르친다. 이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로마교회에도 율법 준수를 구원 조건으로 내세우는 유대주의자들의 훼방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16:17, 18). 더불어, (에베소도 고린도 아님) 바로 ‘로마’가 당시 이방세계의 ‘수도’였다. 이방인의 서울이 복음화되는 것은 이제 전 이방세계가 복음화된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 점에서 오직 ‘로마’가 유대인 구원을 생각해보는 지정학적 장소가 된다. 이방 복음화가 종료되면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9-11장). 사도의 이 관심사는 초두의 1:3, 4의 기독교론과 연결되어 있다. 말씀을 전수해 온, 그러나,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한 이 혈통적 유대인들 (예수님도 유대인 출신!)은 실패했으나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이들도 결국 ‘육’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을 따라” 구원,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을 사도는 강조한다. 롬 1:3, 4의 기독교론은 결국, 이후로 자세히 말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서론으로 주어진 것이다.

주제어(Keywords)

로마서 1:3-4, 기독교론, 사도 바울, “육신으로는,” “거룩의 영으로는”

1 들어가는 말

로마서 1:3-4의 기독교론은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다윗 왕의 라인에서 출생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제시한다. 그런데 이 기독교론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육신으로는”(κατὰ σάρκα)과 “성결(거룩)의 영으로는”(κατὰ πνεῦμα ἁγιωσύνης)이란 수식어들이 붙어 있다.¹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8 처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μνημόνευε Ἰησοῦν Χριστὸν ἐγγεγεμένον ἐκ νεκρῶν, ἐκ σπέρματος Δαυὶδ, κατὰ τὸ εὐαγγέλιόν μου.)라고 간단히 복음을 소개하면 되었을 것을² 왜 로마서에는 이 수식어들을 붙인 것일까? 로마서 1:3, 4의 헬라어 본문과 필자의 한글 사역(私譯)은 다음과 같다.

περὶ τοῦ υἱοῦ αὐτοῦ, τοῦ γενομένου ἐκ σπέρματος Δαυὶδ κατὰ σάρκα, τοῦ ὀρισθέντος υἱοῦ θεοῦ ἐν δυνάμει κατὰ πνεῦμα ἁγιωσύνης ἐξ ἀναστάσεως νεκρ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그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나,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중에서의 부활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많은 학자들은 로마서 1:3-4를 두 단계(two stages)로 나누어서 본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살펴보기로 하겠지만, 이 주장을 하는 머레이(John Murray)의 언급을 예로 들어 말하자면, 로마서 1:3의 “육신으로는”은 다윗의 씨로서 존재하게 된 국면을 가리킨다. 로마서 1:4의 “성결의 영으로는”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과 교호(交互)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존재 국면,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생명의 부활로 이끄실 수 있는 그분의 존재 국면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머레이에게 있어 “성결의 영”은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한 측면인 예수의 영도 제3위이신 성령도 아니고, 부활로 영광스런 생명과 능력의 지위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존재 국면인 것이다.

Just as “according to the flesh” in verse 3 defines the phase which came to be through being born of the seed of David, so “according to the Spirit of holiness” characterizes the phase which came to be through the resurrection...By his resurrection and ascension the Son of God incarnate entered upon a new phase of sovereignty and was endowed with new pose correspondent with and unto the exercise of the mediatorial lordship which he executes as head over all things to his body, the church...The only conclusion is that Christ is now by reason of the resurrection so endowed with and in control of the Holy Spirit that, without any confusion of the distinct persons, Christ is identified with the Spirit and is called

¹ κατὰ는 영어로는 according to(...을 따라서) 혹은 concerning(...에 관해)로 번역된다. 여기서 한글성경에 ‘성결의 영’으로 번역된 문구는 히브리어 신약을 보면 ‘루아흐 학케두쉬’(רוח הקדוש)라고 되어 있다. 반면 제3위이신 ‘성령’은 ‘루아흐 학코데쉬’(רוח הקודש)라고 번역되었다. *Hebrew-English New Testament* (Cambridge: The Society for Distributing the Holy Scriptures to the Jews, year not known).

² 이탤릭체는 필자의 강조이다.

“the Lord of the Spirit” (2 Cor. 3:18)...Thus, when we come back to the expression “according to the Spirit of holiness”, our inference is that it refers to that stage of pneumatic endowment upon which Jesus entered through his resurrection...The relative weakness of his pre-resurrection state, reflected on in verse 3, is contrasted with the triumphant power exhibited in his post-resurrection lordship.³

머레이의 해석과 관련하여 필자는 로마서 1:3-4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으로부터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두 단계로 보는 것이 적어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연약한 육신으로 오신 것은 죄와 연약에 싸여 있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심이라는 사상이 로마서에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로마서 5:6 과 5:8 이 이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12-21 에서 전개되는 사상 곧 육신을 가진 존재로 피조된 아담과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호 비교하는 내용에서도 로마서 1:3 과의 연관성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로마서 6:3-11, 즉 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함께 살리라)는 내용도 로마서 1:3 과 연관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머레이의 해석의 문제점은 우리가 로마서의 전체 내용 중에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성령을 부여하실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사상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위의 머레이 자신의 인용에도 보이듯이 고린도후서에 나타나는 사상이다. 필자는 로마서 1:4 의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의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서 8:1-17 의 내용이라고 본다. 그리고 필자의 판단에 의하면 이 로마서 8 장의 본문은 성령으로써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분(아버지)이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면 우리도 그 성령의 역사로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이지,⁴ 예수님이 부활로 이제는 성령을 부여하실 수 있는 상태로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필자는 로마서 1:3-4 를 가지고 이상의 언급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두 단계로 나누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특히 3 절이 예수님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신 점과 우리의 연약성을 서로 관련시키고는 있다고 보지만, 4 절에 대한 머레이의 해석은 로마서의 차후 내용과 연결성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다. 머레이가 말한 ‘예수

³ John Murray, *The Epistle to the Romans*, NICNT, vol. 1 and vol. 2 (Grand Rapids: Eerdmans, 1968), 11. Nygren의 다음 언급과 비교하라. “As man, sharing our common humanity (κατὰ σάρκα), He is descended from David—in harmony with the Old Testament promise which calls the Messiah the son of David. But Christ does not only to our common humanity. Through Him God has permitted something utterly new to enter our world... God designated Him “Son of God in power.” That was certified to Him by His resurrection. To be sure, from the beginning He was Son of God, but in weakness and lowliness. The divine glory, which formerly was hidden, was manifest after the resurrection. From that hour He is the Son of God in a new sense: He is the Son of God “in power,” Son of God in glory and fullness of power.” Anders Nygren, *Commentary on Romans*, trans. Carl C. Rasmussen (London: SCM, 1952 [1944 in Swedish]), 47-8.

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사역의 관계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로마서 8:11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이 절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적용으로 부여된 성령에 의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스도의 승귀 상태'를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필자는 로마서에 그런 사상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예를 들어, 로마서 8:34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서신서의 전체 내용이 이런 해석과 크게 조화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머레이와 비슷하지만 좀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 중에 라이트(N. T. Wright)가 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졌으며, 최근에 로마서 주석을 쓴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시킨 것은 바로 부활이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런데 그는 머레이와는 달리 "성결의 영"을 제 3 위이신 성령으로 본다. 그는 "바울은 이 정형어구를 통해서 나중에 묘사할 내용들, 즉 하나님께서 육신을 따른 옛 인류를 메시아 안에서 구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롬 8:4) 새로운 인류를 메시아 안에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토대를 한층 더 탄탄하게 구축해 놓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육신으로는'이라는 구절이 뜻하는 바는 이 땅에 속한 아담의 후손(인류)이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 안에서 그 아담의 후손을 위해서 행한 장소라는 것이다. 따라서 로마서 1:3 절은 로마서의 앞부분에 놓은 고립된 진술이 아니라, 이후의 내용과 연계된 계획적인 진술로, 이미 로마서 5:12-21 과 6-8 장의 모든 요소들을 미리 내다보고 있고, 로마서 1:3-4 절은 9:5 의 이중기독교론과 연결되며 9-11 장의 주장의 토대를 놓는다고 그는 말했다.

성령은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했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에게 일어난 부활 사건은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되찾을 보편적 부활을 현재로 미리 가져온 사건이었는데 그러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올 시대'의 시작이자 맛보기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⁵ 라이트의 말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도 머레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육신적 탄생을 한 단계로 보고, 죽음과 부활을 또 거기에 이어지는 한 단계로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 두 사람 사이에 해석의 차이성이 있는 반면 로마서 1:3, 4 절을 이어지는 '두 단계'로 보는 것은 같다는 말이다.

필자는 라이트가 로마서 1:3-4 를 로마서의 뒤의 내용과 관련시켜 언급한 것(특히 4 절을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의 성령의 사역과 관련시켜 본 점)은 머레이보다 훨씬 정확한 언급이라 생각한다.⁶ 그러나 필자는 라이트와는 달리 '성결의 영'을 성령으로 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필자는 그의 1:3,4 을(결국은 탄생-죽음 부활을 이어서 볼 수 있게 되지만) 이어진 두 단계를

⁵ 톰 라이트, *로마서*, 장용량, 최현만 역 (서울: 에클레시아북스, 2014), 41-6; et passim, *The New Interpreter's Bible Commentaries: Romans* (Nashville, Tennessee: Abingdon, 2002).

⁶ 로마서의 주제들이 어느 한 부분에서 제시된 다음에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의 다른 부분들과 긴밀히 연결되었다고 본다. 문학적 주제들은 신학 사상을 반영하고 있고 이것들은 어느 한 곳에 고립되어 있지 않고 유기적으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필자는 보는 것이다. 이런 전체 속에서 앞으로의 논의도 진행될 것이다.

의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언급했다고 보지 않는다.⁷ 이 두 가지 점 외에 로마서 1:3, 4 절에 대한 기본 해석⁸은 라이트에 동의하는데, 다만 그의 해석에 더 보탬 사항들이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필자는 사도가 로마서 1:3, 4의 내용을 진술한 것은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일단은 복음이 이미 약속된 것, 즉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 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실 예수님에 대한 것임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이 기본적인 사항 외에 필자는 이러한 진술이 다른 목적들을 위해서 또한 기록되었다고 본다. 필자는 바울께서 예수의 ‘육신’을 거론한 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것을 기술함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육신의 힘(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한 동시에 그 육신 안에서 아담적 인류의 죄와 연약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거론한 것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필자는 사도가 이 구절을 통해 특히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구원의 뿌리가 유대인(혈통적으로 다윗을 언급)에게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내용이라고 본다.

둘째로, 사도가 이어서 ‘부활’을 거론한 것은 ‘예수께서 영을 따라 사신 삶들 중 가장 대표적인 하나’를 취한 것이며, 그분의 부활은 예수께서 영으로 사셨듯이 신자들이 영을 따르면 거듭남, 거룩케 됨, 부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뒤의 자세한 진술을 미리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필자는 로마서 1:4는 성령에 의한 예수의 부활이 성령 받은 신자의 부활의 서곡이 됨을 시사하는 내용을 예시하기는 하지만, 예수께서 승귀되어 성령과 교호적으로 칭해질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여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물론 필자는 이러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술은 로마교회의 상황 즉; 첫째, 그 종교적 배경에 있어 근본적 차이를 지닌 유대인-이방인 간의 갈등; 둘째, 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시각과 관련된 유대주의자들의 이단적 교리; 셋째, 사도 바울의 로마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통해서 바라보는 유대인 구원에 대한 시각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그리고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면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 독특한 시간적-공간적 위치에 서 있었고,⁹ 또한 로마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 복음과 관련해서 여러 정황들과 이슈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자들은 사도가 단지 하나의 조직신학을 위해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즉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염두에 두면서, 복음과 관련하여 로마 교회에 생긴 이슈들 때문에 이 편지를

⁷ 물론 로마서 1:3, 4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부활의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그 시간 순서를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서 아담적 인류의 죄 문제가 처리되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과 신자들도 성령의 역사로 부활에 이르게 되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었고 또 앞으로(종말에) 그 부활은 실현될 것이다. 필자는 톰 라이트가 로마서 1:3, 4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이다.

⁹ 로마라는 도시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 이방 복음화의 원리적·대표적 완성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띤다.

쓴 것이라 주장한다. 필자도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는 복음과 관련하여 로마교회에 대해 목회적, 전도적, 교육적으로 할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것이라고 보는데, 특히 로마서 1:3,4 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도가 로마교회의 이슈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독교론을 조제한(invent) 것이라는 견해를 전적으로 반대한다. 사도가 초대교회의 단순한 형태의 신앙고백을 확장해서 아전인수격으로 사용했다거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독교론을 만들었다는 생각, 즉 ‘정황중심신학’(a context-oriented theology)을 필자는 단호히 거절한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복음은 어떤 상황 속에 종속되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본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일차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교회의 상황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사실 사도는 로마서의 서두부터 이러한 로마 교회의 문제들(로마서가 진전되면서 자세히 기술됨)을 다루기 위해 다른 편지들에서 하듯이 기독교론(롬 1:3, 4)을 가져오는데 이 기독교론의 표현들(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은 이러한 문제들과 깊이 관련되었다고 필자는 본다. 필자는 이러한 점들에 유의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본 소고를 진행하려고 한다.

로마서 1:3, 4 을 거론하는 사도 바울의 근본 의도(제 2 장), 로마서 1:3 의 “육신으로는”을 사용하는 바울의 의도: 유대인 신자들 (혹은 불신 유대인들)을 향한 그의 의도(제 3 장), 로마서 1:3 의 “육신으로는”을 사용하는 바울의 의도: 이방 신자들을 향한 그의 의도(제 4 장), 로마서 1:3-4 의 “육신으로는”과 “성결의 영으로는”을 사용하는 바울의 의도: 유대인 신자들을 향한 그의 의도(제 5 장), 로마서 1:3-4 의 “육신으로는”과 “성결의 영으로는”을 사용하는 바울의 의도: 이방인 신자들을 향한 그의 의도(제 6 장), 로마서 1:3-4 의 “육신으로는”과 “성결의 영으로는”을 사용하는 바울의 의도: 이방인들의 구원 수가 찬 다음 유대인들의 복음화와 관련한 그의 의도(제 7 장) 등이다.

사도의 의도들을 추리하는 이 작업은 로마서의 주제들과 그것들의 연결성을 면밀히 살피면서 진행될 것이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주제들은 로마교회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고, 사도는 보통 그의 서신에서 특정 교회의 맞닥뜨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독교론을 사용하는데, 로마서의 주제들이 서두의 기독교론이 로마서 1:3-4 에 담겨 있다고 필자는 보기 때문이다.

2 로마서 1:3, 4 을 거론하는 사도 바울의 ‘근본’ 의도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이 구약에 예언된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린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등식으로 사도는 복음을 진술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씨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영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분은(대속적) 죽음을 겪으시나 썩음을 당할 분이 아니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실 분이시다. 이 내용은 구약의 여기저기에서 예언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맨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도의 진술의 핵심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약속된 것)의 시행에 대한 진술이라는 것이다. 즉, 우리는 로마 교회의 정황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인류의 보편적 정황(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속에 있음)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의 계획(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구원, 복음으로 율법을 이룸 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의 어떤 정황을 의식하며 편지를 썼다는 것을 의식하며 로마서를 읽어야 할 것이다. 사도는 각 교회의 어떤 구체적 정황 속에서 나타난 문제들 때문에 편지를 썼기 때문이다. 로마교회에도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간의 갈등이라는 정황과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사도는 비록 다른 목적들도 있었지만, 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편지를 쓴 것이 틀림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도가 ‘에큐메니칼 복음’을 발명했다고 단언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달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은 ‘복음’ 안에서 해소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이라는 상황에 포커스를 둔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그 갈등 해소를 위해 복음이란 것을 고안했으며 복음을 믿는 것은 ‘구원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톰 라이트의 로마서를 읽어보라!).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민족주의적 표지들, 곧 음식규례, 안식일, 할례 등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가족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도록 사도가 에큐메니칼 목적으로 복음이란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로마서(그리고 갈라디아서)에는 없는 내용이다. 현금의 새관점 학파에 속한 자들의 거짓 가르침이요 다른 복음인 것이다(갈 1:6-10). 복음이 에큐메니칼을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에큐메니칼 때문에 사도가 복음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믿어 구원에 이르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한 공동체에 편입되는 가입조항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정황신학은 자유주의자들의 단골 메뉴인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을 이해할 때도 이들은 성경의 근본 취지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역사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을 전개한다. 역사적 상황에 따라 텍스트를 재구성하기 때문에 흥미롭게

보이기도 하고 더욱 그럴 듯해 보이기도 하나 실상은 텍스트의 기본 메시지를 본말전도(本末顛倒) 시키거나 아주 비성경적으로 왜곡시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3, 4 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기본 사상은 바로 인류의 죄 문제 곧 죄성 있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이룰 수 없어 죽음에 종 노릇 하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새 언약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실 분) 메시야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내용에 다름 아니다.

3 “육신으로는”(롬 1:3)이라는 어구 사용의 의도(I): 불신 유대인들을 전도하려는 의도¹⁰ 및 유대인 신자들을 격려하려는 의도

이러한 기본 사상의 토대 위에서 필자는 먼저 로마서 1:3 을 살펴보려고 한다. 로마서 1:3 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씨로 오셨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 앞에 “육신으로는”이 붙어있다. 바울은 어떤 의도에서 이 어구를 언급한 것일까?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로마지역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불신(不信)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또한 로마의 교회들(가정 교회)은 교회들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다. 서신서 여기저기서 죄론을 말할 때(롬 3:9), 구원론을 말할 때 사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언급한다(롬 3:29). 로마서 9-11 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언급할 때도 사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언급한다. 또한 사도는 로마서 16 장의 인사(문안)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한다.

그런데 로마서의 내용을 통해 더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방인들에 비해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거의가 복음에 대해 여전히 완강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쓰는 시점에서 지나온 선교 여정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선교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그리스 북부)까지 지난 10년 동안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였고(롬 15:19) 이방인 선교사로 자기자신을 소개하는 그는(롬 11:13; 15:16, 18) 사실 그 동안 많은 이방인 회심자들을 목도한 반면 동족인 유대인 회심자들은 미미한 숫자임을 확인하고 있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회심자들에 있어 숫자가 적었을 뿐 아니라, 심한 적대감을 가지고 열성을 다해 사도의 복음 전파를 훼방해 오고 있었다. 이런 형편은 아직 사도 자신이 선교를 위해 그 땅을 밟아보기 전이었지만, 로마에서도 볼 수 있는 형편이었다.

¹⁰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 유대인들은 포기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바울이 먼저 복음 곧 ‘그 아들’에 대한 내용을 말함에 있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분”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로 나셨고” (ἐκ σπέρματος Δαυὶδ κατὰ σάρκα)를 말하는 것은 벌써 자기와 로마의 불신 유대인들과의 사이를 어떻게든 좁혀 그들을 전도하려는 의도로 나온 말로 이해할 수 있다. 그냥 ‘다윗의 씨로 나셨고’¹¹ 라고 해도 될 것을 굳이 “육신으로는”이라는 말을 가미하여 복음이 유대인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강조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 접촉점으로 복음 전도의 기회를 삼으려는 것이다. 로마서 1:2, 3 의 ‘선지자들’과 ‘다윗’은 다름 아닌, 바로 유대인들의 혈통적 ‘조상들’이 아닌가(롬 9:5)?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서 나신 것이 아닌가(롬 9:5, καὶ ἐξ ὧν ὁ Χριστὸς τὸ κατὰ σάρκα)?

우리는 “육신으로는”이라는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유대인들과 복음의 접촉점을 마련하고, 유대인들을 전도하려는 취지를 읽을 수 있다. 물론 이 편지의 직접적 수신자는 불신 유대인들은 아니었을 것은 당연하다. 이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울은 간접적으로라도 들으라는 듯이, 이 구절 “육신으로는”을 사용함으로 불신 유대인들의 귀를 쫓긋 세우게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불신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듯하다.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는 선지자들의 후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윗의 후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들이 우리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 우리 조상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세요!” 선교적 시각 속에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게 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바울(참고, 롬 11:24 하, πόσω μᾶλλον οὗτοι οἱ κατὰ φύσιν ἐνκεντρισθήσονται τῇ ἰδίᾳ ἐλαίᾳ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이 그 편지 초입에 이런 구절을 사용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물론 이 구절은 직접적으로는 이미 예수를 믿은 유대인 신자들을 격려하는 역할도 한다. 비록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부딪칠 돌에 부딪쳤지만(롬 9:32)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곧 언약을 맺으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인들을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11:1,2 상)” (Λέγω οὖν, μὴ ἀπόσωτο ὁ θεὸς τὸν λαὸν αὐτοῦ; μὴ γένοιτο· καὶ γὰρ ἐγὼ Ἰσραηλίτης εἰμί, ἐκ σπέρματος Ἀβραάμ, φυλῆς Βενιαμίν. οὐκ ἀπόσωτο ὁ θεὸς τὸν λαὸν αὐτοῦ ὃν προέγνω).

¹¹ 메시아가 다윗의 씨로 오실 것에 대해서는 삼하 7:14-17; 23:1-7; 시 18:50; 89:35-37, 49; 132:11, 17; 사 11; 렘 23:5-6; 겔 34:23-31 등을 보라.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유대적 혈통에 긍지를 느꼈음에 틀림없다. 정승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따라서 1장 3절을 로마교회의 유대 크리스천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언급된 구절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 구에라 (A. J. Guerra)는 1장 3절의 ‘의도된 독자’ (intended reader)는 유대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 구절의 내용은 바울의 유대적 변증적 전승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구절은 유대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민족적 자의식을 자극하는 구절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따라서 유대 크리스천들의 입장은 이러한 유대적 메시아 사상으로부터 고무될 수 있었다. 예수를 다윗에게 약속된 계약의 성취자와 동일시하려는 바울의 언술은 로마서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롬 4:1; 9:3; 11:14).¹²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바울은 “육신으로는”이라는 어구를 통해 목회적 시각 속에서는 유대인 신자들을 격려하며, 또 전도적 시각 속에서는 이 편지를 직접 읽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구원 받을 불신 유대인들에게 접촉점을 마련해서 복음을 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곧 로마교회의 유대인 신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에 격려를 받는다면 그들이 나가서 아직 믿지 않는 동족들에게 전도할 때 이런 접촉점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4 “육신으로는”이라는 어구 사용(롬 1:3)의 의도(II): 이방 신자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존중케 하려는 바울의 목회적 의도

동시에 이 어구는 이방 신자들에게는 복음이 유대인들을 통해 담지 되고 전수되어 왔음을 일러주어 유대인들을 깔보지 않도록, 그들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신세지고 있음을 알게 하여 기고만장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로마서에 명시적으로 나타난다(롬 11:18,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μή κατακαυχῶ τῶν κλάδων· εἰ δὲ κατακαυχᾶσαι οὐ σὺ τὴν ῥίζαν βαστάζεις ἀλλὰ ἡ ῥίζα σέ”). 물론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왔다고 해서 유대인들 모두가 구원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 전수를 위해 쓰임 받은 사람들이었기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 것이다(롬 3:1,2 에 “그런즉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¹³

¹² 정승우, “로마서 1장 3절에 나타난 유대적 예수상과 바울의 목회전략,” *로마서의 예수와 바울: 로마서: 사회학적 해석* (서울: 이레서원, 2008), 92f.

¹³ 참조, 이사야 2:3(칠십인역) γὰρ Σιων ἐξελεύσεται νόμος καὶ λόγος κυρίου ἐξ Ἱερουσαλήμ.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 중 하나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별로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에 대해 긍지를 느끼고 음식을 가려먹으며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이방 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롬 2:11, 12)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¹⁴ 이방인들은 혈통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었어도, 유대인들처럼 율법과 여러 규례들이 없었어도,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율법 운운하는 것을 보면 같잖은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할례와 날들과 음식들에 관한 법들을 고수하면서 경직된 태도를 보일 때 그들을 달갑잖아 했을 것이 자명하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돼지고기 삼겹살도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이 쉬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돼지고기를 먹는 이방인 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못 먹는 유대인 신자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겼을 것이다(롬 14:10, 13). (물론 또 유대인 신자들 중에 예전에는 못 먹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먹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참고, 롬 15:1]).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면서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음식 때문에 근심하게 되었을 것이다(롬 14:15).

이런 상황은 사실 로마에서만 일어난 문제는 아니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지중해 전역에 퍼져 있었고 그들이 있는 곳은 어디서나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다. 다만 로마는 좀더 이런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Suetonius)의 AD 120 년경의 기록을 따라 생각해 보면 이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그의 재위 시절(AD 49 년으로 추정)에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렸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트로스?)의 선동으로 지속적인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이는 크리스트로스(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크리스트로스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 유대인들 사이에 끊임없는 소란이 발생했음을 시사한다.¹⁵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추방되었고 그들은 이탈리아를 떠나 바로 옆 나라인 그리스의 고린도로 왔고 거기서 복음 사역 및 텐트 짓는 일을 하던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다(행 18:2). 유대인들이 전부 추방된 상태에서 당연히 로마의 교회들은

¹⁴ ποτὲ ὑμεῖς τὰ ἔθνη ἐν σαρκί, οἱ λεγόμενοι ἀκροβυστία ὑπὸ τῆς λεγομένης περιτομῆς ἐν σαρκὶ χειροποιήτου, ὅτι ἦτε τῷ καιρῷ ἐκείνῳ χωρὶς Χριστοῦ, ἀπηλλοτριωμένοι τῆς πολιτείας τοῦ Ἰσραὴλ καὶ ξένοι τῶν διαθηκῶν τῆς ἐπαγγελίας, ἐλπίδα μὴ ἔχοντες καὶ ἄθεοι ἐν τῷ κόσμῳ.

¹⁵ 정승우, “로마의 크리스천 공동체의 기원과 형성,” 21, 각주 9.

이방인들로 구성되었을 것이고 그들만 있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나, AD 54 년, 클리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난 다음 다시 로마로 돌아온 유대인 신자들로 인해 로마교회는 다시 도덕적 율법들과 할례와 음식과 안식일을 존중하는 유대인 신자들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나타났을 것이다. 물론 양쪽 모두 한 주님을 믿는 형제들이었으므로 그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나, 이 문제는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유입됨으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교회에서의 리더쉽도 문제가 되었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로마교회의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에 대해 갈등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구원은 율법과 할례와 음식법과 안식일을 지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한 것이므로 그것들을 지키라고는 하지 않으나 유대인들(특히 어떤 날을 중히 여기거나, 음식을 가려먹는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 행동을 조심하라고 말한다. 바울은 예수님조차 할례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할례를 받으셨다는 예를 들어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인들 앞에서 조심하라고 한다(롬 15:8).

특기할 사항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과 그 정신에서 일치한다는 것이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행 15:5). 여기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유대인들)에게와 같이 그들(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라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어찌하여...우리 조 (옛날 유대인들)과 우리(베드로와 동시대 유대인들)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율법, 할례 등)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고 하였다(행 15:8-10). 사도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고 하였다(행 15:19-21). 즉,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이방인들이(혹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예루살렘 회의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이 회의는 유대인들을 존중하여 이방인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 행동을 유대인들 앞에서 조심하게 한 것이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존중해야 하는 것은 이 육신적 유대인들을 통해 복음의 약속이 왔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한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바였다. 열방(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에 이를 것인데 이는 토라가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ὅτι ἔσται ἐν ταῖς ἐσχάταις ἡμέραις ἐμφανὲς τὸ ὄρος κυρίου καὶ ὁ οἶκος τοῦ θεοῦ ἐπ’ ἄκρων τῶν ὀρέων καὶ ὑψωθήσεται ὑπὲρ ἅπαντα τὰ ἔθνη καὶ πορεύσονται ἔθνη πολλὰ καὶ ἐροῦσιν δεῦτε καὶ ἀναβῶμεν εἰς τὸ ὄρος κυρίου καὶ εἰς τὸν οἶκον τοῦ θεοῦ Ἰακωβ καὶ ἀναγγελεῖ ἡμῖν τὴν ὁδὸν αὐτοῦ καὶ πορευσόμεθα ἐν αὐτῇ ἐκ γὰρ Σιων ἐξελεύσεται νόμος καὶ λόγος κυρίου ἐξ Ἱερουσαλὴμ. (사 2:2, 3. 칠십인역)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요 4:22)라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또한 확인된다. 유대인이신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당신을 포함시켜 ‘우리’라고 하신다(ὁμοῖς προσκυνεῖτε ὃ οὐκ οἶδατε, ἡμεῖς προσκυνοῦμεν ὃ οἶδαμεν, ὅτι ἡ σωτηρία ἐκ τῶν Ἰουδαίων ἐστίν).

다음과 같은 슈라이너의 주장은 옳다:

...로마서 자체는 바울이 자신의 뿌리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메시아는 유대인에게서 나셨으며 (롬 9:5), 복음은 먼저 유대인을 위한 것이며 (1:16, 2:9-10), 유대 민족에게 한 약속들이 성취될 것 (9-11 장)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감람나무의 유대적 뿌리를 기억해야만 한다*(11:15-18). 가장 중요한 것은 15 장 12 절에서 예수가 다윗 계열 출신임을 암시한다는 것이다 [‘이새의 뿌리’].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다윗의 아들 됨이 바울에게 사소하거나 난처하다는 어떤 생각도 우리는 거부해야 한다. 예수의 다윗 기원을 강조함으로써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팔레스타인 교회와 연속성을 지니며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빛을 지고 있음을 이방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음을 보여 준다*(참조. 15:27).¹⁶ (*이텔릭체*는 필자의 강조임)

정승우도 위와 비슷하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편 로마서 1 장 3 절은 유대 크리스천들의 지위를 고무하기 위해서만 고려된 단락으로만 이해될 수 없다. 바울의 수사학적 전략을 고려해 볼 때, *1 장 3 절은 유대 크리스천들을 경멸하던 이방 크리스천들에 대한 경고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1 장 3 절, 9 장 5 절, 15 장 12 절과 같은 예수의 유대성(Jewishness of Jesus)을 강조하는 구절들은 로마교회 내부에서 *반유대주의를 견지하고 있는 이방 크리스천들을 상정하지 않고는 이해되기 힘든 구절이다*... 이러한 점에서 바울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언급한 것은 일정 정도 사회/정치적 함의와 기능을 지닌다*. 즉 *예수를 경멸 받는 유대인과 같은 종족으로 묘사하는 바울의 의도에는 반유대주의적 분위기에 처해 있던 로마교회의 정황을 환기시키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¹⁷ (*이텔릭체*는 필자의 강조임)

우리는 로마교회의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을 어느 정도 무시한 것은 예측할 수 있고 교회 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들이 정승우가 말하는 것처럼 반유대주의를 ‘견지’하였을까, 바울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언급한 것’조차 유대인들이 경멸 받는 족속이기에 일부러 차용한 표현이었을까 하는 데에는 동의하기는 힘들다. 같은 주님을 믿고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 정도로 급진적으로 서로를 경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대신 유대인 신자들 혹은 신자라는 명목을 내세워 로마 교회에

¹⁶ 토마스 슈라이너, *BECNT: 로마서*, 배용덕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Thomas R. Schreiner, *BECNT: Roman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1998).

¹⁷ 정승우, “로마서 1장 3절에 나타난 유대적 예수상과 바울의 목회전략,” 93-5.

침투한 유대교인들이¹⁸ 있었다면 얘기는 다르다. 이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로마교회에 있었음은 로마서 16:17-18 이 증명한다.¹⁹ 그러나 정승우는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하기로 한다.

5 “육신으로는”과 “성결의 영으로는”의 대조적 어구들(롬 1:3, 4)의 사용의 의도(I): 유대인이 육신(혹은 율법)을 따름이 아니라 영을 따름으로 죄에서의 해방과 거룩과 부활과 영광에 이름을 가르쳐 주려는 의도

이제는 로마서 1:3 뿐만 아니라 4 절까지를 함께 취급해 보자. 우리가 로마서 1:3, 4 를 딤후 2:8 과 가능한 한 가깝게 할 의도로 로마서 1:3, 4 에 있는 “육신으로는”과 “성결의 영으로는”을 생략하면 다음 도표와 같이 아주 비슷한 형태가 된다.

롬 1:3, 4	딤후 2:8
περὶ τοῦ υἱοῦ αὐτοῦ, τοῦ γενομένου ἐκ σπέρματος Δαβὶδ, τοῦ ὀρισθέντος υἱοῦ θεοῦ ἐν δυνάμει ἐξ ἀναστάσεως νεκρ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Ἰησοῦν Χριστὸν ἐγγεγεμμένον ἐκ νεκρῶν, ἐκ σπέρματος Δαβὶδ,

물론 이 두 구절은 똑같이, 누가 보아도 예수님의 일생을 그 순서와 과정에 따라 묘사하였으되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곧,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둘째로 그분의 죽음에서의 부활이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이 두 단계의 내용들 곧 탄생 및 죽음과 부활은 모두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들 곧 약속되었던 것들이다. 대표적인 구절들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탄생은 에스겔 34:23, 24, 죽음은 이사야 53:4-12, 부활은 시편 16:10, 11 이 그것들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약속된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말한다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며(“for that which is conceived in her is from the Holy Spirit” 마 1:20. *English Standard Version*. τὸ γὰρ ἐν αὐτῇ γεννηθὲν ἐκ πνεύματός ἐστιν ἁγίου·), 말씀(곧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다(Καὶ ὁ λόγος σὰρξ ἐγένετο 요 1:14). 그러나 로마서의 문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분의 신적 기원과 연결시키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특별히 “육신으로는”을 그분의 ‘탄생’과

¹⁸ 우리는 신자라는 명목으로 교회에 침투한 유대교인들은 갈라디아에도 있었음을 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들을 ‘거짓 형제들’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곧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자들이었다(롬 2:4. 참조, 롬 1:7; 4:17; 5:12; 6:12-13). 이들은 자기들의 유대교적 배경 때문에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갈등을 느끼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는 또 다른 류로써, 반복음적-반이방적 무리들이었다.

¹⁹ 롬 16:17-18이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 내의 바울의 대적자들을 가리킨다는 암시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오성중, “로마서 5-6장의 해석 문제(롬 5-6장),” *로마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목회와신학 편집부 편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4), 71f를 참조하라.

연결시키고, “성결의 영으로는”을 그분의 ‘부활’과 연결시킴으로 그분이 육신적으로 약하신 분이었지만 영적 측면에서는 능력으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신 분이심을 언급한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만큼 그분의 연약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은 없으며, 그분의 부활만큼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도 없다. 사도는 구약 예언이 예수님의 일생의 과정에서 성취된 두 가지 사실들, 곧 다윗의 씨로 오심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의 대표적인 이 두 단계의 사건들을 뽑아서(pick) “육신으로는”과 “성결의 영으로는”의 대조적인 두 측면과 연결시킴으로 이제는 그 일생의 시간적 두 국면의 대조가 아닌 다른 의미를 전달한다. 즉, ‘예수님은 옛 질서 속에서 육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나 이제 부활하심으로 성령과 동일시되는 지극히 승귀되신 영광과 능력의 주가 되심으로 새시대의 시작이 되셨다’는 두 국면의 대조를 이 구절들이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뒤이어 나타나는 로마서의 내용과 맞지 않고²⁰ 이 해석 자체가 문맥이 나타내는 것 이상의 것을 가미하고 있는 듯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은 육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육을 따라 사하지 않고 영을 따라 사셨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해석(의미)은 뒤이어 나오는 내용,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육으로, 율법으로, 할례로, 음식규정으로, 안식일 규례로 사는 것이 아니라(믿음으로 구원 받고) 영을 따라 삶으로 거룩과 부활과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로마서의 핵심과 너무나 극명한 논리적 연결을 보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의도를 보다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연약성의 예(illustration)를 위해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님의 ‘탄생’만을 배타적으로(exclusively) 고집하지는 않는 사실에서이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탄생’만큼이나 예수님의 육신적 연약성을 잘 보여주는 것은 그분의 ‘죽음’이다. 사도 바울은 또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심을 보여주기 위해 ‘부활사건 자체’만을 배타적으로 고집하지 않는다. 바울은 ‘부활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이후 계속 살아계심’도 그분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심을 보여주는 예로 삼는다. 로마서 1:3, 4 절 해석에 있어 다른 학자들이 잘 주목을 하지 않았으나 필자는 이 구절들의 해석을 돕는 구절로 고린도후서 13:3 하, 4 를 적극적으로 추천코자 한다.

ὁς εἰς ὑμᾶς οὐκ ἀσθενεῖ ἀλλὰ δυνατεῖ ἐν ὑμῖν, καὶ γὰρ ἐσταυρώθη ἐξ ἀσθενείας, ἀλλὰ ζῆ ἐκ δυνάμεως θεοῦ. καὶ γὰρ ἡμεῖς ἀσθενοῦμεν ἐν αὐτῷ, ἀλλὰ ζήσομεν σὺν αὐτῷ ἐκ δυνάμεως θεοῦ εἰς ὑμᾶς.

²⁰ 특히 로마서 5:12-21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암시적으로(implicitly) 아담의 옛 시대와는 대비되는 새시대의 시작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본문이 예수님의 부활에 의한 승귀상태가 곧 성령의 상태가 되었다는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는다. 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은 순종, 곧 의로운 행위(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음)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아 생명이 이르게 되었다(롬 5:18)고 이 본문은 말하며 이것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15절)고도 말할 뿐이다.

He [Christ] is not weak in dealing with you, but is powerful among you. For he was crucified in weakness, but lives by the power of God. For we also are weak in him, but in dealing with you we will live with him by the power of God. (*English Standard Version*)

개역개정: 그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우리말성경²¹: 여러분의 일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²²

고린도후서의 이 절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어떤 고린도교회 교인들을(5:12, 16) 향한 바울의 마지막 경고다. 이 절들에서 예수님이 ‘약하심 안에서 십자가에 못박히셨음’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사심(사심 동사, 현재, 직설법, 능동태)’이 대조된다. 로마서 1:3, 4 에서와는 달리, ‘탄생’이 아니라 이번에는 ‘죽으심’이 육체의 연약성을 나타내고,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일어난 부활 사건’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계속 사심’이 그분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고린도후서의 이 구절에 비추어 보건대 로마서 1:3, 4 의 탄생과 부활은 “육신으로는”과 “영으로는”이 없으면 예수님의 존재의 두 국면의 제시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어구들이 들어간 이상 그것과는 다른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님은 육으로는 약하셨으나(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사신다’; ‘우리도 육으로는 약하나(죽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산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간판들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자기(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업신여기던 자들에게 육적으로는 내걸만한 간판 없이 업신여김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으나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길을 따르는 자기 및 동역자들을 언급함으로 누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인지에 대해 정확한 잣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부활 이전의 예수님이 육을 의지하지 않고 영(곧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시고 생명을 행사하신 경우의 구절을 찾을 수는 없을까? 만약 찾을 수 있다면 ‘탄생-부활’이나 ‘죽음-부활’의 도식을 가지고 두 단계설을 말하거나 ‘부활로 예수님이 성령과 동일한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행사하시는 단계로 들어가셨다’는 주장이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렇게 두 단계로 예수님의 생애를 나누어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두 번째 단계 곧 부활에서는 첫 단계에 비해 지극히 높은 승귀의 상태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 에서 부활을 예수님의 영에 따른 삶에 대한 유일한(배타적) 단계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필자는 말하고 싶은 것이다. 필자의 말은 부활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영을 따라 사심으로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신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증명되신 많은 예들 중의 하나의

²¹ 우리말성경(두란노, 2005)의 고린도후서 번역은 김정훈 교수의 것이다. “여러분을 다루는 일에 대하여” 혹은 “여러분의 죄를 다루는 일에 대하여”라고 의역하면 사도 바울의 경고가 더 분명해진다.

²² *이탈릭체*는 필자의 강조이다.

대표적인 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활의 중요성과 부활로 일어난 새로운 질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이해 때문에 그런 것이다.²³

다음은 사도 바울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로마서 1:3, 4의 해석과 관련해서 충분히 음미해 볼 수 있는 구절이다.

Ἰησοῦν τὸν ἀπὸ Ναζαρέθ, ὡς ἔχρισεν αὐτὸν ὁ θεὸς πνεύματι ἁγίῳ καὶ δυνάμει, ὃς διήλθεν εὐεργετῶν καὶ ἰώμενος πάντας τοὺς καταδυναστευομένους ὑπὸ τοῦ διαβόλου, ὅτι ὁ θεὸς ἦν μετ' αὐτοῦ. [...] ὄν καὶ ἀνεῖλαν κρεμάσαντες ἐπὶ ξύλου. τοῦτον ὁ θεὸς ἤγειρεν [ἐν] τῇ τρίτῃ ἡμέρᾳ καὶ ἔδωκεν αὐτὸν ἐμφανῆ γενέσθαι,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행 10:38-40)

이 설교는 고넬료 등속(等屬)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이다. 사도행전 10:39 하-40 절에서는 로마서 1:4 과 고린도후서 13:4 상과 유사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내용이 보인다. 로마서 1:4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결의 영에 관한 것이고, 고린도후서 13:4 상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른 것이고, 이제 사도행전 10:39 하-40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모두 육의 약함으로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하나님, 하나님 능력, 영을 따라서는 살아나신 것이다. 그런데 사도행전 10:38의 내용은 예수님은 ‘부활 전에도’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으로 즉 육으로는 아무 간판도 내 걸 것이 없는 분이시나, 하나님이 성령(여기서는 분명히 3 위이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시매(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어떻게나 기름을 부으셨던지! ὡς ἔχρισεν) 예수님은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시며 두루 돌아다니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²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의 혈통적 족보’와 ‘능력 안에서의 부활-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심’을 대조하였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출신지’와 ‘공생애시의 선을 행하심과 축사-치유 사역’을 대조하고, 그 다음에는 ‘나무에 달려 살해되심’과 ‘하나님에 의한 부활’을 대조한다. 이로 보건대 꼭 부활만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케 하신 일은 아닌 것이다.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의 승귀하신 단계 곧 성령과 동일시된 단계를 묘사하기 위한 의도가 바울에게는 없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도리어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다윗의 후손)이지만, 나사렛 촌사람이지만, 나무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분은 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성령과 능력을 충만히 입으시고, 마귀를 밟으시고, 좋은 일을 행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²³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은 부활로 ‘만아들’이 되셨고, 미래 많은 아들들의 본보기가 되신 것이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작 로마서 8:29 한 절뿐이다.

²⁴ כִּי אֱלֹהִים הָיָה עִמּוֹ Hebrew-English New Testament (Cambridge: The Society for Distributing the Holy Scriptures to the Jews, year not known), 263.

받으시고(딤후 3:16),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은 영(더러움의 영이 아니라 거룩의 영)의 측면에서 예수님의 여러 모습들 중의 하나일 뿐인 것이다. 다만 부활이 자주 뽑히는 것은 이 ‘영’의 측면을 나타내는 보기들 중에 가장 뚜렷하고도 대표적인 보기이기 때문이다.

로마서로 돌아와 부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 곧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이 이 육체의 어떤 힘을 가지고 부활에 이르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가르쳐주려 한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육체의 힘을 의지하신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육체의 연약성을 이기셨다. 예수님이 그분의 전 생애에 있어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육체적 결단으로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신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은 당신이 육체에 거하는 분으로서 유혹에 노출되어 있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⁵ 만약 예수님이 전혀 100 퍼센트 유혹을 받으실 가능성이 없으셨다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려 오지도 않았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셨다. 이러한 행함은 부활 전이나 부활 후나 마찬가지였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천상까지 초지일관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죄에서 벗어나 계셨고, 마귀의 유혹들을 이기셨고, 능력으로 의와 선을 행하셨고, 거룩한 삶을 사셨고, 율법의 요구들을 다 이루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부활하셨고, 지극히 높은 영광의 자리에 좌정하셨다. 이러한 시각에서 디모데전서 3:16 을 읽어보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και ὁμολογουμένως μέγα ἐστὶν τὸ τῆς εὐσεβείας μυστήριον·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Ὅς ἐφανερώθη ἐν σαρκί,

[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²⁶ ἐδικαιώθη ἐν πνεύματι, ὤφθη ἀγγέλοις, ἐκηρύχθη ἐν ἔθνεσιν, ἐπιστεύθη ἐν κόσμῳ, ἀνελήμφθη ἐν δόξῃ.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경건’에 대한 강화 discourse 를 강화 reinforce 하기 위해 가져온 기독교론이다. 예수님도 육신 ‘으로’/‘안에서’ (롬 1:3-4 에서와 다른 전치사가 쓰임) 나타나셨으나 영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것과 같이 (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신 것과 같이)²⁷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으나 육신 안에서 살지 말고 영 안에서 삶으로 경건을 이룰 것을 사도는 권면하는 것이다.

²⁵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내용을 살펴보자. 총 3번의 기도 중에 첫 기도와 나머지 두 번의 기도를 상호 비교해 보라(마 26:39, 42, 44).

²⁶ *이탈릭체*는 필자의 강조이다.

²⁷ ‘영으로’ 다음에 오는 모든 어구들이 ‘영으로’에 걸리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번에는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칭의’가 영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다만 육신은 연약함으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야 의에 이른다는데 이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두 측면(“육신으로는”과 “영으로는”)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물론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된다) 육신 곧 자기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로서 언약과 율법과 할례를 가졌다는 사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영은 그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순간(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서부터 시작하여 성화의 날들을 거쳐 부활과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따라야 할 분이시다. 다만 예수님과 유대인 신자들 간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차이점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님은 아들로써 곧바로 아버지의 영 혹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고, 유대인 신자들은 유일한 조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롬 10:9 그 분) 안에 있음으로(롬 8:1,2)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다(롬 8:15 *ἀλλὰ ἐλάβετε πνεῦμα υἰοθεσίας, ἐν ᾧ κρᾶζομεν Ἀββὰ ὁ πατήρ*). 즉 그들은 생명의 영의 법(원리·질서)의 주관을 받아 죄와 사망에서 놓여나게 되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다. 아래를 보라! 로마서 8 장은 이 모든 단계들(각 단계들을 알리는 내용에 밀줄을 그음)에 육을 따름이 아니라 영을 따라야 함²⁸을 보여준다.

거듭남·칭의의 단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²⁹ 롬 8:1, 2” *Οὐδὲν ἄρα νῦν κατάκριμα τοῖς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ὁ γὰρ νόμος τοῦ πνεύματος τῆς ζωῆς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ἠλευθέρωσέν σε ἀπὸ τοῦ νόμου τῆς ἁμαρτίας καὶ τοῦ θανάτου.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8:15” οὐ γὰρ ἐλάβετε πνεῦμα δουλείας πάλιν εἰς φόβον, ἀλλὰ ἐλάβετε πνεῦμα υἰοθεσίας, ἐν ᾧ κρᾶζομεν Ἀββὰ ὁ πατήρ*

성화의 단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8:3, 4” *τὸ γὰρ ἀδύνατον τοῦ νόμου, ἐν ᾧ ἠσθένει διὰ τῆς σαρκός, ὁ θεὸς τὸν ἑαυτοῦ υἱὸν πέμψας ἐν ὁμοιώματι σαρκὸς ἁμαρτίας καὶ περὶ ἁμαρτίας κατέκρινεν τὴν ἁμαρτίαν ἐν τῇ σαρκί, ἵνα τὸ δικαίωμα τοῦ νόμου πληρωθῇ ἐν ἡμῖν τοῖς μὴ κατὰ σάρκα περιπατοῦσιν ἀλλὰ κατὰ πνεῦμα*

²⁸ 로마서는 영을 따른 삶을 믿음에 의한 삶과 동일시한다. “For in it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through faith for faith; as it is written, “The one who is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1:17 NASB”; δικαιοσύνη γὰρ θεοῦ ἐν αὐτῷ ἀποκαλύπτεται ἐκ πίστεως εἰς πίστιν,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 Ὁ δὲ δίκαιος ἐκ πίστεως ζήσεται. 로마서 1:17에서 의인의 삶은 곧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이는 달리 말하면 영으로 사는 삶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은 우리 연약함과 죄됨에도 믿음으로, 영을 따라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 성령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간섭하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심으로 믿음을 주시고(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다름) 이 구원을 끝내 이루신다. 이런 면에서 믿음도 성령도 은혜요 선물이다.

²⁹ ‘생명의 영의 법’에서 영은 결국은 성령을 의미하겠으나 일차적으로는 육의 법과 반대되는 영의 법(혹은 영의 원리, 영의 질서)을 뜻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참조. *Douay-Rheims Bible*: 8:4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의 ‘영’을 모두 소문자로 번역한다(성령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물론 9절의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모두 대문자 Spirit으로 번역했다. *English Revised Version*도 참조하라. 2절은 Spirit로 4-6절의 영은 spirit로 번역하였다.

부활의 단계: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8:10, 11” *εἰ δὲ Χριστὸς ἐν ὑμῖν, τὸ μὲν σῶμα νεκρὸν διὰ ἁμαρτίαν, τὸ δὲ πνεῦμα ζωὴ διὰ δικαιοσύνην. εἰ δὲ τὸ πνεῦμα τοῦ ἐγείραντος τὸν Ἰησοῦν ἐκ νεκρῶν οἰκεῖ ἐν ὑμῖν, ὁ ἐγείρας ἐκ νεκρῶν Χριστὸν Ἰησοῦν ζωοποιήσει καὶ τὰ θνητὰ σώματα ὑμῶν διὰ τοῦ ἐνοικοῦντος αὐτοῦ πνεύματος ἐν ὑμῖν.*

영화의 단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8:16, 17’ *αὐτὸ τὸ πνεῦμα συνμαρτυρεῖ τῷ πνεύματι ἡμῶν ὅτι ἐσμὲν τέκνα θεοῦ. εἰ δὲ τέκνα, καὶ κληρονόμοι· κληρονόμοι μὲν θεοῦ, συνκληρονόμοι δὲ Χριστοῦ, εἴπερ συνπάσχομεν / συμπάσχομεν ἵνα καὶ συνδοξασθῶμεν.*³⁰

따라서 이와 같이 로마서 1:3, 4의 “육으로는”과 “영으로는”은 예수님처럼 다윗의 자손인, 육을 따라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유대인은 그 육과 관련된 사항들(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점, 율법을 받은 자들이라는 점, 할례와 음식법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통해서가 아니라 영을 따름으로 거룩, 능력의 부활, 영화를 이루신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으로 인하여 받은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따름으로 칭의, 거룩, 부활, 영화 등을 이루게 됨을 가르쳐 알게 하려는 바울의 사전포석인 것이다. 이것은 로마서의 내용 전개를 보면 아주 명백하다.

예수님을 유대인과 동일시하는 반면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대조가 또 나타나는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9:4-5 다. 이 구절 및 관련구절들을 앞의 로마서 1:3, 4 및 중간의 로마서 7:14; 8:2, 4, 13-14 와 배열해 보면 사도 바울이 맨 앞에 로마서 1:3, 4의 기독교론을 제시한 의도가 보다 잘 드러난다.

로마서 1:3, 4	로마서 7:14; 8:2, 4, 13-14	로마서 9:4-5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7:14) 죄와 사망의 법에서 (8:2 부분) 육신을 따르지 않고 (8:4 절상)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8:13 상)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9:4- 5 상)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행위를 의지함이라 (9:31-32 중)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3:14 하)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으로 죽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너를 해방하였음이라 (8:2)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3:8 하) 소망의 하나님이...너희에게...성령의

³⁰ 이 *이탈릭체*는 필자의 강조이다.

아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8:4 절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8:13 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8:14 상)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5:13)] ³¹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τ οὔ ὀρισθέντος υἱοῦ θεοῦ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8:14 하) ὅσοι γὰρ πνεύματι θεοῦ ἄγονται, οὗτοι υἱοὶ θεοῦ εἰσίν.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ὁ ὢν ἐπὶ πάντων, θεὸς εὐλογητὸς εἰς τοὺς αἰῶνας· ἀμήν.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로마서 9 장 이후에서는 신자의 ‘영을 따른 삶’이 ‘사랑의 삶’과 교대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게 된다. 로마서 1:4의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로마서 9:5 하에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사도 바울이 이 ‘육’과 ‘영’의 두 측면을 가지고 로마 교회의 유대인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함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 두 측면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분수령으로 그 이전의 삶의 국면과 그 이후의 삶의 국면으로 나누어 별개의 두 국면으로 이해하는 것은 로마서의 전체 흐름과 조화되지 않는다.

이 말은 자체로 맞는 말이지만 로마서 1:3,4와 그 이후의 문맥을 연결해 보려고 할 때에는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머레이의 주장은 “성결의 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삼위이신 성령을 가리키지 않고,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의 능력의 상태, 성령과 동일시되는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하나, 이것은 쉽게 납득이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 이전의 상태에서도 늘 육체가 아니라 “성결의 영”의 측면에서 볼 때 능력 있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성결의 영”은 머레이의 판단에 의하면 결국 부활 후의 예수님의 상태인데, 사실 우리가 의미론적으로 보면 이 “성결의 영”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삼위 중 누구를 혹은 누구의 영을 지칭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아니라 육과 대조되는 하나의 ‘특성’이나 ‘면모’로서 주어진 단어이기 때문이다.³² 예를 들어 “그는 말은 어눌하나 글은 달필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자. 여기서 ‘말’은

³¹ 직접 이어지는 구절은 아니나, 넣어보았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성령을 평행으로 처리하며,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를 대조로 다룬다.

³² ‘성결의 영’이 이러한 한 측면으로 보지 않고 굳이 이 영이 누구의 영을 가리키는가를 말하라고 한다면, 이는 예수님의 자신의 영이라기 보다는 하나님 자신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성령을 가리킬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동의 결과가 벌써 수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선포되셨기’(Aorist, Participle, Passive) 때문이다. 참고로 바렛은 ‘성결의 영을 따라서’의 영은 성령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영을 가리킨다고 한다. “...literally ‘spirit of holiness’, and this has been taken to refer not to the Holy Spirit, but to

특정한 말들 예를 들어 연설, 사적인 대화, 강의 등등 중에 어떤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언어의 한 측면이다. 또 ‘글’이 여기서 그가 쓴 소설인지, 논문인지, 편지인지, 보고서인지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다. 이것도 역시 언어의 한 특성인 것이다. 로마서 2:28, 29 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οὐ γὰρ ὁ ἐν τῷ φανερῷ Ἰουδαῖός ἐστιν, οὐδὲ ἡ ἐν τῷ φανερῷ ἐν σαρκὶ περιτομή· ἀλλ' ὁ ἐν τῷ κρυπτῷ Ἰουδαῖος, καὶ περιτομὴ καρδίας ἐν πνεύματι οὐ γράμματι, οὗ ὁ ἐπαινος οὐκ ἐξ ἀνθρώπων ἀλλ' ἐκ τοῦ θεοῦ.”

여기서의 ‘영’이 아버지의 영인가, 아들의 영인가, 아니면 성령인가? 로마서 1:4 와 같이 여기서도 누구의 영인지 모호하다. 왜냐하면 이는 ‘문자’(개역개정은 ‘율법 조문’으로 번역. γράμματι)와 대조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참고, 고후 3:6). 반면 머레이의 해석은 로마서 이후 본문 내용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3:18 을 가져와서 ‘부활 후의 예수의 상태 곧 성령과 교호적으로 쓰이는 부활 후의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로마서의 문맥을 따르지 않고 있다(이런 사상을 로마서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머레이와 같이 예수님의 일생의 두 시간적 단계 혹은 국면으로 “육신으로는”과 “영으로는”을 주장할 경우 로마서 1:3-4 뒤에 나타나는 구절들의 이해가 어렵다. 예를 들어 로마서 4:1, 2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τί οὖν ἐροῦμεν [εὐρηκέναι] Ἀβραάμ τὸν προπάτορα ἡμῶν κατὰ σάρκα;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로마서 8:4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ἵνα τὸ δικαίωμα τοῦ νόμου πληρωθῇ ἐν ἡμῖν τοῖς μὴ κατὰ σάρκα περιπατοῦσιν ἀλλὰ κατὰ πνεῦμα·)³³, 로마서 9:6 하-7 상,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οὐ γὰρ πάντες οἱ ἐξ Ἰσραὴλ, οὗτοι Ἰσραὴλ· οὐδ' ὅτι εἰσὶν σπέρμα Ἀβραάμ, πάντες τέκνα)” 등과 같은 구절들이다.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은 자들, 예수 믿은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라! 이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육을 가지고 있지만 육의 힘이 아니라 영으로(혹은 믿음으로) 삶으로 거룩과 부활에³⁴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사도

Jesus' own (human) spirit, marked as it was by the attributes of holiness.” C. K. Barrett, *Black's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Epistle to the Romans*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75), 19.

³³ 여기서 로마서 8:4의 경우의 ‘영’은 물론 성령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문맥 속에서 언급된 갈라디아서 5:5 πνεύματι, 16절의 πνεύματι를 참조하라. 물론 갈라디아서에서의 ‘영’은 수단을 나타내는 여격을 사용한 것이 롬 8:4과는 다르다.

³⁴ 거룩과 부활과 영광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있어 거룩의 영이 필수적 동인이므로(좀더 좁게 말하자면,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룩의 영을 따름으로 이루어짐으로) 로마서 1:4에 그냥 “영으로는”이 아니라 “거룩의 영으로는”이라고 한 것이다. 사실 “육신으로는”에 짝을 맞추려면 “영으로는”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거룩’을 굳이 덧붙인다.

바울의 논지가 아닌가? 머레이의 주장을 따라 ‘부활로 성령과 교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새시대)에 이르신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로 로마서 1:3, 4와 나머지 로마서의 내용을 아무리 연결시켜 보려 해도 어색하다.

결국 로마서 1:3, 4의 이러한 해석은 로마교회가 어떤 측면에서는 아주 부정적 상황이 있었음을 추측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갈라디아 교회에서의 상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도 여전히 유대인이라는 육체성, 유대교의 율법과 그 율법의 중요한 표지인 할례, 그리고 그 율법에 포함된 안식일이나 절기들, 음식물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는 ‘다른 복음’(갈 1:6-10)을 전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정확히 말하면 이단)이 로마교회에 혼란을 주고 있었음에 틀림없는 것이다(롬 16:17-18).³⁵ 이것을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롬 1:16, 17)를 다시 말해주어야 한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칭의·구원 받게 됨, 구원 받은 자가 다시 율법을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 곧 성령에 의지해 살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임, 거룩과 영광에 이르게 됨을 알려주어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것이다. 김동수는 이러한 로마교회의 유대주의자들이 먼저 고린도 교회에 있던 거짓 선생들(고후 2:17; 4:2. 참고, 고후 11:13-15)과 동일한 무리였을 가능성도 말한다.

...이들은 바울 자신이 가르치던 복음을 부정하고 바울이 고린도교회에서 뿌린 말씀의 씨로부터 나는 믿음의 싹을 밟는 사단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고후 11:13-15)...이들이 만일 로마서 16:17 절이하에서 말씀하는 거짓 선생, 곧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저게 하는 자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었다면 이들은 고린도교회 뿐 아니라 초대교회를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교훈 즉 바울의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유대주의자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며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으로부터 로마교회 성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므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유대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로마서 14:1-15:13 절에서 서술된 “약한 자”들과는 다르다. 약한 자들은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지만 모세의 음식법이나 안식일을 특정한 날에 지키는 전통을 고수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자기 배만 섬기는” 거짓 선생들은 믿음 외에 율법주의를 구원의 조건으로 믿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분명히 상기시킴으로써 이러한 율법주의적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바울이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던 유대인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고 주장한 어거스틴의 관점은 옳다고 할 수 있다...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방인 성도들은 율법에 다시 얽매이지 않게 하는 동시에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바탕임을 확실하게 상기시키는 두 목적을 동시에 이루고 있다.³⁶

그것은 앞으로 ‘거룩’을 거론할 것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영’을 좇아야 한다. 그러나 “거룩의 영으로는”이라고 한 것이다(이것은 앞에서 말했듯 어떤 측면이나 특성이지만 삼위 중에서 어느 위를 가리키려고 한 것이 아니다. 유대적 표현으로는 거룩이라는 명사를 형용사로 여겨서 ‘거룩한 영’으로 보아 성령을 가리킨다고 쉽게 결론 짓는 것은 너무 나이브하다). ‘거룩한 산 제사’(a living holy sacrifice)도 결국 거룩한 영적 삶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속제가 아니었는가? 유대인들은 육체성과 율법으로 거룩을 이루려고 했으나 거룩은 거룩의 영을 따름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복선이 로마서 1:3, 4에 이미 깔려 있는 것이다.

³⁵ 김동수, *로마서 주석*(서울: 엘도론, 2013), 45f.

³⁶ *Ibid.*, 25-6.

물론 김동수는 이러한 로마교회의 상황을 로마서 1:3, 4의 해석에 곧장 연결시키지는 않는다. 그의 로마서 1:3, 4의 해석은 앞에서 보았던 ‘두 단계’ 해석이고 필자의 견해와는 다르다. 다만 필자는 그가 사도 바울 및 로마교회 정황을 로마서 내용과 연결시켜 보는 것은 옳다고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이 정황이 로마서 1:3, 4의 내용과도 깊이 관련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6 “육신으로는”과 “성결의 영으로는”의 대조적 어구들(롬 1:3, 4)의 사용의 의도(II): 이방인 곧 육신으로 이스라엘인이 아닐지라도 단지 성결의 영을 따르면 죄에서의 해방과 거룩과 부활과 영광에 이름을 가르쳐 주려는 의도

필자는 로마서 1:3, 4의 “육신으로는”과 “영으로는”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말하려는 메시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스라엘처럼 혈통적으로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롬 10:10; 11:12; 갈 3:1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을 따르는 것이다(롬 8:2).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기 때문이다(요 6:63). 이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이다. 할례는 영에 있고 문자에 있지 아니한 마음의 할례다(롬 2:29). 영의 할례로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이 되기 때문이다 (2:28).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영을 받은 후에(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으로나. 갈 3:2) 영을 좇아 살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율법을 받은 자들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안식일³⁷과 할례³⁸와 음식규정³⁹이 없는 자들이라도 성결과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비록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라도, 할례를 포함한 모든 율법을 준수하여 어떤 공로를 쌓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 성령으로 마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이다.

³⁷ 안식일에 관해서는 다음의 성경구절을 참고하라: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갈 4:10, 11);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골 2:16).

³⁸ 할례에 관해서는 다음의 성경구절을 참고하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갈 5:1-6);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골 2:11).

³⁹ 음식규정에 관해서는 다음의 성경구절을 참고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

7 “육신으로는”과 “성결의 영으로는”의 대조적 어구들(롬 1:3, 4)의 사용의 의도(III):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 돌아올 유대인 남은 자들도 육이 아니라 영을 따름으로 구원에 이름을 알림(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과 영에 의함)

필자는 이 논문의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 으로 불신 유대인들과 친근감을 조성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는 그 당시 로마의 불신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의도라고 하였다. 일차적 편지 수신자는 믿는 유대인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 믿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로부터 유대인들의 긍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긍지를 가지고 동족 불신 유대인들에게 나아갈 것이다. 그들은 이 접촉점을 가지고 불신 유대인들 복음화를 꾀할 것이다.

필자는 나중에 하나님의 공효로 주 예수께 돌아오게 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염두에 두고 로마서 1:3, 4 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 로마가 당시 이방세계의 중심 곧 지금의 뉴욕과 같은 도시였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생각해 보지 않았을 리가 없다. 다만 로마는 소아시아의 서울 격에 해당하는 에베소나 이스라엘의 서울인 예루살렘과는 다른 의미 곧 전 이방세계의 서울이라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다. 로마가 복음화된다는 것은 전 이방세계의 대표 도시가 복음화된다는 것을 의미했고, 대표 도시가 복음화된다는 것은 모든 이방 지역으로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의미했다.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도시가 바로 로마였고,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 이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로마서 9:1-15:13 의 문맥은 로마서 1:18-5:11 의 단락이나 로마서 5:12-8:39 의 단락처럼 죄-구원-거룩의 삶-영광 등의 모든 주제들이 똑같이 나타나지만, 특히 구원사적 주제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필자는 로마서 9-11 장에서 특히 11:25-27 의 내용을 구원사적으로 이해한다. 물론 로마서 11:26 의 “카이 후토스”(καὶ οὗτος)는 양태적으로 번역될 수 있다고 본다(“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그렇지만 구원사적 순서 즉, 이방인 선교(유대인의 일부 완악)-이방인의 충만수-구원-그 후의 다수의 유대인의 남은 자 구원을 의미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특히 순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5 절의 ‘...까지’ [아크리 후, until that] 라는 표현). 왜냐하면 인접 문맥의 다른 구절들 곧 로마서 11:5 절과 31 절에도 ‘후토스’가 사용되었는데 이것들도 순서적 의미를 전달하는 듯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의 ‘후토스’들도 일차적으로는 모두 ‘방식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 선교를 담당하는 시점에서 지금은 많이들 완악한 상태에 있지만 결국 믿음으로 복음을 통해 구원 받을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미래(종말)에 있게 될 것 곧 ‘순서적’ 의미도 나타내기 위해 이 ‘후토스’를 사용한다고 나는 이해한다. 로마서 11:5 절의 남은 자가 많은 유대인들이 완악한

상태에 있는 현 시점에서든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따라 존재하는 유대인 신자들(비록 소수일지라도)이고 또 31 절의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구원에 이르게 될 미래의 많은 남은 자들(‘이스라엘의 충만’이라는 표현 참조; 물론 여기에는 현재의 소수 남은 자들도 포함)로 이해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구절 26 절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것처럼 결국 유대인 남은 자도 충만한 수가 차게 될 것이다”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도의 논리적 생각을 간추리면 첫째,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인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둘째, 전에 완악한 상태에 있던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을 부어주신 하나님은 이제 그 긍휼을 완악하게 된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부어주실 것이다. 셋째, 그리하여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온 이스라엘’(모든 이스라엘의 남은 자)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열방의 구원 받은 자들이 한 목소리로 주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로마서 11:26 절의 “온 이스라엘”이 이방인 중 구원 받은 모든 자들과 이스라엘의 구원 받은 모든 자들의 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로마서 11:26 절의 첫 번 이스라엘은 혈통적 유대인들로, 나중 이스라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 구원 받은 자들의 합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보인다.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기술하여 독자들을 혼란 시키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로마서 11:11 절로 돌아가서 볼 때에도, 사도는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말하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충만함에 대해 언급한다. 사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충만”을 말하면서 바울이 이스라엘에게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될 자들이 현재 더러는 완악하게 된 상태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될 것(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를 순서적인 것과 숫자가 많아짐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다. 결국 현재 소수의 돌아오는 유대인들과 나중의 다수로 돌아올 유대인들의 총계가 “온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아니겠는가?⁴⁰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수) 이후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구원의 근거는 무엇일까? 우리는 종말의 다수의 이스라엘의 회심도 역시 로마서 1:3, 4의 기독교론(육이 아니라 영을 따라 거룩과 영광에 이른 그리스도)과 16, 17 절의 이신칭의, 믿음을 따른 삶 주제에 걸쳐 있다고 주장한다. 로마서 1 장의 기독교론과 구원론은 로마서 9-11 장까지도 동일하게 커버한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이었으나(롬 9:4-5 상⁴¹)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⁴⁰ Cf. 이승호, “바울의 이방선교와 유대인의 구원,” *신학파 목회* (2003): 57-76; *idem*, “로마서 11:25-27의 최근 연구 동향,” *신학파목회* (2009): 147-74. 그리고 이장연, “로마서에 나타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연구: 로마서 11장 25-27절에 나타난 ‘온 이스라엘’의 구원 신비를 중심으로,” *신학지남* (2013): 242-62; 박창건, “로마서 9-11장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문제,” *신학과세계* (1998): 67-101을 참고하라.

⁴¹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οἰτινές εἰσιν Ἰσραηλιταί, ὧν ἡ υἰοθεσία καὶ ἡ δόξα καὶ αἱ διαθήκαι καὶ ἡ νομοθεσία καὶ ἡ λατρεία καὶ αἱ ἐπαγγελίαι, ὧν

겪었다. 반면 많은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섰다(롬 11:20). 그러나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11:23). 그리고 로마서 9-11 장에 이어져 있는 로마서 12:1-15:13의 내용도 커버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영광의 소망에 이를 것이다(롬 12:1-15:13).

8 나가는 말

모든 성경책들을 연구함에 우리는 인류의 최초 정황을 늘 인식해야 한다. 물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특정한 로마교회의 정황이 있었다.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의 갈등,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유입하는 자들(믿는 자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 롬 16:17, 18 참고)을 로마서의 내용이 시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주의자들처럼 정황에 따라 본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따라 정황을 짐작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본문이 하나님 말씀이지 본문 외의 정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정황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는 잘못을 경계하려는 것이지 본문이 정황에서 떠나 있다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1:3,4에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 말할 것을 아주 함축적인 표현을 통해 미리 말한다. 이 기독교론은 먼저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 제시된 기독교론이다.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에 예언된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예수님은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나심, 죽으심, 부활은 모두 구약 예언의 성취들이다. 이 복음은 범죄한 인류라는 창세기의 최초 정황에 기초한 내용이다.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함과 아울러 사도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롬 1:3) 다윗의 자손임을 밝힌다. 사도는 “육신으로는”을 통해 의도적으로 유대인들과 접촉점을 만들고 있다. 바울은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바로 그들에게서 이루셔서 아들을 보내셨음을 알리고, 아울러 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전도할 때에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접촉점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반면 이방인들에게는 이 구원의 약속의 통로가 유대인임을 알려 그들이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않도록 한다. 벌써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간의 갈등을 의식하고 있는 사도의 발언이다.

한편 사도는 이 예수님을 “육신으로는”과 “거룩의 영으로는”에 의해 대조점을 지니시는 분으로 소개한다. 로마서 1:3 절과 4 절을 이어서 볼 때 이런 대조가 생긴다. 필자가 본론에서 밝힌 것은 로마서 1:3,4의 기독교론이 예수님의 존재의 두 단계, 곧 그분의 비하와 승귀를 나타내기

οἱ πατέρες, καὶ ἐξ ὧν ὁ χριστὸς τὸ κατὰ σάρκα).”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거룩의 영을 성령으로 보는 견해나,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자에게 생명을 부여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됨(성령과 교호적으로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영광의 상태)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으나)을 필자는 적시하였다.

육은 영과의 비교에 있어서 연약성, 죄성, 언약백성으로 하나님께 부여 받은 여러 특별한 조건들을 의미하며, 영은 육과의 비교에서 볼 때 하나님적인(divine) 특성이나 면모를 가리킨다. 이는 죽음을 이기고 인간을 부활에 이르게 하는 능력과 생명을 뜻하며,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케 하는 은혜를 말하며, 사람이 아닌 삼위 하나님에게 속한 총체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영에 ‘거룩’을 붙여 거룩의 영이라고 한 것은(육의 특성이 아니라) 오직 이 영적 측면을 따라 인간이 거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특히 로마서가 보이려 하기 때문에 수식어로 붙은 것이다. 즉 이 영을 따라서 살 때 인간이 죄를 이길 뿐 아니라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영을 따른 삶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롬 1:17),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롬 6:13),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롬 6:16),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롬 6:19),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롬 7:6),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8:4),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롬 8:13) 등의 진술들이 지시하는 삶을 의미한다. 사도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거룩에서 시작하여(영광의) 거룩으로 마치는 삶의 원리를 말하기 위하여 미리 초입에 이러한 기독교론을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의 거룩은 유대인(도덕적 율법, 할례, 안식일, 음식법 등을 부여 받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육이 아니라 영을 따른 삶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영을 따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롬 8:14) 삶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인데 이들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같은 칭호로 일컬음을 받는다), 이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롬 8:9)이 계신 것이고, 또 “성령”(롬 8:16)이 계신 것이다. 따라서 거룩의 영으로는 이라고 할 때의 영은 삼위의 영 중에 어느 영이나 가리킬 수 있고, 그리스도 자신(롬 8:10)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순종하는 삶(롬 1:5; 6:16)을 가리킬 수도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 4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많은 육적인 면모들이 있으나 그 중에 하나 곧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취하고, 많은 영적인 면모들이 있으나 그 중에 하나 곧 죽음에서의 부활을 취함으로써, 믿는 우리도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따름으로 거룩, 부활, 영광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하려 하고 있다. 이는 사도에게 갈라디아 교회처럼 로마교회에도 율법 준수를 구원 조건으로 강요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도전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로마는 당시 이방세계의 서울이었고, 이 로마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구원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가 종료되면 그것으로 끝인가? 본인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1:3, 4는 이 질문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유대인들은 실패했으나 언약 백성으로 말씀을 담지 하고 전수한 이 혈통적 유대인들(롬 1:3)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도 결국 “믿음으로” “영을 따라” 구원(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롬 1:4)을 사도는 통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가지”(롬 11:24)가 하나님의 영을 따르도록(하나님의 의를 복종하도록, 롬 10:3) 하시는 공휼의 하나님의 조치가 있을 것(롬 11:31)인데 이러한 내용이 로마서 1:3, 4의 복음과 기독교론에 기초해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1:3, 4의 기독교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복음이라는 일반적 진리만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 기독교론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떻게 구원 받는가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거룩(성결)을 이룰 수 있는가를 알려준다. 이 기독교론의 의미를 알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셨는지를 알 뿐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영원히 어떻게 영광의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되며, 또한 언약과 죄에 싸여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에 이룰 수 있고 그 거룩의 상태에 계속 있을 수 있는지도 알게 된다. 이런 면에서 본 두 절은 너무나 중요한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에 넘어야 할 최초의 너무나 중요한 관문이다.

참고문헌

성경사본 및 역본들

개역개정(한글).

Douay-Rheims Bible.

English Revised Version.

English Standard Version.

Hebrew-English New Testament. Cambridge: The Society for Distributing the Holy Scriptures to the Jews, year not known.

LXX.

New American Standard Bible.

김정훈. “로마서.”(번역) *우리말성경*. 서울: 두란노, 2005.

단행본 및 논문들

김동수. *로마서 주석*. 서울: 엘도론, 2013.

라이트, 톰. *The New Interpreter’s Bible Commentaries: 로마서*. 장용량, 최현만 역. 서울: 에클레시아북스, 2014.

박창건. “로마서 9-11 장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문제.” *신학과세계* (1998): 67-101.

슈라이너, 토마스. *BECNT: 로마서*. 배용덕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오성중. “로마서 5-6 장의 해석 문제(롬 5-6 장).” *로마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목회와신학 편집부 편.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4.

이승호. “바울의 이방선교와 유대인의 구원.” *신학과 목회* (2003): 57-76.

_____. “로마서 11:25-27 의 최근 연구 동향.” *신학과목회* (2009): 147-74.

이장연. “로마서에 나타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연구: 로마서 11 장 25-27 절에 나타난 ‘온 이스라엘’의 구원 신비를 중심으로.” *신학지남* (2013): 242-62.

정승우. “로마서 1 장 3 절에 나타난 유대적 예수상과 바울의 목회전략.” *로마서의 예수와 바울: 로마서: 사회학적 해석*. 서울: 이레서원, 2008.

_____. “로마의 크리스천 공동체의 기원과 형성.” *로마서의 예수와 바울: 로마서: 사회학적 해석*. 서울: 이레서원, 2008.

Barrett, C. K. *Black’s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Epistle to the Romans*.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75.

Murray, John. *The Epistle to the Romans*. Vol. 2 of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68.

Nygren, Anders. *Commentary on Romans*. Translated by Carl C. Rasmussen. London: SCM, 1952.

Schreiner, Thomas R. *BECNT: Romans*. Grand Rapids: Baker Academics, 1998.

Wright, Tom. *Romans*. Nashville, Tennessee: Abingdon, 2002.

톰 라이트의 칭의론에 관한 소고

이명구

Alphacrucis College 교수

- 1 들어가는 말
- 2 톰 라이트의 칭의론 비평
- 3 나가는 말

초록(Abstract)

라이트의 칭의론은 그 동안의 전통적인 칭의론을 주장하고 믿어온 사람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 특히 칭의는 개인 구원의 차원이 아닌 교회론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새 관점의 시각은 전통적인 칭의론 신봉자들에게 전통적인 칭의론이 성경적 기반에 탄탄하게 서 있는지를 고민하게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칭의론은 겉에서 볼 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행위와 실천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약점은 필연적으로 바울이 말한 칭의와는 거리가 먼 값싼 은혜의 메시지를 만들어 냈고, 한국교회는 그런 메시지에 크게 병들게 되었다.

라이트의 칭의론은 그런 전통적인 칭의론이 갖고 있는, 또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오류를 바로 잡으려는 시도인 것으로 여겨지며 그런 시도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칭의론에 관련된 바울의 성경구절을 누구보다도 충실하고 탄탄하게 주석함으로써 그런 약점을 극복하는, 바울이 본래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칭의론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의 두 단계 칭의론이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를 가르친다고 믿는 개혁주의적 또는 전통적 칭의론 주장자들로부터 반펠라기우스적이며, 유사알미안주의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라이트는 소위 옛 관점 또는 전통적 칭의론은 바울이 말한 바가 전혀 아닌 거짓이라고 맹공하지만 라이트 자신이 여러 곳에서 옛 관점을 되풀이 할 때도 있다. 옛 관점은 바울이 의도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는 그의 주장은 주석적으로도 충분히 밝혀지지 않는다고 본다. 새 관점이 그 동안 전통적인 칭의론을 의지해온 사람들에게 자극과 도전 준 것은 감사할 일이나, 전통적인 칭의론은 새 관점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까지의 논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라이트가 기존 칭의 교리가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약점을 극복하려고 방대한 학문적 노력을 한 것은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칭의론이 담고 있는 숙명적 취약점을 다시 점검하고, 그것을 탄탄하게 성경적 기반 위에 균형 있게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Keywords)

라이트의 칭의론, 전통적인 칭의론, 바울신학, 새 관점, 개혁주의, 하나님의 의

1 들어가는 말

요즘 종교개혁 이후 반 천년 동안 개신교를 주도해온 개혁주의의 칭의론이 논쟁에 휘말려 있다. ‘새 관점’(New Perspective on Paul)의 기수 톰 라이트(Tom Wright)가 선봉에 서서 개혁주의 칭의론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그의 칭의론에 관한 주저 *톰 라이트 칭의를 말하다(Justification: God’s Plan and Paul’s Vision)*와 *톰 라이트 바울의 복음을 말하다(What Saint Paul Really Said?)*를 중심으로 그의 칭의론 주장과 또 칭의론에 관련된 그의 신학을 살펴보려 한다. 그의 칭의론 주장 밑바닥에는 ‘새 관점’이 깔려 있기에 ‘새 관점’은 빈번하게 언급될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새 관점’을 보게 될 것이다.

2 톰 라이트의 칭의론 비평

바울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바울신학의 핵심 개념을 ‘하나님의 의(*dikaiosyne theou*)’라고 보는 것에 이견을 달지 않는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선포한 반면에,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려는 ‘새 관점’의 톰 라이트는 ‘하나님의 의’는 바울신학의 핵심이 아니라고 말할 뿐 아니라 그 동안 견지되어온 개혁주의적인 시각은 바울이 말하려는 바와 크게 다르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선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이해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이 문구는 로마서에서 8 회(3:5,21,22,25,26; 10:3)에 나오며 고후 5:21 에도 등장한다. 그러나 이 문구는 바울이 사용하기 전에 구약성경에서 이미 사용된 바 있기에 그 뿌리는 구약성경에 있다. 신약성경 헬라어 “*dikaiosyne theou*”에 그대로 상응하는 구약성경에서의 문구는 히브리어 “*tsedaqah Elohim*”이다. 구약성경에서 사용된 이 히브리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이다. 첫 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은 의로우시다(*God is righteous.*)라는 것이다.¹ 둘 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시기에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는 행동을 의미한다(참조, 사 46:13; 51:5-8). 바울은 두 번째 의미로 로마서 1:17 에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¹ 이것은 ‘의’(디카이오쉬네)를 추상명사로 보았을 때 가능해진다. ‘의’가 추상명사라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문법적으로 가장 자연스럽다. 신약성경에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본 문구들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 문구에 관한 핵심 구절인 로마서 1:17을 비롯해서 바울서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다. 케제만(E. Käsemann)은 ‘의’는 추상명사가 아니라 행위명사라는 것을 선구적으로 밝힌다.

속성이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분의 의로우신 성품에 온전히 합당하게 주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히 포함된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는 그분의 성품을 넘어 행위를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복음이 그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만 드러내주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 될 수 없고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의’가 전가된다(imputed)고 주장한다.² 개혁주의가 일반적으로 주창하는 칭의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되어(imputed)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톰 라이트는 ‘의의 전가’는 바울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의 전가’를 주장하는 학자들을 맹공한다.

그렇다면, 톰 라이트는 무엇을 ‘하나님의 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하나님의 의’는 언약을 지키시려는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이라고 주장한다.³ 라이트에 의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간파할 수 있는 해석의 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신다는 언약적 신실성인 것이다. 그리고 언약이란 구약과 제 2 성전시대 유대교와 바울서신 전체에 흐르는 맥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을 죄의 곤궁에서 구하고 세상을 축복하신다는 단일한 구원 계획이라고 말한다.⁴ 그러므로 라이트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처음부터 가졌던 그 단일계획에 대한 신실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이다. 라이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런 이해를 펼치면서 그는 샌더스(E. P. Sanders)와 던(J. D. G. Dunn)이 주창한 ‘새 관점’을 충실하게 이어간다.⁵ ‘새 관점’에 의하면, 1 세기의 유대교는 기존의 이해가 주장한 대로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율법주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자신의 조상에게 이미 주신 언약(약속) 안에 충성스럽게 머무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다. 즉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 했던 이유는 언약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수단(getting in)이 아니라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한 수단(staying in)이었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1 세기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가 아닌 언약적

² 대표적인 개혁주의신학자 L. Berkhof는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impute)된다는 관점에서 죄인이 의롭다고 선언된다고 말한다.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6), 517. 존 파이퍼(John Piper)도 같은 주장을 한다.

³ 톰 라이트, *칭의를 말하다*, 최현만 역 (서울: 에클레시아북스, 2011), 109.

⁴ Ibid.

⁵ 그러나 자신은 샌더스(E. P. Sanders)와 던(J. D. G. Dunn)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신율주의(Covenantal Nomism, 언약적 율법주의라고도 한다)로서 언약을 의지한 은혜의 종교였다고 라이트 뿐만이 아니라 새관점주의자들은 주장한다.⁶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율법을 고수하는 유대인들을 비판한 이유는 무엇일까? 라이트 및 “새 관점”의 대답은 이렇다. 그들이 “은혜주의자”에 대비되는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을 주시겠다는 그의 계획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그 위임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⁷

라이트는 ‘하나님의 의’에 관한 그의 주장을 펼쳐감에 있어서 주석적 접근을 매우 강조한다. 특히 그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1세기 유대교의 배경하에서 읽어야 한다는 것을 크게 강조한다. 라이트는 로마서 전체의 흐름을 가장 잘 풀어낼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언약적 신실성’이라고 본다. 그 동안 개혁주의자들이나 옛 관점은 로마서 1-8장을 중심으로 보고 9-11장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겼으나,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이 완벽하게 드러날 것을 밝히는 9-11장이 로마서의 중심이라고 라이트는 주장한다. 라이트가 보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개인의 구원과 칭의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전 세계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단일계획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놀라운 방식으로 성취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 즉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라이트는 바울이 말하는 칭의는 이방 선교 상황에서 적용된 것이라고 말한다. 즉 율법준수를 요구하는 유대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혼란스러워 했던 이방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언약백성에 속하게 되었다는 점을 확신시켜 주는 데 필요한 교리였다는 것이다.⁸ 칭의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언약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즉,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였다는 것이다. 보편적인 신학 언어로 말하면, 로마서는 구원론을 말한다기보다 교회론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⁹ 그런 관점에서 라이트는 칭의가 바울의 중심사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바울에게 있어 칭의는 복음에 내포된 일면일 뿐이다.¹⁰

이러한 라이트의 칭의 이해는 더 나아가간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은 개인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기에 그런 이해는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의 참된 의미를 심하고 곡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울은 그런 무시간적이고 비역사적인 구원의 체계에는

⁶ 박영돈, *톰 라이트 칭의론 다시 읽기: 바울은 칭의에 대해 정말로 무엇을 말했는가?* (서울: IVP, 2016), 21, 38.

⁷ 라이트, *칭의를 말하다*, 110.

⁸ 톰 라이트, *바울의 복음을 말하다*, 최현만 역 (서울: 에클레시아북스, 2011), 94.

⁹ *Ibid.*, 119.

¹⁰ 그러나 그러면서도 라이트는 칭의를 부차적이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격하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변명한다.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라이트 및 ‘새 관점’에 의하면 바울 당시 유대교가 직면했던 핵심 문제는 개인의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것이었다.¹¹ 이미 살펴본 대로, 라이트에 의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단일계획을 갖고 계셨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과 전 창조 세계의 궁극적인 구출이라는 단일계획은 명백한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갔다. 그 명백한 목표는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이미(already) 개시되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실 순간은 아직(not yet) 남아 있다. 그렇게 보면 그의 종말론은 개혁주의의 틀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런 라이트의 칭의론은 중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점에 도달한다. 라이트는 전통적 칭의론은 행위에 따른 최후의 심판을 간과한다고 비판한다. 그는 로마서 2:13 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게 될 것이다”라는 진술을 필두로 바울은 최후의 법정에서 어떤 사람은 ‘디카이오스’(dikaios), 즉 옳다는 판결을 받게 될 것인데, 그는 토라를 듣기만 하지 않고 시행한 사람일 것이며 그런 내용과 관련된 자료(갈 5:19-21; 고전 3:12-15; 6:9; 엡 6:8)는 무시하기에는 너무 많다고 말한다. 그는 “미래의 칭의가 그 사람의 전 생애에 기초하여 공개적으로 확증할 내용을, 현재 칭의가 믿음에 기초하여 지금 확증해 준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그의 칭의론에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현재적 칭의와 미래적 칭의라는 두 단계 칭의론을 언급한다.¹² 이는 라이트만의 주장이 아니라 ‘새 관점’의 구원론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이트와 ‘새 관점’은 최초의 칭의로 하나님의 언약백성이 되고, 최종적인 칭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교훈에 순종함으로 마지막 심판에서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라이트는 현재 칭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독교론적으로 이루어지며, 미래 칭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성령론적이 된다고 말한다.¹³ 라이트에 의하면 미래적 칭의는 율법을 단지 소유 함으로서가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을 성실히 준수함에 의해서 내려진다고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는 최종 칭의가 전 생애에 걸친 신자의 의로운 삶에 근거한다고 해서 자신이 신인협력설이나 공로주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힘주어 변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라이트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시각은 지금까지의 접근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필자는 아주 실질적인 차원에서만 그의 칭의론과 그와 관련된 입장을 비평하려고 한다.

라이트가 자신의 칭의론을 철저한 주석적 결론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주석은 무리한 점이 없지 않다.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아무리 ‘새 관점’을 적용하여 과연 바울이 그토록 신랄하게 비판한 갈라디아교회의 다른 복음 주장자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한

¹¹ 라이트, *칭의를 말하다*, 122.

¹² 라이트, *바울의 복음을 말하다*, 215.

¹³ 라이트, *칭의를 말하다*, 166-7, 258-9. 박영돈은 그의 톨 라이트 칭의론 다시 읽기, 194에서 라이트의 칭의론을 “이중 칭의론”이라 부르고 있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자신들에게 주신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가를 의식하고 읽어도 부자연스러움은 해소되지 않는다. 바울이 유대그리스도인들의 율법주의, 즉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전통적인 해석이 훨씬 자연스럽다(참조, 갈 2:16, 21; 5:4). 실질적인 차원에서 볼 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읽는 일반인이 ‘새 관점’의 시각을 읽어내기란 너무 어렵다. 그것은 ‘새 관점’의 읽기가 부자연스러운 읽기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라이트는 바울의 칭의론을 개인 구원의 차원으로 축소시키는 것에 강한 저항을 보이는데, 그런 그의 입장은 여러 성경 주석에서 집합적 칭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는 신명기 27:26 을 율법을 범한 국가적 죄로 이해한다. 그러나 그 구절은 신명기 27:15-25 에 근거해서 내려진 결론으로 율법을 범한 개인의 죄를 가리킨다. 집합적 칭의를 강조하는 그의 주석은 교회에 강한 메시지를 주려는 그의 바램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의의 전가’를 강조하는 전통적 칭의론이 지난 역사 동안에 기독교 도덕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비난을 통상 들어왔던 것은 사실이다. 라이트 및 ‘새 관점’이 주장하는 칭의론은 그런 비난으로부터 교회를 멀어지게 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를 지나는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왔음을 염려하며 그리스도와 문화가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일원론적 도전을 주려는 메시지에 먼저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라이트는 그의 최근의 저서 *우상의 시대 교회의 사명(New Tasks for a Renewed Church)*에서 현대의 교회가 이교주의로 쓸려가는 가장 큰 오류로 이원론을 든다. 그는 성경은 영의 세계와 물질세계를 구분하지 않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통합된 영성으로 부름 받았다고 하며 교회는 새로운 형태의 정신 일원론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¹⁴

3 나가는 말

라이트의 칭의론은 그 동안의 전통적인 칭의론을 주장하고 믿어온 사람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 특히 칭의는 개인 구원의 차원이 아닌 교회론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새 관점의 시각은 전통적인 칭의론 신봉자들에게 전통적인 칭의론이 성경적 기반에 탄탄하게 서 있는지를 고민하게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칭의론은 곁에서 볼 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행위와 실천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약점은 필연적으로 바울이

¹⁴ 톰 라이트, *우상의 시대 교회의 사명: 거짓 신들에 맞서는 예수의 복음*, 김소영 역 (서울: IVP, 2016), 29, 34.

말한 칭의와는 거리가 먼 값싼 은혜의 메시지를 만들어 냈고, 한국교회는 그런 메시지에 크게 병들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한국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라이트의 칭의론은 그런 전통적인 칭의론이 갖고 있는, 또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오류를 바로 잡으려는 시도인 것으로 여겨지며 그런 시도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칭의론에 관련된 바울의 성경구절을 누구보다도 충실하고 탄탄하게 주석함으로써 그런 약점을 극복하는, 바울이 본래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칭의론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의 두 단계 칭의론이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를 가르친다고 믿는 개혁주의적 또는 전통적 칭의론 주장자들로부터 반펠라기우스적이며, 유사알미안주의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¹⁵

라이트는 소위 옛 관점 또는 전통적 칭의론은 바울이 말한 바가 전혀 아닌 거짓이라고 맹공하지만 라이트 자신이 여러 곳에서 옛 관점을 되풀이 할 때도 있다. 옛 관점은 바울이 의도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는 그의 주장은 주석적으로도 충분히 밝혀지지 않는다고 본다. 새 관점이 그 동안 전통적인 칭의론을 의지해온 사람들에게 자극과 도전 준 것은 감사할 일이나, 전통적인 칭의론은 새 관점에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까지의 논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라이트가 기존 칭의 교리가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약점을 극복하려고 방대한 학문적 노력을 한 것은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칭의론이 담고 있는 숙명적 취약점을 다시 점검하고, 그것을 탄탄하게 성경적 기반 위에 균형 있게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¹⁵ 이대웅, “바울신학의 새 관점 학파, 알미안주의 변종일 뿐,” 크리스천투데이, 2013. 10. 14 게시,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67508> (2017년 8월 접속). 장신대 신약학자 김철홍 교수는 ‘새 관점’을 유사알미안주의라고 말한다. 그는 “종교개혁신학에서 율법과 행위는 성화와 기독교윤리의 범주이지 구원론의 범주가 아닌데도 ‘새 관점’은 행위와 율법을 다시 구원론의 범주로 갖고 들어와 기존의 구원론을 변경시키려 한다”며 ‘새 관점’을 수용하면 신인협동설로 가게 될 것을 경고한다.

참고문헌

- 박영돈. *톰 라이트 칭의론 다시 읽기: 바울은 칭의에 대해 정말로 무엇을 말했는가?* 서울: IVP, 2016.
- 라이트, 톰. *우상의 시대 교회의 사명: 거짓 신들에 맞서는 예수의 복음*. 김소영 역. 서울: IVP, 2016.
- _____. *톰 라이트 바울의 복음을 말하다*. 최현만 역. 서울: 에클레시아북스, 2011.
- _____. *톰 라이트 칭의를 말하다*. 최현만 역. 서울: 에클레시아북스, 2011.
- 이대웅. “바울신학의 새 관점 학파, 알미니안주의 변종일 뿐.” 크리스천투데이. 2013. 10. 14 게시.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67508> (2017년 8월 접속).
-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6.

본회퍼의 교회론

(The Ecclesiology of Bonhoeffer)

임세근

Alphacrucis College 교수

- 1 들어가는 말
- 2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 3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 4 본회퍼가 추구한 참 교회의 모습
- 5 나가는 말

초록(Abstract)

본회퍼 교회론의 중요한 요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로서, 이는 당시의 상황 속에 고통 당하는 유대인과 고백교회를 위한 그의 입장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본회퍼의 이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동떨어지지 않고 세상에서 고통 당하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연관성을 잘 나타내 주는 사실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입증된다. 종말론적 구원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은혜아래 머무르며 살 때 그 역할을 바로 감당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럴 때 당신의 공동체가 은혜롭게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미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가 배워야 할 사실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갈구했던 본회퍼의 신앙사상이다.

교회의 사회화와 그리스도교의 개혁의지는 결코 앉아있는 상태에서 외쳐댄다고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회가 개인구원과 영혼구원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교회 자체의 사회적 책임문제에 소홀한 것은 하나님나라 운동의 본래의 의미와 맞지 않는 것이다. 미래사회를 위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는 일은 현대교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본회퍼의 교회론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상이다.

주제어(Keywords)

본회퍼, 교회론,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나라, 종말론적 공동체

1 들어가는 말

디트리히 본회퍼의 교회론에서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는 그리스도론과 함께 병행한다는 것이다. 본회퍼의 제자요 친구이자 매제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본회퍼를 잘 아는 에버하르트 베틀게는 본회퍼가 주시했던 그리스도론과 관련한 비평적 기능은 모두 교회론적 실제의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본회퍼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교회의 개념 속에서 함께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정의의 한 부분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²고 역설했다. 그리스도인의 종교는 모호한 희미 함으로서의 생각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이 본회퍼의 입장이었다. 가시적인 역사적 성육신은 당신의 교회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실제적 현존’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했다.³

본회퍼의 교회에 대한 관심은 그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회의 구성원은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이며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고 이 땅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신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본회퍼 교회론의 중요한 요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로서, 이는 당시의 상황 속에 고통 당하는 유대인과 고백교회를 위한 그의 입장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본회퍼의 이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동떨어지지 않고 세상에서 고통 당하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그러므로 본 소고는 본회퍼의 교회론에 관한 신학적 이론을 정립하여 그가 추구하고 밝히고자 했던 참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소고에서는 본회퍼의 교회론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의 관점에서 제시했다. 먼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에서는 공동체적 위치나 입장에서의 교회론을, 둘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서는 교회를 실제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 중심된 교회임을 천명하였다. 마지막 단원으로서 ‘본회퍼가 추구한 참 교회의 모습’에서는 참 교회의 성격과 교회론적 특성, 그리고 종말론적 구원의 공동체와 연관한 그리스도의 지배와 교회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규명하면서 본 소고의 결론적인 입장을 정리하였다.

2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¹ E. Bethge, *Bonhoeffer: Exile and Martyr*, trans. John W. De Gruchy (London: Collins, 1975), 62.

² Dietrich Bonhoeffer, *Modern Theology* (London: Epworth Press, 1973), 43.

³ *Ibid.*, 41.

2.1 타자를 위한 교회공동체

본회퍼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이었던 *성도의 교제*에서 교회공동체와 그리스도를 동일선상에서 표출하였는데 이는 ‘교회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그리스도’라는 표어를 제시함으로써이며, 그는 이를 통하여 계시 현실로서의 그리스도와 사회적 현실로서의 경험적 교회를 하나로 결합시키는 결단력을 사용했다.⁴

남기철은 “본회퍼의 타인을 위한 인간의 개념은 그의 교회론으로 확대된다”⁵고 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타인을 위해서 철저한 비이기적인 희생의 삶을 살고, 타인을 위한 인간상을 보여주는 일이야말로, 교회가 실천해 나가야 할 본분의 모습이라고 하였다.⁶

더 나아가 본회퍼의 교회론은 그의 그리스도론과 더불어 그리스도 대속의 교리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본회퍼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몸 된 그의 공동체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성의 시각을 결코 잃지 않았다.”⁷ 몰트만은 이런 공동체에 관해 복음과 연관시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야말로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로서 가난하고 가련하고 갇힌 자들 즉 인간학적으로서의 친교·평화에 이르는 구원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복음의 상대자들⁸이라고 했다.

본회퍼가 추구했던 타자를 위한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배고프고 목마른 자, 소외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저들의 갈급함을 해결시키는 타자를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본회퍼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권의 목적’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그 목적이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서로 만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사권을 선물로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를 사이에 두고서만 우리는 서로 연결되는 것이다. 영원히 그만이 증보자”⁹라고 역설하였다. 본회퍼는 예수를 ‘타자를 위한 존재’(Dasein-fur-andere)로 지목하였는데, 기독교적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행위는 타자를 위한 존재를 의미하고,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준 타자를 위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사랑을 나타낸다.¹⁰

유석성은 본회퍼의 말을 인용하여 “본회퍼가 예수를 타자를 위한 존재로 규정했듯이, 교회 역시 ‘타자를 위한 교회’여야 하며,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가 된다고 하였다.”¹¹고 강조하였다.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포기한 그리스도는

⁴ 김형근, *본회퍼의 영성*(서울: 넷북스, 2010), 84.

⁵ 남기철, *현대신학해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427.

⁶ Ibid.

⁷ Jean-Yves Lacoste, ed., *Encyclopedia of Christian Theology: Volume 1, A-F* (New York: Routledge Publisher, 2005), 231.

⁸ 위르겐 몰트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박봉량 역(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3), 121-2.

⁹ 본회퍼, *신도의 공동생활(Life Together)*, 문익환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26-7.

¹⁰ 유석성, “본회퍼와 한국교회론,” *호주한인기독교연구소* 16 (2011년 11월): 12.

¹¹ 유석성, *현대신학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신학자* 28(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211

철저하게 ‘타자를 위한 존재’이다. 그에 죽음 속에서 세워지고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인 동시에 이웃과 하나인 세계 즉 율법의 복음이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이다.¹² 한편 갓시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through) 공동체이며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공동체를 뜻한다’고 본회퍼는 말한다”¹³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의 의미를 분명하게 제언한바 있다.

결국 본회퍼가 말한 ‘타자를 위한 공동체’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전체와 온 인간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실천하며 확장하는 일과도 연관되어지며, 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회중의 입장에서나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교회가 넘기 힘든 문턱의 철용성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본회퍼가 늘 주장한 것과 같이 대중 안에서 ‘타자를 위한,’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2.2 역사의 중심에서 성령이 활동하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

본회퍼는 역사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는 세계역사의 주체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시며 섬김으로써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였다. 팬트는 본회퍼의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이 점을 분명하게 확인한 바 있다.¹⁴ 역사의 중심에서 있는 교회는 세상에 옳다고 인정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이며, 이는 그리스도의 역사의 의미를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는 해방 받고 구원을 경험한 자, 그리고 감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¹⁵인 것이다.

그러므로 본회퍼는 “인류역사는 아담의 죄와 타락에 의해 시작된 공동체의 파괴의 역사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회복과 창조의 역사”¹⁶라고 강조했다. 본회퍼가 가지고 있던 이런 역사적 인식과 견해는 역사와 세상가운데 있는 교회로서 이런 교회는 세상을 위해 십자가 고난가운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교회임을 확인하였던 것이며, 그의 *기독교윤리*에서 오늘 우리가 역사의 중심에서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

¹² 김균진, *역사의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오늘의 그리스도론*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9), 409-10.

¹³ 존 D. 갓시, *디트리히 본회퍼의 신학*, 유석성, 김성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209. 여기에서 갓시는 본회퍼가 밝힌 3가지 의미에 대하여 이렇게 밝히고 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타자를 필요로 한다; 즉,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구원을 형제의 입을 통해 그에게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타자에게 간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자아 중심적인 인간이 하나님과 형제에게 이를 수 있도록 그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신 중보자이시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 전부터 택함을 받고, 시간 안에서 용납되었다가 영원을 위해 한데 결속되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순전한 은혜로 인간 본성을 육체로 입으셨고, 이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 교회와 함께 택함을 받고 용납된 우리는 이제 그분 안에 있으며 서로와 함께 영원히 그분께 속해 있다.

¹⁴ Clyde E. Fant, *Bonhoeffer: Wordly Preaching* (New York: Thomas Nelson Inc., 1975), 316. 팬트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본회퍼가 강조했던 사실에 대해 역설적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여 제시했다.

¹⁵ 몰트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60.

¹⁶ 김형근, *본회퍼의 영성*, 86에서 재인용.

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다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만 그의 교회 안에만 존재한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교회의 영으로서 성령의 활동장소는 교회이다. 따라서 성령은 다만 성도들의 사귄으로써의 교회 안에서만 행동한다.”¹⁷ 이 성령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의 언행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거룩한 새로운 말이 되어야 함을 본회퍼는 소망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때는 인간이 다시 부름을 힘입는 때이나, 우리들이 세계의 변화와 혁신을 성취하게 될 날을 미리 앞서 표현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그 때가 올 것이다.¹⁸

이와 함께 한스 쾅도 그의 저서인 *교회*에서 성령의 교회는 자유 함이 있는 곳으로서 “자유는 우선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교회의 과제가 곧 자유”¹⁹라고 역설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 함이 있느니라”(고후 3:17).

자신의 자유와 책임을 의식하는 교회는 ‘성령의 현존’ 안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왕국)를 향한 메시아적 백성으로서 자신을 이해할 뿐 아니라 메시아적 축제 안에서²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다. 이처럼 성령이 활동하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자유와 책임을 중요시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본회퍼 또한 주장하였으며, 또한 그는 말씀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의 해석으로서 역사적 성취를 위한 현실의 해석이 곧 예수의 말씀이다. 인간을 위한 책임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계명이 역사 속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하고 그 역사의 현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 곧 예수의 말씀인 것이다.²¹ 이처럼 본회퍼는 성령의 활동 하에 있는 교회는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공동체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에 의해 기초되고 존재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현존으로서의 성령의 교회임을 역설한 것이다. 1940년부터 심혈을 기울였던 그의 *윤리* 속에서 본회퍼는 그리스도인 활동의 영역을 확장한다.

2.3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신비의 차원에서 오로지 신앙으로서만 납득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나라의 공동체이다. 또한 예수에 대한 회상과 함께 성령의 능력 그리고 사도들의 전통에 대한 기억을 더욱 새

¹⁷ 박봉량, *그리스도교의 비종교화*(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285.

¹⁸ E. 베트게, *디트리히 본회퍼의 옥중서간*, 고범서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183.

¹⁹ 한스 쾅, *교회*(서울: 한들출판사, 2007), 225.

²⁰ 몰트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413.

²¹ 본회퍼, *기독교윤리*, 손규태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4), 198.

롭게 하는 곳도 역시 교회이다. 역사 속에서 구체화되고 공동체와 집단 안에서 체계화되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신비하지 않을 수 없다.²² 켈리의 말처럼, 특히 본회퍼가 강조한 하나님나라 공동체의 특성²³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묘사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 연장된다고 했다.

한편, 이에 대해서 바르트 역시 본회퍼와 유사한 입장을 취했으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자 새로운 삶의 가능성으로서 그리스도안에서 창조된다”고 말했다.²⁴ ‘하나님 나라’의 사상에서 정의되는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집, 제도, 사업체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유기적 공동체이다. 본회퍼의 입장에서 볼 때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하나님나라 공동체는 자칫 조수같이 밀려들어올 수 있는 세상적 현상들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히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적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3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3.1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본회퍼의 교회론에 대한 듀마의 평가대로, 교회는 그것이 이미 중재적 그리스도이든지 혹은 그를 향한 이상적인 설정이기보다는, 이미 사역하고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자체가 어야 한다.²⁵ 교회를 말함에 있어서의 기준은 무엇보다 성서에 두어야 한다. 신약성서에서의 교회에 대한 표현을 유념한다면, 사도들이 이해한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사권이 있는 교회로서 보았다.²⁶

본회퍼는 자신의 *나를 따르라*에서 마태복음 5-7장을 근거로 “산상수훈”을 해석한 바 있다. 제자들이 예수의 교훈을 들으며 둘러선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은 “그들 자신도 조금 전에 속해 있던 백성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떼, 바로 하나님의 부름 받은 백성의 교회”²⁷로서 바라보았다. 그들 역시 그리스도를 뒤따르며 이 백성에 속하고 살며, 그들 속에서 부름과 따름의 영

²² Leonardo Boff, *Holy Trinity, Perfect Community*, trans. Phillip Berryman (New York: Orbis Books, 2000), 65.

²³ Geoffrey B. Kelly, *Liberating Faith: Bonhoeffer's Message for Today*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4), 90. 하나님나라 공동체의 또 다른 특성은, 하나님의 최종 계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이며, 하나님께서는 신뢰하는 당신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하나님자신을 제한적으로 계시하신다는 것이다.

²⁴ 이신건, *칼 바르트의 교회론* (서울: 한들출판사, 2000), 55.

²⁵ Andre Dumas, *Dietrich Bonhoeffer: Theologian of Reality* (London: SCM Press Ltd, 1971), 84.

²⁶ 이문균, *신앙과 삶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알아보기*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5), 331.

²⁷ D. 본회퍼, *나를 따르라*(*The cost of Discipleship*), 허혁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5), 87.

광을 전하는 제자들이었던 것이다.²⁸

본회퍼 신학의 여러 국면에서처럼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개성적인 교회를 본회퍼는 표명하고 있다. 그리스도안에 있는 그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그 자체로 ‘신적 계시의 증보자가 되는 어떤 가능성을 위한 기초’이며,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의 관계성이²⁹ 본회퍼가 바라보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이다. 또한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과 화해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일이 진실하게 증거되고 생각되는 장소인데,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증거하는 그 곳이다.³⁰ 그는 이러한 교회야말로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이고, 이런 교회가 될 때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3.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본회퍼가 생각하고 추구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특성은 개인이 아닌 다수에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드러내거나 나타내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밝힌 바는 특히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영광 추구를 나타낸 것이 분명해진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목한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

첫째, 본회퍼는 자신의 저서인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자신과 함께 공동생활을 해온 ‘형제의 집’ 식구들을 위한 조언을 하면서 ‘혀의 굴레를 씌우라’는 성서의 비유를 들어 말을 조심하여 말에 실수가 없는 생활이야말로 빛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체험케 되는 자유라고 찬양을 하고 있다.³¹ 두 번째로, 본회퍼는 우리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요한복음 5:44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함 받음을 믿고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이웃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가 곧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라고 경계하였다.³² 본회퍼의 이론은 곧 공동체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조심하여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생활이 중요하며,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가 주님의 사랑”(롬 14:7-8) 이라는 성서의 교훈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신자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세 번째, 본회퍼가 추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편은 성스러운 가정공동체에서 찾고 있다. 본회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한 결혼의 기초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면서 성서의 말씀을 제시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

²⁸ Ibid.

²⁹ Kelly, *Liberating Faith*, 87-8.

³⁰ 본회퍼, *기독교윤리*, 173.

³¹ 본회퍼, *신도의 공동생활*, 118.

³² Ibid., 121-2.

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롬 15:7). 본회퍼는 결혼의 성립에 있어서 무엇보다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³³ 결혼하는 첫 날부터 앞의 성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것이 끝날까지 해야 할 부부의 사명이다. 이를 위해 서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서로를 용서하여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제도와 축복된 가정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³⁴이라고 본회퍼는 역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회퍼가 주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 부활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 살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할 자격이 부여되고, 예수 같은 인간이 산 일이 있을 때이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알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도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하고 허무할 수 밖에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³⁵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본회퍼는 개인적으로는 덕 있는 생활과 자신을 부인하는 겸비한 삶이 중요하고 부부의 관계를 중시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을 통해서 함께 하는 교회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치와 영광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가 된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던 본회퍼의 주장은 실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의 런던목회사역에서도 입증되는바, 힘든 중에도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데서도 찾아 볼 수 있다.³⁶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많은 이유들이 있으며, 신학자들은 그 어느 것이나 증명할 수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당신의 증언을 새롭게 주셨는가에 달려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³⁷ 본회퍼는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과 본분을 되새기며 영국에서의 체류기간 동안에도 자신의 목회사역과 독일의 상황을 서방세계에 알리는 일에 힘을 다했는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음을 훗날 고백하고 있다.

4 본회퍼가 추구한 참 교회의 모습

본회퍼의 교회론의 구성내용을 요약하면 ‘타자를 위한 교회’, ‘역사의 중심에서 성령이

³³ 베트게, *디트리히 본회퍼의 옥중서간*, 45-6.

³⁴ *Ibid.*, 46.

³⁵ *Ibid.*, 234-5.

³⁶ E. Metaxas, *Bonhoeffer: Pastor, Martyr, Prophet, SPY* (Nashville, Tennessee: Thomas Nelson, 2010), 200.

³⁷ Ernst Feil, *The theology of Dietrich Bonhoeffer*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21.

활동하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나라의 교회’인데, 이들 교회론의 이론을 통해 그가 본론적으로 추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 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살아 있는 증거가 있을 때 드러난다고 역설했다.

4.1 참 교회의 성격

켈리는 교회에 대한 본회퍼의 깊은 관점을 상기시키면서, “이와 같이 내적인 교회의 개혁을 위한 본회퍼의 열심을 불태운 교회의 그리스도적 사명감의 감각과 나찌정권의 위기의 기간 동안 정치적 강압에 대한 본회퍼의 저항의 결정은 그가 구체적인 행동을 위하여 그렇게 쉽게 움직였던 실용주의와 함께 혼합된 교회에 대한 본회퍼의 초기관념론적인 이해로부터 나온 자연적인 전개였다”³⁸고 평가하면서, “본회퍼의 가장 초기에 발표된 작업에 있어서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합된 신자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현존으로서의 교회를 묘사했다. 그러나 본회퍼는 또한 교회의 통치적인 성격을 강조했다. 교회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죄인들로 구성된 사회적 공동체이고 그러므로, 끊임없이 개혁의 요구 속에 있다”³⁹고 논평하였다.

본회퍼는 교회에 대하여 빈번히 말했고, 그가 떠나기 전에 미리 준비했던 신문에서 그가 스웨덴인과 덴마크인 회중(교회)에 대하여 말했던 많은 내용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능케 하는 ‘가시적 교회’에 대해 언급했다.⁴⁰ 본회퍼는 구약의 교회 또한 신약교회와 대동소이 하다고 하면서 신약과 구약이 교회로서 하나요 그 교회를 소명하심과 신앙 역시 한 말씀 안에서 하나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교회는 공동체로 표기되었고, 또한 약속 안에서의 고대교회임과 동시에 도래하는 성령의 교회가 신약의 교회인 것이다.⁴¹ 결국 본회퍼의 이러한 생각들 속에는 ‘참 교회의 성격’에 대한 그의 이상과 함께 남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교회본질의 내면에 대한 그의 간절한 염원이 표출되어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4.2 참 교회의 교회론적 본질

갓시는 본회퍼가 말한 교회의 본질에 대해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 속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을 통해 그는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당신의 통치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실현시킨다. 설교의 직책을 지면서 또한 설교 말씀을 듣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함으로서 개별자는 예배를 위해 모이도록 감화를 받는다.”⁴²고

³⁸ Kelly, *Liberating Faith; Bonhoeffer's Message for Today*, 87.

³⁹ Ibid.

⁴⁰ D. Bonhoeffer, *The Way to Freedom: Letters lectures and Notes from the collected works*, vol. II, trans. Edwin H. Robertson and John Bowden (London: Collins, St James's Place, 1966), 42.

⁴¹ Ibid., 45.

⁴² 갓시, *디트리히 본회퍼의 신학*, 55.

주장했다.

또한 듀마는 그의 책에서 본회퍼가 보았던 교회의 관점에 대하여 “교회는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리권이 있는 장소이며, 세계를 향하여 서로간에 믿는 자들의 대리권을 통하여 충만해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되어지는 것을 의미했던 것으로서의 세상이고, 그 세상은 자체의 진실한 중심을 따라서 구성된 장소”⁴³라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에 대한 본회퍼의 흥미가 그리스도론적 현실주의를 위해 교회가 자라나는 시점, 혹은 존재하는 경험적 교회들의 실패나 단점들에 대한 두려움이 싹트는 시점으로부터였음을 본다.⁴⁴

그런은 본회퍼가 생각한 그리스도의 사회성에 대하여 본회퍼의 논쟁이상 더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교회이며, 또한 교회는 신학적인 관점으로부터 분석될 때 구별되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⁴⁵고 분석하였다. 이는 본회퍼가 말한 대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연관되는 내용으로서 본회퍼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명백히 규제되지 않은 이래로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을 때 그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오직 생명 있는 사실에 존재한다고 할 ...교회활동의 전환점 혹은 생명력 있는 개인적 경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⁴⁶라고 물었다.

본회퍼의 *성도의 교제*는 그 사회의 변증법적인 직면을 시도한다. ‘그리스도인 신앙을 위한 교회와 역사 속에서 발견된 교회론적인 규정들을 변화시키는 것 사이의 상관성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는 *성도의 교제*의 중심문제이다.⁴⁷ ‘교회와 함께 출발하고 교회로부터 발산하는 것’이 교회론에 관한 본회퍼의 신학이라고 할 때, 본회퍼가 시도했던 것은 신학적으로 적절할 뿐 아니라 신학적으로 잘 구성되어야 하는 교회를 통한 실재로의 접근이었다. 그와 함께 그는 신학적 작업의 핵심이자 전제조건이며 주제인 것이 바로 ‘교회’라고 강조했다.⁴⁸

한편, 하우어워즈(S. Hauerwas)는 본회퍼의 사회론적 교회관의 부각을 위해 일생을 다해 수고한 베트게의 전적을 치하하면서 “우리는 본회퍼의 생애에 대한 중요한 윤곽들을 알고 있다... 내가 선택한 것은, 교회를 위한 그의 열정을 제시하는 본회퍼의 삶의 국면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⁴⁹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본회퍼가 주시한 교회론적 본질은 그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른 것에서도

⁴³ Dumas, *Dietrich Bonhoeffer*, 82.

⁴⁴ *Ibid.*, 84. 본회퍼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것이 중재적 그리스도이든지 혹은 그를 향해 이상적이고 불충분하게 돌아선 설정이기보다는, 이미 사역하고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이다.

⁴⁵ C. J. Green, *The Sociality of Christ and Humanity: Dietrich Bonhoeffer's Early Theology, 1927-1933* (Michigan: A Xerox Company, 1972), 150.

⁴⁶ D. Bonhoeffer, *A Testament to Freedom*, Ed., G. B. Kelly and F. Burton Nelson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1995), 85.

⁴⁷ Martin E. Marty, *The Place of Bonhoeffer: Problems and Possibilities in His Thought* (London: SCM press Ltd., 1962), 57.

⁴⁸ Ernst Feil, *The Theology of Dietrich Bonhoeffer*, trans. Martin Rumscheid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61.

⁴⁹ Stanley Hauerwas, *Performing the Faith: Bonhoeffer and the Practice of Nonviolence* (Michigan: Brazos Press Publishers, 2004), 37.

알 수 있듯이 사회론적인 교회관을 제시하고 있다. 교회의 구성원은 주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이며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고 이 땅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신 교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는 세상 안에서 ‘성인된 세상’과 함께 공존하며 그들 안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

4.3 종말론적 구원의 공동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야말로 제자들에게 있어 결정적인 사건으로 각인되었고, 어떤 상상이나 맹목적 믿음으로서가 아니고 진정 살아있는 자의 실제적 체험에서 출발한 것이 교회이며, 이제는 추측과 의심대신 확신과 고백만이 있게 되었다.⁵⁰ 그들이 형성했던 공동체는 구약성서의 종말론적 칭호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으로, 이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 사용하며 지금 흩어져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는 기점으로 응용되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는 뜻의 헬라어로 통하는 바, 오늘날 “교회”라는 줄임 말로서 통용된다.⁵¹

본회퍼의 신학적 기여는 자신의 *나를 따르라*에서 예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순종-그리스도의 은혜의 지배-에 대해 이렇게 역설했다. “그리스도의 부름에 대한 행동적 대답의 직접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유일한 근거로 가진 때문이다. 이는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권위가 부른 것이며 이 부름은 권세적이었다... 예수를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그의 말씀만이 지배할 수 있는 자세가 만들어져야 한다.”⁵² 본회퍼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있는 교회의 위치는 오히려 그 승리의 역사 뒤에서 더욱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이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연관성이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있다.

본회퍼는 이를 우리 대신 만민 앞에서 죄인의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며 그분의 수치는 바로 우리의 구원과 연관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⁵³이라고 했다. 이러한 본회퍼의 확실성은 명백한 것으로 그는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구원의 공동체를 위한 사명에 집중한 것이다.⁵⁴ 본회퍼가 주장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이처럼 맹목적 지배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위해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실제적 능력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세력보다 강한 부활의 능력을 통한 종말론적 구원의 공동체로서 완성되어짐을 강조한 것이다.

⁵⁰ 쾨링, *교회*, 106-7.

⁵¹ Ibid., 108.

⁵² D. 본회퍼, *나를 따르라*, 허혁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5), 39, 45.

⁵³ 본회퍼, *신도의 공동생활*, 147.

⁵⁴ Ronald. G. Smith, ed., *World Come of Age: A Symposium on Dietrich Bonhoeffer* (London: Collins, 1967), 222.

5 결론

본회퍼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현존이신 것과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현존이다. 이는 신약은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라는 계시의 형태를 알고 있다는 의미”⁵⁵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회학적 현상과의 관계”⁵⁶를 주요 관심사로 삼았다.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그의 몸 안에서 새 인류(New Humanity)를 조성하시려고 옛 인류의 죄책과 죄를 담당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독특한 교제로서, 단절된 교제를 회복하며 대리의 생명-원리(life-principle)에 입각한 사랑의 교제를 창설한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적 행동인 것이다.⁵⁷

루터의 표현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통해 서로에게 작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루어 가는 것은 공동체 내의 교제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행위로서 서로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과 헌신의 사역을 위한 목적의 수단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인간을 당신의 것으로 강조하신 이유이다.

부활하신 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부활을 뚜렷이 기억하며 알고 있는 교회는 세상 마지막 날까지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함께 오실 살아계신 주를 고대한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지배아래 있게 될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지배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이며, 말씀선포와 세례 그리고 성만찬 가운데서 전 세계를 은밀한 방법으로 지배하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지배아래 있게 될 것이다.⁵⁸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연관성을 잘 나타내 주는 사실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입증된다. 종말론적 구원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은혜아래 머무르며 살 때 그 역할을 바로 감당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럴 때 당신의 공동체가 은혜롭게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미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가 배워야 할 사실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갈구했던 본회퍼의 신앙사상이다.

교회의 사회화와 그리스도교의 개혁의지는 결코 앉아있는 상태에서 외쳐댄다고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회가 개인구원과 영혼구원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교회 자체의 사회적 책임문제에 소홀한 것은 하나님나라 운동의 본래의 의미와 맞지 않는 것이다. 미래사회를 위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는 일은 현대교회의 중요한 과

⁵⁵ 갓시, *디트리히 본회퍼의 신학*, 315.

⁵⁶ Ibid.

⁵⁷ Ibid.

⁵⁸ 쾨링, *교회*, 128-9.

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본회퍼의 교회론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상이다.

참고문헌

- 갓시, 존 D. *디트리히 본회퍼의 신학*. 유석성, 김성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김균진. *역사의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오늘의 그리스도론*.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9.
- 김형근. *본회퍼의 영성*. 서울: 넷북스, 2010.
- 남기철. *현대신학해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몰트만, 위르겐.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박봉량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3.
- _____. *기독교윤리*. 손규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4.
- 박봉량. *그리스도교의 비종교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_____. *나를 따르라(The cost of Discipleship)*. 허혁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5.
- _____. *신도의 공동생활(Life Together)*. 문익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베트게, E. *디트리히 본회퍼의 옥중서간*. 고범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 유석성. “본회퍼와 한국교회론,” *호주한인기독교연구소* 16 (2011년 11월).
- _____. *현대신학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신학자* 28.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이문균. *신앙과 삶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알아보기*.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5.
- 이신건. *칼바르트의 교회론*. 서울: 한들출판사, 2000.
- 퀸, 한스. *교회*. 서울: 한들출판사, 2007.
- Bonhoeffer, Dietrich. *A Testament to Freedom*. Edited by G. B. Kelly and F. Burton Nelson.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1995.
- _____. *Modern Theology*. London: Epworth Press, 1973.
- _____. *The Way to Freedom: Letters lectures and Notes from the collected works*. Volume II. Translated by Edwin H. Robertson and John Bowden. London: Collins, St James's Place, 1966.
- Bethge, E. *Bonhoeffer: Exile and Martyr*. Translated by John W. De Gruchy. London: Collins, 1975.
- Boff, Leonardo. *Holy Trinity, Perfect Community*. Translated by Phillip Berryman. New York: Orbis Books, 2000.
- Dumas, Andre. *Dietrich Bonhoeffer: Theologian of Reality*. London: SCM Press Ltd., 1971.
- Fant, Clyde E. *Bonhoeffer: Wordly Preaching*. New York: Thomas Nelson Inc., 1975.
- Feil, Ernst. *The Theology of Dietrich Bonhoeffer*. Translated by Martin Rumscheid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 Green, C. J. *The Sociality of Christ and Humanity: Dietrich Bonhoeffer's Early Theology, 1927-1933*. Michigan: A Xerox company, 1972.
- Hauerwas, Stanley. *Performing the Faith: Bonhoeffer and the Practice of Nonviolence*. Michigan: Brazos Press Publishers, 2004.

- Kelly, Geoffrey B. *Liberating Faith: Bonhoeffer's Message for Today*.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4.
- Lacoste, Jean-Yves, ed. *Encyclopedia of Christian Theology: Volume1, A-F*. New York: Routledge Publisher, 2005.
- Marty, Martin E. *The Place of Bonhoeffer: Problems and Possibilities in His Thought*. London: SCM Press Ltd., 1962.
- Metaxas, E. *Bonhoeffer: Pastor, Martyr, Prophet, SPY*. Nashville, Tennessee: Thomas Nelson, 2010.
- Smith, Ronald G., ed. *World Come of Age: A Symposium on Dietrich Bonhoeffer*. London: Collins, 1967.

21세기 한국 교회 예배 갱신의 방향: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의 갈등을 넘어서

이승학

Alphacrucis College 교수

- 1 들어가는 말
- 2 예배의 신학적 이해
- 3 현대 문화와 예배: 예배 갱신을 요청하는 시대적 정황
- 4 현대의 예배 갱신 운동
- 5 한국교회 열린 예배에 대한 고찰
- 6 이십 일세기 한국교회 예배 갱신의 방향
- 7 나가는 말

초록(Abstract)

우리 앞에 열려 있는 21세기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가 될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사회와 문화는 변하고, 사람과 그들의 관심사도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면 개인과 사회는 물론 교회도 영향력을 존속하기 힘들 것이다. 기독교 예배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예배, 좀더 좋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예배를 살아 있는 영적 아름다움을 가진 예전으로 갱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 예배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다. 예배는 우리에게(to) 베풀어지거나 우리를 위해(for)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의해서(by) 드려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주체는 인간이다. 인간의 영적 표현 방식은 반드시 문화와 불가분리의 관계를 갖는다. 한국인은 한국인의 언어와 정서로 예배드릴 때 가장 효과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으며, 현대인은 현대적 방식으로 예배드릴 때 그의 마음을 가장 잘 표출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문화 방식이 공존한다면, 예배에도 그러한 현실이 반영되어야 한다.

예배학자 마르바 던(Marva J. Dawn)은 예배란 세상적으로 보면 ‘전적인 시간 낭비’이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무한의 위엄 가운데 ‘전적인 잠입’(a total immersion)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낭비’(royal waste of time)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드리는 예배 순서 모두를 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거룩한 낭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예배 부흥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해 본다.

주제어(Keywords)

예배와 신학, 한국교회와 예배, 전통 예배, 열린 예배, 예배 갱신

1 들어가는 말

한국 교회는 모이기에 열심인 교회일 뿐 아니라 예배 드리기에 열심인 교회이다. 이러한 열심은 주일 낮 예배, 오후 혹은 저녁 예배, 수요일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다양한 예배 모임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목회의 현장에서 교회의 예배에 대한 갱신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전통적인 스타일의 예배에 만족하였고 문제를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치열한 산업 경쟁 사회로 진입하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예배에 불만이 표출되었다. 급변하는 현대 문화 속에서 교회의 예배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각성이 대두된 것이다. 그리하여 예배 갱신, 예배 개혁, 혹은 예배 회복을 추구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그에 따른 예배의 변화가 한국 교회에도 선풍처럼 번져왔다.

목회 현장에서 붓물처럼 터져 나온 예배 갱신의 목소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¹ 첫째는 오늘날 예배가 현대인의 실존적인 필요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고, 둘째는 예배 문화가 현대 문화에 뒤지고 있다는 현실이며, 셋째는 대부분의 예배 청중들의 참여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예배 갱신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교회 안에는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예배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열린 예배’이다.

사실 오늘날 젊은 교인들은 더 이상 전통적 예배에서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예배 참석은 일종의 종교적 의무로 여겨지고 예배 시간은 예배 견디기로 변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특별한 체험이나 은혜도 받지 못하고 있다. 급성장하던 한국 교회는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주춤하더니 1990년대에 들어서자 정체 내지 퇴보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고 대중 문화가 그들에게 충분하고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구시대의 유물처럼 재미도 흥미도 없는 곳으로 비춰지고 있다.

대다수의 교인들에게 교회 생활이란 예배 참석이 전부이다. 이는 예배가 적용성(relevance)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던(post-modern) 시대에서 프리모던적(pre-modern) 예배는 문화 형식의 이질성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전달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²

그러나 이러한 예배 갱신의 주장에 맞서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들은 실존적이고 문화적인 응답에 기인한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님을 주장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현대적인 예배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난을 한다.

¹ 이동원, “예배갱신의 신학과 목회,” *목회와신학*(1994년 7월호): 306.

² 이정석, “예배와 문화”(교재, 풀러신학교한인목회학박사원, LA, 2005), 131.

예배란 신과 인간의 만남으로 예배의 궁극적 목적이 신의 흠향과 영광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 참석자들이 열정적 축제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납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면 결국 예배의 실패를 초래한다는 것이다.³

이처럼 예배에 대한 두 입장의 첨예한 대립은 지난 십수 년간 한국 교회 안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적지 않은 토론과 논쟁을 일으켰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다루겠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 열린 예배와 관련하여 일어난 논쟁에 대해 잠시 개략하자면, 열린 예배는 원래 미국에서 시도된 ‘구도자 예배’(Seeker Service)로서, 이를 수용할 당시 국내에서 인기를 끌었던 모 방송사의 ‘열린 음악회’의 이름을 빌어 사용한 것이 정착된 것이다.⁴ 열린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에서 새신자와 구도자들에게 다가가 드라마나 영상, 현대 음악을 사용해 예배를 드리자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열린 예배의 일차적 대상은 불신자로 보여진다.

논쟁의 핵심은 예배란 회심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행위인데, 어떻게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 갖는 행사에 ‘예배’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느냐 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논의는 나중에 다루어질 것이다. 그런 논쟁의 한복판에서 ‘구도자에 민감한 예배’(Seeker sensitive Service)인가 ‘구도자 중심의 예배’(Seeker targeted Service)인가를 놓고 또 한 차례 논쟁을 벌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도를 지나면서 이제 이런 논쟁도 많이 사라진 느낌이다.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소위 말하는 열린 예배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도 많은 부분에서 이 같은 형태의 예배가 다양하게 드러지고 있다. 젊은이들의 경우, 열린 예배라는 말로 울타리를 정해 주지 않아도 대부분의 예배자들이 열린 예배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한국교회는 다시금 흥미한 예배 개념을 재정의하고 열린 예배에 대해 가졌던 의문점들과 논쟁들을 명쾌하게 재정립하면서 성경적인 예배 갱신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사명을 안고 있다.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회중들의 요구에 응답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그런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예배의 본질만 강조한 나머지 예배 표현의 시대성을 무시한다면 결국 현대인들을 잃어버리기 십상이다.⁵ 그러므로 예배 갱신은 예배가 예배되게 함과 동시에 예배가 성도들의 필요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⁶

뿐만 아니라 특히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자란 신세대들이 교회의 주역으로 부각될 조만

³ Ibid.

⁴ 홍순석, “예배의 중심은 무엇인가,” *목회와신학* (2006년 1월호): 103.

⁵ 이동원, “예배갱신의 신학과 목회,” 307.

⁶ Ibid., 306.

간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 예배가 예배의 본질을 간직하면서도 자라나는 신세대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엄청난 변화의 시간들이 되어질 21세기, 교회가 어떻게 생명력 있는 예배를 계속할 것인가는 목회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요 가장 커다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예배가 침체되는 순간 교회는 침체되고, 예배가 소중히 여겨지는 순간, 교회는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귀중한 예배 본질과 유산을 간직하면서도 동시에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예배의 역동성(dynamic)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 건강하면 자연스레 성장하듯 교회도 건강하면 자연스레 성장한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배는 교회의 건강을 재는 온도계이다. 21세기 한국교회는 엄청난 세속화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향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산업과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중들의 관심과 혼을 앗아가 버리며, 전통적인 가치 체계를 벗어나 포스트모던 가치 체계로 나아가는 문화는 절대적 진리를 부인하며, 종교 다원주의와 해체주의적인 경향을 띠면서, 말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21세기 문화는 기독교 예배를 무력화시키는 특성이 있다. 한인 이민교회도 예외일 수 없다.

예배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이며, 예배의 약화는 교회의 약화를 의미한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건강한 예배 회복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일구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국교회가 직면한 실존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거나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모든 목회자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나는 이 보잘것없는 줄고를 통해 한국교회 예배 갱신의 방향을 고민함으로써 21세기 건강한 교회를 일구기 위한 예배 철학 혹은 예배 신학을 정립하고자 한다.

2 예배의 신학적 이해

대양을 향해하고 있는 배의 진로를 결정짓는 것은 그리 크지도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 놓여 있는 작은 키다. 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정해주고 바르게 나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학이다. 그러므로 신학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를 세우며 바로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학문이다. 신학의 분야에서도 어떻게 예배 드리며, 무엇을 예배하고, 왜 예배해야 하는가를 제시해 주는 것이 예배신학이다. 예배는 신학적인 행위이며, 초대교회 이래 예배는 신학을 형성해 왔고, 신학은 예배의 형성에 영향을 주어왔다. 이러한 점에서 21세기를 위한 예배의 틀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예배의 신학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2.1 예배의 원어적 개념⁷

신약에서 예배를 의미하는 용어로는 ‘프로스쿰네오’와 ‘라트레우오’가 사용되었다. 전자는 ‘예배하다’는 동사형이 60회, ‘예배하는 자’(proskunetes)라는 형태가 1회 나타난다.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오랜 향해 끝에 드디어 육지에 도착한 사람들이 땅의 신에게 경의를 표현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엎드려 땅에 입맞추는 행위를 묘사한다. 여기서 ‘고개를 숙인다,’ ‘절한다,’ 나아가 ‘입맞춘다’는 의미가 유래한다. 70인경에서는 구약에 사용된 히브리어 ‘샤카’를 이 단어로 번역하였는데, ‘머리 숙여 절한다’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며, 용례의 4분의 3이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데 사용되었다. 한편 요한복음 4:20-24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절하는 영적인 의미로 제시된다. 즉, 진정한 예배는 이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기를 낮추고 복종을 서약하는 겸비한 예배 자세와 헌신 행위를 의미한다. 이처럼 예배의 ‘프로스쿰네오’적 성격은 경외와 숭배, 그리고 자기 부정과 절대 복종의 서약이다.

한편 ‘라트레우오’라는 단어는 종(servant)을 의미하는 ‘라트리스’에서 왔으며, 따라서 종의 섬김과 봉사 행위를 가리킨다. 이 말이 성경에서는 특히 신에 대한 섬김으로 제한된다. 영어에서 예배를 ‘service’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근거한다. 구약의 ‘아바드’가 상응하는데, 대부분 제사로 신을 섬기는데 사용되었다(수 22:27). 신은 자기의 종들에게 구체적인 예배 행위를 요구한다. 출애굽기 3:12는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다고 말한다. 신명기 10:12이하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섬김이 삶에서 진실하게 수행되어야 함을 가르치는데, 이로서 예배가 의식과 생활의 두 면을 포함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나타낸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21회가 동사형으로, 그리고 5회가 명사형으로 사용되었는데, 의식과 생활에서의 예배라는 양면을 표현한다. ‘라트레이아’의 용례를 살펴보면, 3회는 구약의 제사와 연관된 예배이며, 요한복음 16:2는 유대인이 기독교인을 핍박하여 출교하고 처형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이해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로마서 12:1의 영적 예배에 사용되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영적 예배(logike latreia)는 구약적 예배를 완성하고 승화하는 예배의 결정적 형태이다. 예배의 ‘라트레우오’적 성격은 의식과 생활로 표현되는 섬김의 구체적 행위이다.

2.2 예배의 신학적 개념

예배란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반응이 실감나게 만나는 현장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근본 요소가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반응이다.⁸ 계시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며 응답이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⁷ 이정석, “예배와 문화,” 131-2 를 참조하라.

⁸ I. H. Marshall, *New Dictionary of Theology* (Downers Grove: IVP, 1988), s.v. “Worship.”

인간의 행동을 일컫는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즉 창조 세계(시 19:1)와 기록된 말씀(시 19:7)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요 1:18)와 성령(요 16:13)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⁹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과 부활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너무나 뚜렷한 계시이기에 구속 받은 인간들로부터 감격적인 응답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¹⁰ 이 둘은 예배의 두 측면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피터 브루너(Peter Bruner)는 ‘하나님의 봉사’(Gottesdienst)라는 의미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예배란 당신의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속의 대 드라마를 완성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예배의 출발점이다.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배설하신 잔치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전부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자기 주심’ 그리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계속해서 인간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것이 기독교의 예배이다.

이처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섬김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감격하여 드리는 인간의 섬김으로 예배는 완성되어진다. 따라서 예배란 하나님의 자기 주심과 창조의 은총 앞에 감격으로 응답하여 자기를 드리는 행위인 것이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설교로 나타난다면 그 응답의 반응으로 기도와 찬양과 헌금이 드러지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현대 신학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예배에 대한 두 가지 신학적 개념을 추가한다면, 예배란 메시야적 잔치이며 신과의 대면이다.¹¹ 몰트만은 예배를 ‘메시야적 잔치’로 이해했다. 그에게 있어서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상을 갱신하고 현재의 진행을 반성하며 그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일깨우는 메시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축하하는 ‘메시야적 잔치’(messianische Fest)이다. 반면 지오프리 웨인라이트(Geoffrey Wainwright)는 예배를 신의 대면으로 이해했다. 아직 그분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희미하게 만나는 현세에서 예배는 교제, 사역, 사랑을 나누는 신과의 대면이다.

예배는 분명 하나님 중심적어야 한다. 예배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며, 따라서 예배의 중심에는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 예배 형식은 전통적이냐 현대적이냐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기독교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임재다. 삼위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 나타나며, 믿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조명해 준다.¹²

⁹ Ibid.

¹⁰ Ibid.

¹¹ 이정석, “예배와 문화,” 134-5.

¹² Marshall, “Worship.”

2.3 예배란 무엇인가?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세 가지로 예배의 의미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 말에서 예배란 ‘예(禮)를 다하여 절한다’는 의미이듯이, 성경에서 예배는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그를 신뢰하며 섬긴다는 믿음의 표현이요, 신앙의 순종을 나타내는 행위이다.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한다(마 4:10; 요 4:21-24). 이러한 경배를 기독교는 예배 의식으로 표현하였고, 교회는 회중의 공적인 모임을 통하여 이러한 의식을 일련의 순서를 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기독교 예배는 이러한 예배 의식을 떠나 달리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서의 섬김을 표현할 방도를 갖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여기서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그를 섬기고 그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봉사의 신앙이 결여된 채 예배 의식만 드린다면 이는 결코 하나님이 열납하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로, 예배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삶 자체이다. 기독교 예배란 의식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예배는 의식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인들의 땅에서의 삶 전체가 예배라는 새로운 이해를 가져야 한다(롬 12:1-2). 그리스도인들은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섬기는 봉사자요 일꾼으로 부름 받았으며, 이러한 봉사는 언제나 세상과 이웃 안에서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세상과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그를 경배하는 의미를 가진다(고전 6:19-20).

셋째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場)이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게 된다. 물론 하나님과의 만남과 경험과 대화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일어나기에 중재와 형식을 필요로 하게 된다. ‘말씀’과 ‘성찬’은 역사적으로 기본적인 상징적인 중재 수단이었다.

3 현대 문화와 예배: 예배 갱신을 요청하는 시대적 정황

3.1 급변하는 현대 문화

현대 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엘빈 토플러가 예측한 대로, 세상은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그리고 정보화 사회로 치닫고 있다.¹³ 최근 미디어간의 결합은 대단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 컴퓨터와 유선 전화에 이어 컴퓨터와 무선 전화의 결합 그리고 컴퓨터와 텔레비전의 결합은 인간이 초월할 수 없었던 시간과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면서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

¹³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 정해근 역 (서울: 도서출판 정암, 1989), 85-90.

양식을 크게 바꿔놓고 있다.¹⁴ 사회가 변하면 사람들의 사고 체계도 바뀌기 마련이다. 전통적인 가치로 여겨졌던 것들은 거센 공격에 직면하고 사람들은 점점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가르침에 고개를 돌린다.

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이미 현대 문화의 영향으로 교회의 예배는 그 전통적 유산이 해체되고 창조적으로 재구성되는 진통을 앓고 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초기만 해도 교회 문화가 사회 문화를 앞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현대 문화가 교회 문화를 뛰어넘은 것은 이미 오래 되었다. 단적으로 예배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예배는 하나의 문화인 동시에 동시대의 문화적 요소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그 시대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고 예배 가운데서 그 시대의 특징 있는 문화적 요소들을 볼 수가 있다.¹⁵ 지금 한국 교회는 전통적인 스타일의 예배가 신세대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예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몸부림치고 있다. 무엇보다 기존의 강단과 청중석으로 이원화된 예배 공간을 과감히 바꾸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현대적인 무대식 예배 공간으로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화와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많은 비용을 멀티미디어 설비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투자한다. 또한 대중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배에 대중적인 음악 이외에도 연극이나 무용 등의 예술적 장르를 도입하는 시도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신세대의 출현에 따라 그들의 독창적 문화를 읽어야 한다. 그들의 문화를 예배에 반영함으로써 신세대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색하지 않고 편안한 느낌을 갖도록 해야 한다.¹⁶ 새로운 문화 형태와 소비 형태를 구축한 신세대는 사이버 시대의 세대들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자연스러움을 좋아하는 경향이다.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신세대는 캐주얼(casual)한 예배를 즐긴다. 현대 문화의 중심에 있는 그들에게 딱딱하고 기계적인 예배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질 못한다. 따라서 예배는 문화를 선도하고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예배와 더불어 현대 문화에 발맞추는 또 하나의 예로 그 형식과 모습들이 변화되어진 예배의 틀이 고려되어야 한다.

3.2 교회 성장의 둔화

한국 교회의 성장은 과거에서 역사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교회 성장이 정체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1990년대 들어와서는 급기야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말았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¹⁴ 김정원, “21 세기 예배갱신 방향에 관한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신학대학원, 2005), 16.

¹⁵ Ibid.

¹⁶ Ibid., 17.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 예배의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면 예배의 실패가 교회 성장의 둔화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배의 위기는 곧 교회 성장의 위기이다. 한국 교회를 주도하고 있는 전통적인 예배 형식은 예배 감격이 사라진 교인을 만들고 있다. 형식과 전통에 짓눌려서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교인들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사라진 교인들은 사회에서도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고스란히 따르는 교인들은 더 이상 예배에서 생명력을 수혈 받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교인의 교회 이탈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예배학자 마르바 던(Marva J. Dawn)은 변화하는 시대의 문화를 조명하면서 오늘의 문화가 모든 것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독교의 예배가 그러한 문화적인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¹⁷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문화 사회적인 변혁의 물결은 예배와 설교 사역을 무기력하게 하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 향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산업(the entertainment industry)과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중들의 관심과 혼을 앗아가 버리며, 전통적인 가치 체계를 벗어나 포스트모던 가치체계로 나아가는 문화는 절대적 진리를 부인하며, 종교 다원주의와 해체주의적인 경향을 띠면서, 말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의 위상과 영향력도 달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교회는 퇴락해 가고 있다.

데이빗 바레트(David Barrett)가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 제출한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유럽과 북미의 교회에서 1년에 2,765,100명의 예배 출석자들이 크리스천이기를 포기를 했다고 한다. 평균적으로 매일 7,600명의 사람들이, 매주 5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며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¹⁸ 이것이 한때 복음의 깊은 영향력을 가졌던 제 1세계 교회의 이야기라면, 제 3세계의 군에 속하는 한국교회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단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루 빨리 교회는 예배의 영광을 회복해야 한다. 다시금 가슴 저미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분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예배의 갱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배의 갱신이야말로 조국 교회 성장에 근간이 될 것이다.

4 현대의 예배 갱신 운동

¹⁷ 김운용,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새천년 한국교회예배,” 장신대 예배설교학 홈페이지, <http://www.acha.pcts.ac.kr/~uykim> (2018년 3월 접속).

¹⁸ Ibid.

예배는 끊임없이 변한다. 예배는 영원하시고 불가시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배자의 생각과 정서와 문화라는 가시적인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면 그에 따라 예배도 변화하게 된다. 2천년 예배의 역사는 이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기독교 전통 예배는 변화의 도전에 직면하였다. 산업 혁명으로 인한 현대 사회의 근본적 변화와 기독교의 세속화는 교회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과연 기독교가 미래에 존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와 우려를 초래하였다. 그 와중에서 기독교의 존속과 발전을 추구하는 다양한 운동들은 다양한 예배 갱신 운동을 발생시켰다. 본 장에서는 20세기에 일어난 예배 갱신 운동을 회고하면서 21세기 한국교회의 새로운 예배 형태로 부각한 열린 예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4.1 전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경향: 예전복고운동(Liturgical Renewal Movement)

예전복고운동은 초대교회의 전통을 나름대로 밝혀내고 그 시기의 내용과 유형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경향이다. 예전복고운동은 예배 안에서 성례전적 기능을 회복하거나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개신교에서 예배가 너무 인지적(cognitive) 측면에만 기울어 설교만이 예배의 전부인 양 이해될 만큼 예배가 지성화(知性化) 되어졌던 것을 반성하고 성례전적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¹⁹ 이러한 경향을 더욱 고무시킨 것은 윌리엄 맥스웰(William Maxwell)이나 데이비스(G. J. Davies) 등의 연구의 결과에 힘입은 바 크다.²⁰ 흥미로운 것은 개신교회가 성례전적 예배의 기능을 회복 내지 강화해 가는 것에 비해 로마카톨릭의 경우는 예배에서 말씀의 기능을 더욱 균형 있게 강화하려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예전복고운동은 초교파적으로 현대 예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20세기 후반 각 교단들이 예배 예식서를 개정하게 된 것은 이 운동의 결실이다. 이 운동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전복고운동은 교회로 하여금 초대교회의 예배적 삶을 발견하고 그 정신을 현대 교회의 예배에 회복하도록 촉구하였다.²¹ 초대교회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되기 이전이고, 더욱이 로마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태동하기 훨씬 이전이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현대 교회의 예배가 상실한 많은 유산들을 간직하고 있는데, 부활의 기쁨과 감격, 하나님 나라의 경험, 주님과 의 교제, 말씀과 성례전의 균형 등이다. 초대교회의 예배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회복은 주로 금세기에 활발히 진행된 초대교회의 집중적인 연구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는데, 교회일치를 추구하는

¹⁹ 김순환, “한국교회를 위한 예배신학적 재고와 방향,” *일립논총* (2001). 이 논문이 실려 있는 사이버설교대학원 다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라: http://www.wpa.or.kr/academy_bbs/view.asp.

²⁰ Ibid.

²¹ 조기연, *예배 갱신의 신학과 실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제 6 장 “최근 예배학의 동향과 전망.” idem, “최근 예배학의 동향과 전망,” 사이버설교대학원 홈페이지, http://www.wpa.or.kr/academy_bbs/view.asp 에서 재인용.

현대 에큐메니칼적인 관심에 의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둘째, 예전복고운동은 성직자 중심주의를 탈피하고 회중 참여의 확대를 제고하게 했다. 예배에서 회중은 더 이상 관중의 입장이 아니라 참여자의 입장에 서야 하며, 예배는 목사 혹은 사제만의 행위가 아니라 전 공동체적 행위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예배의 역동성을 가져왔으며, 이는 예배당 건축이나 실내 구조 그리고 성구의 배치 등 예배 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왔다.²²

셋째, 예전복고운동은 예배의 공동체성을 회복시켜 주었다. 산업사회의 대두로 말미암아 예배의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오로지 신자 개인의 영적 온도에만 관심을 가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예전 복고 운동은 신약에 나타난 교회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개념을 발견하고 이를 구체화시켜서 개교회의 예배 형식에 적용하도록 했다.²³ 그리하여 예배는 개인적 차원의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의 사건으로 인식되었다.

넷째, 예전복고운동은 성만찬의 중요성을 재발견하였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 성공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부정기적으로 성만찬을 거행해 왔다. 이들에게 있어서 성만찬은 정규 예배가 아니라 고작해야 1년에 서너 번 하는 행사로 여겨졌다. 이에 반하여 예전 복고 운동은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은 주님의 백성들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폭넓은 지지를 얻었으며, 그 결과 기존의 동방교회들과 로마카톨릭 교회는 물론, 루터교회와 성공회, 그리고 미국 장로교회나 미국 연합감리교회 등의 주류 개신교회들도 주일 정규 예배에서 매주일 성만찬을 거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었다. 특히 WCC의 BEM(세례, 성찬, 그리고 목회) 문서는 1982년 리마에서 채택되어 “리마 예식서”라고도 불리는데, 개신교회가 초대교회의 예배에 비추어볼 때 너무 성례전을 소홀히 하고 말씀에만 치우친 점을 반성하고 성례전의 회복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²⁴

마지막으로 예전복고운동은 각 교단들의 서로 다른 예배 전통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무관심해왔던 다른 예배 전통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서로에게서 배우려는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이게 했다.²⁵

이외에도 예전복고운동은 주제 설교보다는 성서 일과에 기초한 설교, 목회 사역에서 세례 예식의 중요성 발견, 예배와 내용이 일치하는 교회 음악의 선택과 사용, 예배당 공간에 있어서 성찬대를 중심으로 한 회중석의 배열, 회중들로 하여금 그때 그때마다 교회력 상의 시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색깔과 상징을 포함하는 장식 및 제의와 배너 등을 사용하는 것 등에 영향을 미쳤다.

²² Ibid.

²³ Ibid.

²⁴ 이정석, “예배와 문화,” 137.

²⁵ 조기연, “최근 예배학의 동향과 전망.”

4.2 경험주의적 예배를 강조하는 경향: 자유예배 운동

예배의 형식과 틀을 벗어나서 성령의 현재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경험주의적 예배 경향은 오순절 운동과 은사주의 운동을 통해 나타났다. 이 둘을 신학적으로 혹은 교회론적으로 엄격히 구분한다면 전자는 1901년을 기점으로 교단적 형성을 이루고 성령세례의 증거로서 방언을 중시하는 특징을 이루고 있는 반면,²⁶ 후자는 1960년대 교과를 초월하여 발생한 뒤 성령세례의 증거로서의 방언을 주장하는 입장에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며 또한 교단을 형성하기보다는 각 교회가 원래 소속된 교단에 남아있거나 혹은 독립 교회로 활동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 그룹이 성령의 현재적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통적이며 예배 의식이나 예배에 대한 정신에 있어서 상당히 흡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근자에는 이들 둘을 분리하기보다는 함께 묶어서 예배학적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경험주의적 예배 경향을 지향하는 자유예배 운동은 오늘날 예전복고운동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형식성을 배격하고 간략한 예배 형식을 추구하면서 경험적 측면을 크게 강조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오순절 운동이나 은사주의 운동은 일반적으로 예배의 구조가 비 형식적 특징을 지닌다. 전통으로 돌아가 예전성을 갖추고자 하는 예배 구조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면서 이런 예배가 자발성을 방해하고 성령의 현재적 역사와 지시를 따름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이들은 간략하고 자유로운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예배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가능케 하며 성령의 자유로운 활동에 따라 예배가 인도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제도화된 범위 안에서 구두(vabal) 혹은 몸에 의한(somatic) 자유로운 표현, 모든 성원들에 의한 참여, 성령의 은사를 장려하고 구사하는 것, 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직접 사역하신다는 기대 등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예배의 일반적 순서 중에 성령의 즉흥적인 개입에 의해서 잠시 중단되어 방언을 하거나 예언 등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주의적 예배 경향은 ‘제3의 물결’로 불리워지는 존 윌버의 빈야드 운동과 1990년대의 ‘토론토 블레싱’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특히 성령 운동과 교회 성장이라는 양대 열기에 휩싸인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오순절 및 은사주의적 예배 경향은 오늘날 주요 예배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교회

²⁶ 20 세기에 일어난 오순절 운동은 1901년 베델신학교 찰스 파햄(Charles Parham) 교장이 당시 학생이던 아그네스 오즈만(Agnes Ozman)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학생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운동이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은 1906년 4월 9일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보니브레 거리(Bonnie Brae Street)에서 개최된 한 기도회에서였다. 당시 기도는 흑인 설교자 세이모어(W.J. Seymour)가 인도하였는데, 이 때 ‘불이 내려오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참여하였던 사람들은 소위 성령 세례를 경험하였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일은 결국 ‘아주사 거리 전도 집회’(Azusa Street Mission)로 발전되었는데, 후일에 사람들은 이곳을 세계 오순절 운동의 발원지로 여기게 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J. W. Ward, *New Dictionary of Theology* (Downers Grove: IVP, 1988) s.v. “Pentecostalist Theology”와 조기연, *예배 갱신의 신학과 실제*, 211를 참조하라.

성장 추세에 있어서 타 교파들의 정체 혹은 퇴조에도 불구하고 이 진영은 가장 왕성하고 역동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1980년부터 1988년까지 미국 내 교파별 성장률은 그 세에 있어서 상위에 속한 남침례교가 9%, 루터교회가 0%, 미국장로교회가 -13% 등의 저조한 성장세를 나타낸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성회(Assemblies of God), 하나님의 교회(Church of God, TN) 등의 오순절 교단들은 각각 102%와 34% 등의 성장세를 나타내어 가히 대조를 이루었다.²⁷

한편 예전복고운동과 은사 운동이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면서도 몇 가지 점에서 서로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흥미롭다.²⁸ 예전복고운동과 은사 운동은 먼저 초대교회에 관심을 갖는다. 예전복고운동은 예배의 형태에 관한 자료로서 초대 교회에 관심하는 반면에, 은사 운동은 성령론적인 전거로서, 그리고 사교 방식 및 신앙 경험들에 대한 원천으로서 초대교회에 관심을 가진다.

두 번째 공통점은 예전복고운동과 은사운동이 공히 공동체 정신과 참여를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예전복고운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와 구성원 모두의 참여로서의 예배를 강조하는 한편, 은사 운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역동성과 개인 및 교회에 공히 임하시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강조한다.

또한 양자는 공히 예배와 삶에 있어서 성서의 권위를 회복하며, 성만찬을 강조하고, 예배 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친밀감이나 비공식적 측면을 중시하고, 예배가 참여자 개개인에게까지 다가가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한다는 점 등에 있어서 공통점을 지닌다.

4.3 동시대적 상황에 적응하려는 경향: 구도자 예배 운동

오늘날 예배를 동시대적 상황에 적응케 하여 예배의 목적과 효율을 동시에 얻고자하는 두드러진 예배 스타일은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구도자 예배(Seekers Service)-한국에서는 열린예배로 더 알려짐-라고 볼 수 있다. 구도자 예배는 빌 하이בל스(Bill Hybels) 목사가 1975년 미국 시카고 근교의 일리노이(Illinois)주의 남부 배링톤(South Barrington) 지역에 윌로우크릭 교회(Willow Creek Community Church)를 세우면서 시작되었다.²⁹

빌 하이בל스와 그의 동료들은 먼저 지역의 거주자들 중에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였고, 다음의 다섯 가지 결론을 도출해 내었다. 첫째, 교회는 언제나 돈(헌금)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둘째, 예배가 지루하고 생명력이 없다. 셋째, 예배가 매우 단조롭고 똑같은 것을 매번 반복한다. 넷째, 설교가 일상생활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다섯째, 예배에

²⁷ 김순환, “한국교회를 위한 예배신학적 재고와 방향.”

²⁸ 조기연, *예배 갱신의 신학과 실제*, 211.

²⁹ 정인교, “한국교회에서의 열린 예배에 관한 연구”(신학석사학위논문, 협성대학교신학대학원, 2004), 28.

참석하러 온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무지하다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결국 집에 돌아갈 때에는 교회에 들어올 때보다 더 참담한 심정이 되게 한다.³⁰

이러한 장애 요소들을 파악한 후에, 하이블스는 교회가 위치해 있는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특히 25세에서 50세까지의 연령층으로서 전문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비 기독교인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예배를 계획하기 시작하였다.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이 과거에 교회에서 얻은 부정적인 경험과 그들이 가진 교회에 대한 선입관 등을 제거할 수 있으며, 또 기독교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 끝에 다음과 같이 구도자 예배의 요소들을 결정하였다.³¹

첫째, 세계 복음화에 대한 성서의 명령을 현재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서부터 이루어 나간다는 믿음. 둘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열정. 그러므로 현대적이고도 창의적이 되려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 셋째, 구도자의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넷째, 구도자들이 신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데는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너무 조급하게 결과를 강요하지 말고 과정에 충실 한다. 다섯째, 모든 예배의 진행을 뛰어나게 하기 위한 필요성을 인식하며, 특히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점에 유의한다. 여섯째, 사람들은 교회가 자기들의 동기를 정직하고 성실하고 훌륭하게 다루어 줄 때 비로소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를 구도자들의 일상생활과 연결시켜서

³⁰ 불신자들의 눈으로 볼 때에 기존의 전통적인 예배는 용어와 분위기와 동작 등에 있어서 모두 낯설기 때문에 예배에 적응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다음 여섯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다. 1) 전통적 예배는 초신자들을 당황하게 한다. 예컨대 초신자들은 성경책이나 예배집을 사용할 줄 모르며, 또 언제 일어서고 언제 앉는지 알지 못한다. 2) 전통적 예배는 교회의 용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신자들은 이를 알아들을 수 없다. 예컨대 ‘사도신경’, ‘복음’, ‘사순절’ 등의 용어들이다. 초신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용어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으며 자기들과 관계없는 말들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다음에 또 참석할 마음이 사라진다. 3) 전통적 예배는 실제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면 목사가 입고 있는 가운은 실제 생활에서는 전혀 입지 않는 것이며, 교회에서 사용되는 다른 상징이나 몸짓들도 비기독교인의 이성적인 사고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다. 4) 전통적 예배에서 불려지는 노래는 따라 부르기가 어렵다. 그래서 찬송 시간에 초신자들은 멍청하게 앉아있는 경우가 많다. 5) 전통적 예배는 고전 음악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미국 음반시장에서 팔리는 고전 음악의 비중은 단 2%에 지나지 않는데 이는 고전 음악을 듣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특히 1946년 이후에 출생한 세대들은 음악적 취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현대 음악을 선호한다. 록큰롤(rock and roll) 등 현대 음악이야말로 오늘날 세대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음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단지 2%의 인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고전 음악을 강조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6) 전통적 예배는 친밀감이 떨어진다. 예전적 예배는 본질적으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또한 예배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더 강조한다. 이러한 예배에서는 친밀감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의 예배당은 대화보다는 침묵과 명상이 더 지배한다. 높고 아치 형태로 된 천장과 예전적으로 디자인된 예배당 구조와 장식물들은 차갑고 비인격적인 것으로 보인다. 의자의 배열은 다른 예배자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이 오직 앞만 바라보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태의 예배당공간은 친밀감과 따뜻함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조기연, “열린예배의 예배학적 이해,” *신학과선교* 제 26 집 (2001): 287-303. idem, “열린예배의 예배학적 이해,” 사이버설교대학원 홈페이지, http://www.wpa.or.kr/academy_bbs/view.asp 에서 재인용.

³¹ 조기연, *예배 갱신의 신학과 실제*, 140-1.

복음을 제시하려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략들은 구체적이고도 세심하게 예배 현장에 적용되었다. 월로우크릭 교회의 예배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이러한 전략들을 반영하고 있다. 하나는 구도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느낄 수 있는 낯선 감정을 최대한 제거하려는 노력이다. 예컨대 교회당에 있는 일체의 기독교적 상징을 제거하고, 기독교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성례전도 실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도자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체의 예배행위가 인도자들에 의해서만 진행된다. 구도자들은 말하거나 행동할 필요가 없으며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된다.

월로우크릭 교회가 예배의 전략을 현장에 적용하려는 또 하나의 노력은 예배를 구도자들의 문화에 맞추려는 시도이다. 심지어는 예배당 건물의 외관이나 또는 내부를 구도자들의 취향에 맞게 설정하고 예배 중에 사용되는 음악도 구도자들의 취향에 맞도록 세심하게 배려한다. 매번 예배에서 드라마를 보여준다는지 또는 멀티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설교는 당연히 구도자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주제를 설정하여 접근하게 된다. 월로우크릭 예배의 기본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다. “밴드의 전주, 환영의 인사, 보컬 듀엣, 드라마, 보컬 그룹의 연주, 드라마, 성경봉독, 밴드가 곁들여진 노래, 헌금(이때에 구도자들은 헌금을 하지 말도록 광고한다), 메시지(설교), 토론 및 교제.”³²

이러한 예배 전략과 실행은 성공하여 결과적으로 월로우크릭 교회에 많은 부흥과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고 한국의 몇몇 교회들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타당한 검토를 거쳐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예배는 그 형식적인 면에서도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 예술과 드라마 등의 장르를 사용하고 예배의 주제도 가정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룬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물론 우리는 구도자예배에 대한 비판적 관찰도 간과할 수는 없다. 참여자들에게 흥미 있는 공연으로 예배에 대한 참여에의 관심을 높이는 긍정적인 점이 있는가 하면 회중을 관객의 위치로 전략시킨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참여한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교회의 회원이 되기까지 등록이나 결단을 강요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부담이나 거부감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절박성에 대해 안이한 시각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도자예배는 예배와 삶의 문제를 깊이 있게 연관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루하고 무미한 예배에 식상한 현대인들을 다시금 예배 속에 흡인키 위해 시도하는 전략과 기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도자 예배는 예배와 삶의 관련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예배의 주제가 우선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접하기 쉬운 주제들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배의 교육적 기능도 중요하지만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채, 교리 교육이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예배의 내용들만을 너무 무겁게 담기보다는

³² 조기연, “열린 예배의 예배학적 이해.”

생활 속에 일어나는 실존적 현실들을 다룸으로써 예배와 생활과의 연속선을 추구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다. 오늘의 예배가 그 형식이나 틀에서 구태를 보존하는 것을 능사로 알고, 또 과거의 문화나 역사의 배경에만 집착하여 그것의 설명으로 예배나 설교의 내용을 채우는 현실에 대해 이 구도자 예배는 오늘이라는 현실을 끝없이 염두에 두고 예배의 효율을 추구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4.4 예배 언어 개혁 운동

해방신학을 비롯한 행동 신학은 예배와 생활이 분리되어 있으며 예배 언어가 기독교 중심의 전통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예배 언어의 개혁을 시도하였다.³³ 권위적이고 고답적인 언어를 서민적이고 일상적인 언어로, 남성 중심적 언어를 포괄적 언어로,³⁴ 약자나 장애자를 비하하는 언어를 존중과 사랑의 언어로 바꾸고,³⁵ 예배 언어를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 변혁적인 언어로 변형시켜 예배가 단순히 형식과 의식에 치우치지 않고 공동체적 각성과 헌신의 계기가 되도록 만든다.

5 한국교회 열린 예배에 대한 고찰

5.1 한국교회의 새로운 시도: 열린 예배

열린 예배는 원래 미국의 윌로우크릭 커뮤니티 교회의 ‘구도자 예배’에서 온 것으로 1990년대 서울 온누리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에 소개되면서 파급되기 시작했다. ‘열린 예배’란 용어는 ‘구도자’라는 부자연스러운 번역 대신에 1990년대 초 한국 사회에 유행하던 ‘열린’이라는 단어로 의역한 것이다. 여기에는 교회 생활에 입문하여 아직 낯선 사람들이나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교회 생활과 기독교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돌봐주는 의미에서 폐쇄적이라기보다는 열려 있다는 뜻도 담겨져 있다.

열린예배나 윌로우크릭의 구도자 예배는 미국의 프론티어 예배에서 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론티어 예배란 19세기 초 미국의 인구가 동부에서 서부로 대이동을 시작하면서 발생한 예배로, 미국 개척 시기에 전통적인 교회 예배와 구조적인 신앙의 틀을 벗어나 자유로운 예배 형태를 추구하고 구령 운동에 초점을 두었다. 특별히 찰스 피니(Charles G. Finny)와 드와이트

³³ 이정석, “예배와 문화,” 137.

³⁴ 조기연, *예배 갱신의 신학과 실제*. 예컨대 전통적으로 영어권에서는 하나님을 대명사로 받을 때에 남성형 3 인칭 단수(He, Him, Himself)로 받았는데, 이것이 남성 중심의 언어라 하여, 최근에는 중립적 언어인 하나님(God, Godself)으로 대체되었다.

³⁵ Ibid. 예컨대 ‘절름발이’ ‘소경’ ‘귀머거리’ ‘병어리’ 등 해당자를 비하하는 용어는 ‘신체 장애인’ ‘시각 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 장애인’ 등으로 정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무디(Dwight L. Moody)를 중심으로 진행된 제2차 대각성 부흥운동은 프론티어 예배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³⁶

프론티어 예배의 특징은 기존의 예배 형식을 탈피하여 예배의 실용성을 강조한 데 있다. 예배의 시금석은 비기독교인들 가운데서 회심자를 생산해 내는 효율성에 있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결신하게 하며 결신의 표시로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프론티어 예배는 대체로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단계는 준비 단계로 찬송을 열정적으로 부른다. 두 번째 단계는 설교 시간으로 회개와 결신을 촉구하는 복음주의적 설교로 이루어진다. 마지막 단계는 초청의 시간으로 결신자들을 초청하는 시간이다.³⁷

프론티어 예배는 이후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로 그 명맥이 유지 발전되어 왔는데, 먼저 미국의 텔레비전 복음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이다. 텔레비전 복음전도자들은³⁸ 비기독교인들의 가정 속으로 침투하여 프론티어 예배 전통과 동일한 예배 구성을 사용한다. 프론티어 전통이 계승된 또 다른 형태는 바로 미국의 윌로우크릭 커뮤니티 교회나 새들백 교회가 행하고 있는 구도자 예배이다. 구도자 예배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로서, 자유로운 형식과 여러 가지 전자매체, 멀티 미디어, 음악, 드라마 등 다양한 문화적 도구들을 사용하여 행해지는 예배이다. 우리나라의 열린 예배는 바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있는 예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열린 예배의 도입과 보급은 최근 십 수 년 동안 한국교회 예배와 관련하여 일어난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강남의 몇몇 교회들을 주축으로 하여 도입된 이 예배는 마치 열풍처럼 전국 교회에 퍼져 많은 한국교회들의 예배를 바꾸어 놓았다. 예배당에 있어서 높고 접근이 불가능하던 강단들은 마치 연극 무대처럼 낮고 넓어졌으며, 강단 부분에는 드럼과 앰프, 그리고 기타와 신디사이저 등 온갖 종류의 악기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뿐만 아니다. 종래의 예배는 오직 성직자만이 강단에 올라갈 수 있었으나, 이제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강단에 올라가 각자 마이크를 하나씩 잡고 울동을 하면서 찬송을 하는가 하면, 때로는 강단에서 드라마나 단막극(skit) 또는 각종 발표회 등이 행해지는 일도 다반사가 되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에게는 이것이 현대 예배의 추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많은 목회자들이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고민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여기에 동참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고민 중에 있다.

최근 장신대 김운용 교수가 예배와 설교 현장 분석을 위해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³⁶ 정장복, *예배학 사전*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0), 678.

³⁷ James White, *개신교 예배(Protestant Worship)*, 김석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305. 나광현, “열린예배에 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장신대신학대학원, 1999)에서 재인용.

³⁸ 로버트 슈러(Robert Schuller), 제리 팔웰(Jerry Falwell), 오랄 로버츠(Oral Roberts), 지미 스와가트(Jimmy Swaggart), 팻 로버트슨(Pat Robertson) 등을 들 수 있다.

설문조사는 이런 흐름을 잘 반영해 준다.³⁹ 이 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 교인 60% 이상은 예배 갱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예배 갱신의 영역으로는 ‘예배순서의 개선’이나 ‘설교’ 또는 ‘찬양’에 비해 ‘예배에 대한 교인의 의식’이 가장 높은 비율(61.8%)로 나타나, 예배의 갱신의 내용이 단순한 형식의 변화나 소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 전체의 이해와 의식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33.8%가 ‘확실하게 느낀다’, 55.2%는 ‘가끔 느낀다’고 응답함으로써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한편 역동적 예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뜨거운 찬양과 음악’이라 응답한 비율이 54.2%로 ‘영감 있는 말씀’(37.2%)이란 응답보다 높게 나와 오늘날 찬양과 음악의 현대적 요소가 예배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별히 예배 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때로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라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응답되었으며 ‘설교를 통해서’는 25%에 불과, 설교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예배보다는 열린 예배와 같은 현대식 예배에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열린예배의 장점과 한국교회 내에서의 성과

5.2.1 열린예배의 장점⁴⁰

첫째, 예배의 모든 준비와 순서들이 일반 성도들보다는 구도자들에게 그 초점이 더 맞추어져 있다. 일체의 기독교적 상징이나 용어의 사용을 자제함으로 구도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느낄 수 있는 낯선 감정과 불편함을 최대한 제거하려고 노력함으로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

둘째, 교회의 복음 전도에 효과가 있으며 시대에 적합한 복음 전도 방식으로 고안된 예배라는 것이다. 비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상을 불식시킴으로써 교회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분위기를 연출해 낼 수 있음과 동시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열린예배는 예배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양육과 제자화라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노정의 한 단계라는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셋째, 예배를 구도자들의 문화에 맞추어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노력한다. 예배를 준비할 때 구도자들의 음악과 문화에 맞추어 세심하게 배려하며 설교 메시지의 내용과 주제도 역시 일상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다. 이 말은 교회가 그 동안 금기시해오던 세상의 문화를 도구로 사용하여 예배에 접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당 건물의 외관이나 또는 내부를 구도자들의 취향에 맞게 설정하고 매번 예배에서 드라마를 보여준다든지 또는 멀티미디어를 사용함으로써 구도자들의 관심을 예배 안으로 끌어들이는다.

넷째, 교회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조지 바너는 “미국에는 32만 5천여개의 개신교

³⁹ 김운용, “교인 60% 이상 예배갱신 필요,” *개혁신문*, 2005년 5월 4일자.

⁴⁰ 이건구, 같은 논문, 57-59.

교회, 1200개의 라디오 방송국, 300개의 기독교 TV 방송, 300개의 기독교 대학이 있다. 이들은 지난 8년 동안 25억 달러나 되는 비용을 국내 사역을 위해서 썼다. 그러나 미국에서 중생한 성인 그리스도인의 성장률은 0%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고 묻는다. 지난 1991년부터 1994년까지 미국에는 5000개의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었고 약 10억 달러를 사용했다. 하지만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40%에서 35%로 감소했다. 조지 바너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예배의 결함’에서 찾는다. 한 마디로 예배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 못했다는 것이다. 열린예배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안이다.

한국교회 내에서 열린예배를 통해 부흥한 대표적 교회로는 대한예수교장로교 합동측 오륜교회와 수년 전 사랑의교회에서 나와 개척한 나들목사랑의교회를 들 수 있다.⁴¹ 오륜교회는 부흥의 단초를 예배 갱신에서 찾고 열린예배에서 그 대안을 찾았다.⁴² 나들목사랑의교회는 주일예배의 초점을 찾는이(구도자)에 맞추고 있으며 기존 신자들의 영적 성장과 지원은 수요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⁴³

다섯째, 예배의 활력과 기쁨을 회복시키고 봉사의 기회를 확대시켰다. 예배학적인 면에서 열린예배는 기존 교회에서 희박했던 예배의 기쁨과 환희를 잔치적 성격으로 변환시켰다. 특히 평신도들이 적극적으로 예배 스태프로 참여함으로써 은사를 소유한 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했다. 기존 예배는 사실 엄숙한 분위기, 말과 행동 표현 및 감정의 조절, 고정된 순서 때문에 생동감을 상실했다. 열린예배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는 진지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의 표현, 간절히 간구하는 자세와 결단의 모습 등은 기존 예배에서는 분명 거의 없던 모습들이다.

여섯째, 예배의 중심성과 중요성의 강조이다. 전통적인 예배에서도 최우선의 자리가 있긴 했으나 열린 예배에서는 예배 인도자와 순서 맡은 이들은 물론이고 예배의 참여자까지도 예배를 위한 준비 기도회를 별도로 가지면서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기존 예배에서 회복해야 할 모습이다.

5.2.2 한국교회 내에서의 성과⁴⁴

첫째,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교회성장의 정체기의 주요인이던 청년층을 예배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함으로써 기존 교회들의 예배 변화에 대한 필요성에 동기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⁴¹ 이진형, “예배갱신의 흐름과 방향에 관한 고찰” (신학석사학위논문, 장신대학교학원, 2004), 78-80.

⁴² 오륜교회 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다: 예배를 위한 기도, 환영인사 및 개회기도, 경배와 찬양, 광고, 헌금, 성경봉독, 설교, 찬양 및 통성기도, 축도, 후주, 교제시간(떡과 음료).

⁴³ 나들목사랑의교회 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다: opening 연주, 광고, 지난 나들목, 경배와 찬양, 그림 이야기, 설교, 헌금, 기도, 축도, 후주.

⁴⁴ 이건구, 같은 논문, 59.

둘째, 열린 예배란 말 그대로 한국교회가 세상을 행하여 열린 생각과 열린 목회의 가능성을 갖도록 지평을 열었다는 점이다.

셋째, 봉사의 장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열린예배에는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특히 음악이 많이 사용되므로 찬양을 할 수 있는 싱어들과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 악기 연주자, 음향 담당자, 조명 담당자들이 필요하다.

넷째, 효과적인 전도의 접촉점이 된다는 것이다. 열린예배는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도의 접촉점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잘 준비된 사람들이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기 때문에 더 은혜스럽고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5.3 열린예배의 문제점과 부정적 영향

이처럼 열린예배는 한국교회 안에 복음전도와 불신자들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교회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하지만 열린예배는 수많은 예배학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을 지적 받았고 한국교회 예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들어왔다. 이에 열린예배의 문제점과 부정적 영향을 살펴본다.

5.3.1 열린예배의 문제점⁴⁵

첫째, 열린예배는 예배학적 입장에서 볼 때 예배가 아닌 일종의 집회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배란 이미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회중에 대한 하나님의 봉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회중의 봉사’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열린예배는 예배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열린예배는 구도자를 위해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을 위한 회중의 봉사’라기보다는 ‘구도자를 위한 회중의 봉사’ 즉 인간을 위한 인간의 봉사이기 때문이다.

예배는 일차적으로 그 대상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서 절정에 이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그 주체인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 삼위 일체 하나님의 현존과 행위가 예배의 중심이다. 따라서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귀속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행위이어야 한다. 그런데 열린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참여한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소개하여 주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의 전도집회이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예배라고 볼 수 없다.

둘째, 열린예배는 하나님 중심적 예배가 아닌 인간 중심적 예배, 경영학적 표현을 빌린다면 고객 지향적인 예배(consumer-oriented worship)라는 지적이다. 열린예배는 처음부터 특정 지역에

⁴⁵ 조기연, “열린예배의 예배학적 이해.”

거주하는 특정 연령의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고안된 예배이다. 이 예배의 참여자는 신자(believer)가 아니라 불신자(non-believer)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동기에서 모인 회중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며 예배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교회에 와 앉아 있는 사람들이거나, 심지어는 마치 이 가게 저 가게를 다니면서 필요한 물건이나 흥미로운 물건을 쇼핑하듯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와 예배라는 ‘종교상품’을 고르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그들 중에는 한번 예배에 참석해 보고는 그 예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다음 주일에 이 교회에 다시 올지 안 올지를 마음 속으로 결정해 버리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을 붙잡을 만한 두 번째의 기회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흥미를 유발시키지 않는 예배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예배로는 이들의 관심을 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배의 최대 기준과 가치는 자칫 참여자들의 ‘흥미’나 ‘관심’에 맞추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열린예배는 흥미 위주의 예배로 전락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객 즉 구도자들이 예배를 참석한 후에 흥미를 느꼈느냐 아니냐, 그들이 다음에 또 오겠다는 생각을 갖게 했느냐 아니냐가 좋은 예배 혹은 성공적인 예배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열린예배에서는 이처럼 구도자들이 예배의 기준과 가치가 된다. 따라서 예배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은 구도자들의 취향과 관심사가 무엇이나 하는 데 모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피조물인 예배자가 창조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그분께 모든 가치와 영광을 돌리는 것과는 매우 거리가 있으며, 열린예배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열린예배는 수단으로 전락한 예배라는 지적이다.⁴⁶ 예배학적 관점에서 볼 때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대하여 행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이다. ‘예배’(worship)라는 말은 ‘어떤 사람, 혹은 어떤 대상에게 최고의 존경과 가치를 돌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예배는 그 자체로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예배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다.

그러나 열린예배는 선교적 관점에서 고안된 예배 형태로서 ‘어떻게 비기독교인들을 붙잡아 예배를 통하여 그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일차적 관심을 둔다. 따라서 열린예배는 복음 전달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다. 이는 전통 예배학에서 말하는 것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예배는 선교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지만 예배가 선교이거나 선교의 도구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예배는 선교와 교회 여타의 기능들을 뒤에서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한다.

넷째로, 열린예배는 회중의 수동적 참여(passive participation)를 극대화하는 예배이다. ‘회중 참여의 결여’는 열린예배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취약점이다. 열린예배의 회중들은 대부분

⁴⁶ 조기연, *예배갱신의 신학과 실제*, 142.

예배가 무엇인지 찬송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찬송과 기도와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예배를 기획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일어서라 앉아라 이것을 해라 함으로써 그들을 귀찮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그 결과 음악 연주, 드라마 공연, 초대 손님에 대한 인터뷰, 그리고 메시지 등 예배의 모든 행위는 대부분 무대 위에서 행해지게 되고, 회중은 그저 의자에 갇혀서 앉아서 이러한 것들을 감상하게 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예배가 회중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중을 위해 되어진다. 따라서 회중이 예배에 참여한다고 보기보다는 구경한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 이는 바람직한 예배가 아니다. 바람직한 예배란 회중의 ‘온전하고 의식적이며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회중의 입장에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예배, 그리고 예배의 순간 순간마다 무엇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참여하는 예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열린예배는 예배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은 예배라고 할 수 있다.

5.3.2 열린예배의 부정적 영향

1980년대 중반 이후 성장에 급제동이 걸려 정체 내지 퇴보의 길을 걷고 있는 한국교회의 답답한 현실을 해결해줄 수 있는 신선한 대안으로 열린예배가 급부상하면서 한국교회는 몇몇 대형교회를 좇아 전문적인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열린예배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시간이 흐르면서 부정적 영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몇 가지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⁴⁷

첫째, 예배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예배의 성격과 내용이 달라지는데 한국 교회의 구도자 예배는 대상을 불신자에게 둘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신자들에게 둘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둘째, 한국교회의 열린예배는 불신자들을 위한 복음전도의 취지보다 단지 신자들을 위한 변형된 한 행사 정도로 시행하려는 흐름이 있다. 열린예배 참여자들의 90% 이상 아니 거의 전부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인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인간 중심의 예배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셋째, 신학적 검증을 뒷전으로 미룬 채 현실적 필요에만 초점을 맞추므로 기독교 고유의 성격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물론 열린 예배가 예배의 본질이 아닌 예배 표현 방법이 변화된 것뿐이라고 하지만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 그들에게 익숙한 환경과 분위기를 설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러면서 기독교 고유의 성격을 상당 부분 훼손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 곧 메시지의 약화가 우려된다. 문화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 자칫 말씀보다 공연 중심의 행사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 한국교회에서 열린예배를

⁴⁷ 이건구, 같은 논문, 64-65.

기획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은 TV이나 극단에서처럼 전문가들이 아니어서 음악 구성, 연주, 대본, 영상, 영상편집 등 모든 부분에서 어설피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린예배도 그 중심을 말씀에 두어야 한다.

다섯째, 미국의 구도자 예배를 한국에 접목시키는 데 있어서 한국의 문화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서둘러 적용했다는 것이다. 사실 불신자에 대한 개념이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 교회에서 불신자는 예수는 알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 반면 한국교회에서 불신자는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타종교인을 지칭한다. 이런 차이 때문에 한국의 열린예배에는 불신자들이 모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열린예배라는 용어가 풍겨주는 의미에 문제가 있다. 한국교회에서 ‘구도자 예배’를 의미하는 ‘열린예배’라는 용어는 마치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의 예배는 닫혀 있는 반면 열린 예배는 열려 있다는 이미지를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닫힌 예배란 없다. 예배 자체는 온 인류에게 열려 있는 것이며 따라서 누구나 언제나 예배로 나아올 수 있는 것이다. 닫혀 있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의 마음일 뿐이다.

5.4 열린예배의 가능성과 실효 방안

열린예배는 앞에서 언급한 예배학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불신자들과 과거 교회 생활에 식상한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한국교회 내에서 열린예배가 급속도로 퍼져 나가는 이유일 것이다. 열린예배는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이다. 그러므로 열린예배는 계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교회에서 실천되고 있는 열린예배들을 보면 아쉬운 점이 매우 많다. 열린예배가 성공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⁴⁸

첫째, 열린예배를 계획하는 교회는 먼저 이 예배가 신자들의 예배인지 아니면 구도자를 위한 예배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여야 한다.⁴⁹ 신자들의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⁴⁸ 조기연, “열린예배의 예배학적 이해,” 287-303.

⁴⁹ Timothy Wright, *열린예배 현대예배(Defining Contemporary Worship)*, 김병삼 역, (서울: 프리젱트, 1999), 28. 이진형, “예배갱신의 흐름과 방향에 관한 고찰,” 83-84 에서 재인용. 티모시 라이트는 *열린예배 현대예배*라는 저서에서 현대 예배와 관련된 용어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구도자(Seekers), 불신자(the Unchurched, Secular People): 이 부류의 사람들은 아직 교회와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며 구도자는 영적인 관심을 가진 자들이다.

신자 중심적 예배(Believer Oriented Worship):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들을 위한 예배로 전통적이고 의식적인 예배와 현대 예배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신자 중심적, 구도자 우호적 예배 (Believer Oriented, Seeker Friendly Worship): 주로 신자들을 겨냥해서 예배가 진행되지만 방문자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이다. 방문자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잘 훈련된 팀이 필수적이며 예배를 통하여 소개하는 것이 보통이다.

구도자 중심적 예배 (Seeker Oriented Worship): 교회나 복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신자들(believers)이 그 회중이다. 여기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하는 응답의 행위이다. 반면에 구도자를 위한 예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기독교인들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구도자들이며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온 손님(guest)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한 예배는 신자들을 위한 예배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열린예배는 먼저 이것을 분명히 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

일단 구도자들을 위한 예배로 방향이 잡히면 그 예배는 철저하게 회중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음악과 메시지와 드라마 등 모든 면에서 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예배는 일종의 낚시바늘의 역할을 한다. 예배에 참석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흥미를 갖고 계속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모든 것을 계획하여 구도자들이 일단 이 낚시 바늘에 걸린 이후에는 성경공부나 수련회, 그리고 교회의 다른 행사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로, 구도자라고 해도 다 같은 구도자가 아니다. 그 중에는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도 있다. 연령이 10대부터 70대까지 천차만별이다. 그들의 경제적 수준, 문화적 차이 등 고려해야 할 점들이 너무 많다. 그러므로 열린예배를 계획하는 교회는 먼저 그 예배의 회중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구도자 예배를 처음 시작한 윌로우크릭 교회는 1945년 이후에 미국에서 출생한 25-50세까지의 전문직 종사자들을 그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팝 음악을 사용하고 그들이 주말에 가기 좋아하는 카페 같은 분위기로 예배당 환경을 꾸몄다. 물론 메시지도 그들의 관심사들과 그들이 당면한 현안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비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되어지는 열린예배는 어떠한가? 한국교회의 열린예배들은 대부분 불신자가 아닌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연령층이 어떠한지 문화적 경제적 교육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냥 열린예배가 현대의 예배 형태니까 하면서 도시 교회든 지방에 있는 교회든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천편일률적으로 전자기타와 앰프, 그리고 키보드를 설치하고 빠른 곡조의 복음성가들을 부르다가 적당한 때에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이 열린예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기존의 장년 신자들은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내심 못 마땅해 하는 마음 자세를 보인다. 결국 구도자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려는 시도에서 나온 열린예배가 실제로는 회중들로 하여금 예배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 이는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예배로 종교적인 장벽을 제거하고 현대 음악과 현대 언어를 사용하여 예배를 드리게 된다.

참여하는 예배(Participative Worship): 청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찬송을 함께 부르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기도를 함께 하는 예배이다.

보여주는 예배(Presentational Worship): 대부분의 예배 행위들이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며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인도자들이 음악, 드라마, 인터뷰, 말씀을 전하는 예배이다.

열린예배가 성공하려면 회중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하며 그들의 문화적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그들을 대상으로 한 예배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한국적 상황에서라면 한국 사람들의 심성에 맞는 예배 환경과 예배 음악을 설정하여야 한다. 만일 회중이 50-60대가 대부분이라면 전자기타보다는 북이나 장구를 치면서 찬송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른다. 곡조도 빠른 서양풍의 복음성가보다는 트로트 가락이 그들에게 더 맞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회중이 30대 후반에서 40대가 주류를 이룰 경우에는 전자기타보다는 오히려 통기타가 더 친숙하게 느껴질 것이다. 물론 10대-20대에게는 빠른 록음악이나 랩음악이 더 호소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듯 철저하게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예배, 그리고 회중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들의 취향에 맞게 접근하는 열린 예배라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한국의 교회들이 한 달에 한번 또는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구도자 예배를 실천해 나간다면 그 효과는 지대할 것이다. 물론 인력과 자원에서 여유가 있는 대형교회라면 매주일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6 21세기 한국교회 예배 갱신의 방향

새 천년, 새로운 21세기를 시작하면서 한국교회는 살아 있고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과제와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 전체가 거대한 변화 속에 있는 지금, 변화의 가속도는 한층 더 빨라지고 변화의 폭도 갈수록 커가며 다양해지고 지금, 우리는 실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21세기 한국교회 예배 갱신의 방향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6.1 본질과 상황의 균형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예배 갱신의 목소리가 높다. 예배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이나 교인들 모두가 원하는 바이지만, ‘어떻게?’라는 질문에는 속 시원한 대답이 나오질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예배학적 논의들을 종합해 본다면 두 가지 대담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열린 예배(구도자 예배)나 경배와 찬양의 스타일의 현대적인 예배를 대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하나는 무분별한 현대적 예배 도입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시금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 예전복고운동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전자가 예배의 상황화를 강조한 것이라면 후자는 예배의 본질화를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 예배 갱신의 방향은 위의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양자 모두를 균형 있게 통합해야 할 것이다.

예배신학의 과제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예배가 성도들의 필요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예배 신학의 본질화(本質化)와 상황화(狀況化)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⁰ 예배신학의 본질화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는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커튼을 잠시 열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천상 예배의 광경을 보게 하는 장면이 수록된 요한계시록 4-5장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⁵¹

첫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특히 예배의 대상으로 강조되고 있다(계 4:11, 5:8). 물론 성령도 예배의 대상이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4장에서 성령은 예배를 돕고 계시는 분의 역할로 더욱 강조되고 있는 듯하다. 예배는 하나님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가치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둘째, 예배는 또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4장에 등장하는 네 천사의 찬양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그리고 영원하심(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이 고백되고 있다(4:8). 셋째, 예배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피조물의 응답이다. 이 천상 예배의 찬양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4:11)와 구속(5:9) 사역이 신앙고백의 형태로 노래되어진다. 넷째, 예배는 곧 찬양이다. 네 생물, 이십사 장로들, 힘센 천사, 성도들, 천천만만의 천사들 그리고 모든 만물의 찬양이 등장한다. 다섯째, 예배는 곧 책임이다. 요한계시록 4-5장의 천상 예배에 이어 6장 이하에는 전쟁과 기근, 배도와 살육의 현장인 인간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 이 현장은 예배자가 직면해야 할 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배의 종언인 ‘아멘’은 우리를 이 역사의 현장으로 인도한다. 예배는 도피처가 아니다. 우리는 예배했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고 또 이길 수 있다. 예배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향한 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하나님에게 열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열납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4장과 로마서 12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참된 예배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간직해야 한다. 첫째, 신령(영)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 둘째, 진정(진리)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 셋째, 고백과 생활이 일치된 헌신된 예배여야 한다.⁵²

하지만 우리는 예배신학의 본질화와 함께 상황화를 고려해야 한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예배를 드리는 주체는 인간임을 기억해야 한다. 예배의 자리에 설 때 적어도

⁵⁰ 이동원, “예배갱신의 신학과 목회,” 306.

⁵¹ Ibid., 306-7.

⁵² 이정석, “예배와 문화,” 138.

우리는 세 개의 문화와 만난다. 성서의 문화, 예배 인도자의 문화, 예배 참여자의 문화이다.⁵³ 예배 참여자들은 그들의 시대 언어와 몸짓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어 있다. 예배는 문화를 통해 표현된다. 툴리히가 지적한 대로,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며,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 예배는 그 시대와 지역의 문화를 감안하지 않고서는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회중의 삶의 자리가 변화하면 마땅히 예배의 양태와 표현도 달라져야 한다. 한국인은 한국인의 언어와 정서로 예배드릴 때 가장 효과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현대인은 현대적 방식으로 예배드릴 때 그의 마음을 가장 잘 표출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문화 방식이 공존한다면, 예배에도 그러한 현실이 반영되어야 한다.⁵⁴ 예배 공동체 구성원들의 문화가 무시되면 점차 예배는 적용성을 상실하고 활력과 역동성을 상실하게 된다. 예배의 본질은 시대를 뛰어넘는 원리를 갖지만 예배의 표현은 시대성을 피할 수 없다. 현대성을 무시한 예배는 결국 현대인을 잃어버릴 것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예배의 핵심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모두 부족한 데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⁵⁵ 두 가지는 상반되게 보인다. 예배는 분명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배의 중심에 사람을 놓으면 인간을 우상화하는 우상숭배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다면 예배는 인간미가 상실된 형식주의로 빠지지 쉽다. 사람이 상실된 ‘거룩한’ 예배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 동안 한국교회의 전통적 예배는 예배의 거룩성을 추구하다 보니 인간에 대한 이해나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반대로 오늘날 현대적인 예배는 인간에 대한 접근이 과도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의 관심이 사람들이 벌이는 행위에 집중될 때 예배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자연스레 없어지기 마련이다.

예배에서 집중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 속에는 분명히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예배, 이 둘을 어떻게 결합시켜야 하는가는 한국 교회에 남겨진 과제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인간의 실존적 변화와 동반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전통 예배나 열린 예배나를 놓고 서로 주장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 오히려 예배 참여자들에 대한 마음이 예배 인도자 안에 얼마나 녹아 있는가를 살피고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⁵⁶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과 인간을 동시에 이어주는 것이며 둘의 균형과 조화이다.

신국원 교수는 예배신학의 본질화와 상황화의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 준다. “오늘날

⁵³ 이동원, “예배갱신의 신학과 목회,” 307.

⁵⁴ 이정석, “예배와 문화,” 138.

⁵⁵ 홍순석, “예배의 중심은 무엇인가,” 107.

⁵⁶ 홍순석, “예배의 중심은 무엇인가,” 109.

전통적인 교회 문화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하지만 대중 문화를 뒤쫓아 가는 것도 방법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적 가치와 진리에 새 옷을 입힐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복음의 활력과 적절성을 예술적으로 표현해 내는 감수성을 익혀야 한다...특히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 있는 영적 아름다움을 가진 의식으로 갱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이미 ‘열린 예배’ 논란이 벌어져 이 문제에 불이 당겨졌다. 그것이 어떤 동기와 계기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지금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개교회의 상황과 이 시대에 부합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을 찾는 데 공동체의 지혜를 모으는 일이다.”⁵⁷

본질과 상황이 균형 잡힌 예배를 지향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지성과 감성의 균형이다. 감정과 지성은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균형 감각을 지녀야 하는 두 기둥이다. 그래서 많은 미국 교회들은 사람의 지성과 감성을 만져주는 예배 보조 수단들을 통해 감동이 있는 예배를 시도한다. 사람은 언제나 지, 정, 의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유지하게 된다. 지성만 드러나는 예배나 감정만 앞세우는 예배는 조화롭지 못한 예배다. 지성과 감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예배를 드릴 때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예배가 된다.⁵⁸

6.2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든다

예배 갱신의 핵심은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다. 좋은 예배는 좋은 예배자가 만들기 때문이다. 좋은 예배는 예배 순서를 바꾸거나 예배에서 사용되는 어떤 악기를 바꾸는 것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예배자들의 예배 자세가 바뀌어 자신의 최선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고자 할 때, 즉 좋은 예배자가 될 때 좋은 예배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좋은 예배자를 찾으신다(요 4:23). 좋은 예배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다.⁵⁹ 그러므로 목회자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좋은 예배자로 만들 수 있을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배에 참석하도록 교인들을 권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예배자들이 되도록 하는 일은 더욱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좋은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배 세미나나 영성 훈련 혹은 제자 훈련을 통해 예배의 한 부분 한 부분 속에서 예배자들이 자기의 전부를 올려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지도록 부단한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교인들을 좋은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 네 가지 슬로건을 부르짖는다.⁶⁰ 첫째,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든다. 좋은 예배자는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가 될 때 가능하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강조한다. 둘째,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치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셋째, 주일 예배가 모든 사역의

⁵⁷ 신국원, *변혁과 살림의 대중문화론*(서울: IVP, 2004), 345-6.

⁵⁸ 오정현, “매력 있는 교회로 탈바꿈하라,” *목회와신학*(1996년 8월호): 207.

⁵⁹ 김운용, “교인 60% 이상 예배갱신 필요.”

⁶⁰ 오정현, “예배회복 없이 창조적 목회 없다,” *목회와신학*(1996년 8월호): 200-1.

절정이 되도록 하라. 주일 예배가 영적 육적 컨디션의 최상이 되어야 한다. 넷째, 환경보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6.3 성만찬 예전의 회복

성만찬 예전은 말씀 예전과 더불어 초대 기독교 예배의 두 골격을 형성하였고 종교개혁까지 교회는 매일 혹은 최소한 매주 성찬을 거행하였다. 그러나 중세 카톨릭 교회의 과도한 성찬 집중에 대한 반감으로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는 성찬을 1년 1-2회로 축소시키고 그것도 형식적으로 거행함으로써 예배의 균형을 상실하였다. 칼빈은 그러한 축소를 ‘마귀의 간계’라고 비판하고 최소한 매주 1회 거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¹

성만찬은 그 기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나눈 메시아적 잔치에 두고 있다. 교회 공동체는 한 식탁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분의 말씀과 함께, 서로에게 빵을 떼어 주고 포도주 잔을 제공한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대속적인 죽음을 회상하고 이로 인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오실 그분의 오심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희망을 온 세상에 선포한다.

성만찬 예전은 전통적인 예배와 현대적인 예배를 분문하고 회복해야 할 기독교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20세기 예전복고운동의 노력을 통해 초대교회 예배와 역사를 연구하면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성만찬 예전의 중요성을 재발견한 일이다. 현실적으로 매주 성만찬을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성만찬 예전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린 예배를 한국교회에 처음 소개한 서울 온누리교회는 매달 한 번 정기적으로 성만찬 예전을 갖고 있다.

6.4 예배의 축제화

예배는 축제의 사건이다. 예배는 본래 부활의 축제였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제자들이 모여 떡을 떼었던 데서 시작되었다. 그들에게 예배는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는 자리였다. 예배가 축제인 것은 예배가 승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승리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축제적인 성격의 예배가 오랜 역사를 통해 의식이 되고 예전화 되면서 원래의 역동적인 성격이 희석되거나 퇴색되어 버렸다. 더군다나 한국교회의 예배는 유교적인 제사의 영향을 많이 받아 언제나 예식을 중시하고 형식적인 성격이 강하고 전체적으로 차분히 가라앉은 분위기의 예배가 주종을 이루었다. 그래서 자유분방한 신세대들이 보기에는 지루하고 견디기 힘든

⁶¹ 이정석, “예배와 문화,” 138-9.

형태의 예배가 되고 말았다.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오래 ‘경건’이란 이름으로 장례 분위기를 연출해 왔다. 여기에는 마땅히 분출되어야 할 환희, 감격, 감사와 축복이 억제되어 있었다. 우리는 아직 부활의 새벽을 모른 채 성금요일의 시간에 머물러 있거나 나사로처럼 무덤에서 나오긴 했으나 수족이 뭉뚱 묶여 있는 상태로 있었던 것이다.⁶² 이제 한국교회는 예배의 축제적 성격을 회복하고 예배를 축제화해야 한다.

예배를 축제화하려면 설교를 듣거나 미사를 드리는 행위로 그쳐서는 안 된다. 말도 하고 몸을 움직여 표현도 하는 총체적인 예배가 되게 해야 한다. 예배 순서도 정형화된 틀에서 탈피하여 자유롭고 즉흥적인 응답과 창조적인 표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예배의 공간적 환경에도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정되어 있는 강단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강단 주변의 상징물도 필요에 따라서 자리바꿈을 하거나 색다르게 장식할 수 있어야 한다. 절기나 계절에 맞는 빛깔 변화도 필수적이다.

예전적 동작도 중요하다. 예배가 축제가 되려면 몸과 손발의 움직임을 전제로 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의자에서 앉았다 섰다 하는 정도에서 벗어나, 입장 혹은 퇴장 행렬이나 성만찬 참여 등에서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움직임이 요구된다. 몸 전체로 찬양을 드리는 예전춤(위십댄스)이나 몸 전체로 메시지를 전하는 예전극과 같은 드라마 예배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예배 표현의 다양화가 현실화될 때, 전체 회중이 참여하는 축제적 예배 분위기 조성은 가능할 것이다. 예배 개념은 정지된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6.5. 청중의 참여 확대

정통적인 예배는 주로 성직자에 의해 집례되었고 예배자인 청중은 수동적인 수혜자의 자리에 머물렀다. 하지만 21세기 예배 갱신은 청중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예전적으로 뛰어나거나 영감이 넘치는 예배라 할지라도 회중이 소외되고 방관자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실패한 예배이다. 예배는 집례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회중 개개인 모두에게 의미 있는 만남의 사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⁶³

참여적인 예배가 되게 하려면 먼저 예배자인 청중이 예배 속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 스스로 예배의 한 부분이 되어 응답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최근 사회 구조와 계층의 요구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제는 보는 시대를 넘어 느끼는 시대가 왔다. 교인들은 듣는 복음에서 보는 복음을 경험하길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예배에 대한 감격에 참여하길 원한다. 그래서 교인들이 예배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들이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⁶² 이동원, “예배갱신의 신학과 목회,” 307.

⁶³ 이진형, “예배갱신의 흐름과 방향에 관한 고찰,” 103.

수 있는 예배를 제공해야 한다.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예배의 관람자가 아니라 함께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야 한다. 청중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찬양팀, 반주팀, 기도팀, 위십팀, 새가족 환영팀, 안내팀, 음향팀 등 수많은 교회 내의 사역에 교인들이 자신들의 은사에 맞게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6.6 찬양 사역의 강조

찬양은 예배의 본질적 요소였다. 구약 시편과 바울서신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 찬양은 개신교회 내에서 약화되었고 그로 인해 예배가 경직화되고 찬양의 활력이 상실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예배 갱신을 위해서는 열정적이고 즐거운 영적 찬양의 회복이 요청된다.⁶⁴

전통적인 예배에서는 성가대를 찬양을 거의 독차지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의 예배는 성가대보다 찬양 인도자의 역할에 높은 비중을 둔다. 장신대 김운용 교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역동적 예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뜨거운 찬양과 음악’(54.2%)인 것으로 밝혀졌다. ‘영감있는 말씀’(37.2%)보다 높은 응답이 나와 오늘날 찬양과 음악의 현대적 요소가 예배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오늘날 예배 음악에서 현대적 찬양(CCM) 사용은 점차 확산되고 있고, 찬양 인도자는 예배에 있어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역자로 부상할 것이다. 하덕규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 예배에서 경배와 찬양이 주된 형식이 되었다. 이는 차츰 기성 세대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배 방식에 일대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에 맞는 전문 사역자들을 요구하게 되는 양상이 일어날 것이다.”⁶⁵ 최근 한국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은 그만큼 예배 속에서 찬양 사역이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배 갱신은 찬양 사역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6.7 하나님의 임재 체험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만약 예배자들이 예배를 통해 다른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예배는 목표(goal)에 도달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다. 성경에 등장한 좋은 예배는 오늘도 살아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위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떨림을 경험하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받아,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가는 예배였다.⁶⁶ 이사야가

⁶⁴ 이정석, “예배와 문화,” 139.

⁶⁵ 홍순석, “예배의 중심은 무엇인가,” 104.

⁶⁶ 김운용, “교인 60% 이상 예배갱신 필요.”

그랬고, 모세가 그랬으며, 에스겔이 그랬고, 하박국이 그랬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예배자들은 성령님을 깊이 의뢰해야 하며, 온 마음과 신경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온종일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의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예배 속에서 말씀 만찬이 베풀어지고, 은혜의 성만찬이 배설되지만 정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배 인도자와 예배자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며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위해 사모하며 기도해야 한다. 아울러 준비된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

6.8 철저한 예배 준비

진정한 예배 갱신의 방향은 준비된 예배를 실현하는 것이다. 예배는 존엄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준비되어야 한다. 준비된 예배는 먼저 주제가 통일되는 예배를 의미한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각기 다 다르다면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 어렵다. 주제가 일치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설교자의 여력과 수고가 필요하다.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의 조직이 필요하다. 설교를 주제제기 영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설교자와 영상 담당자가 그 영상물이 주제에 적합한지, 회중의 수준에 적절한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기준에 합당한지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야 한다.

축제적인 요소를 지향하는 예배의 찬송은 단조보다는 장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찬송의 템포를 좀더 빨리 해야 한다. 또한 예배 사회자는 주일에 부를 찬송을 여러 번 연습하고 나와야 한다.

7 나가는 말

우리 앞에 열려져 있는 21세기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가 될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사회와 문화는 변하고, 사람과 그들의 관심사도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면 개인과 사회는 물론 교회도 영향력을 존속하기 힘들 것이다. 기독교 예배도 마찬가지다. 정보화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 물질주의와 과학 문명은 인간의 삶을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밀어낼 것이며, 그에 따라 사람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에게서 갈수록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신적인 퇴락과 함께 진리를 추구하고, 영적 세계를 추구하는 갈증도 더해갈 것이다.

이처럼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예배, 좀더 좋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예배를 살아 있는 영적 아름다움을 가진 예전으로 갱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십 수년 동안 한국교회 안에서는 열린 예배 논쟁이 일어나서 이 문제에 불이 당겨졌다. 이젠 ‘전통적인 예배냐 열린 예배냐’를 뛰어넘어 예배의 본질을 실현하면서도 동시에 시대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예배 갱신의 방향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신국원 교수는 말한다. “중요한 것은 개교회의 상황과 이 시대에 부합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을 찾는 데 공동체의 지혜를 모으는 일에 있다.”⁶⁷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 예배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다. 존 오웬(John Owen)은 말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로 나아오지 않거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배를 행하지 않거나 예배 중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의 모든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의 영광이다.”⁶⁸ 그렇다. 로버트 웨버가 말한 대로, 예배는 우리에게(to) 베풀어지거나 우리를 위해(for)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의해서(by) 드러지는 것이다.⁶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주체는 인간이다. 인간의 영적 표현 방식은 반드시 문화와 불가분리의 관계를 갖는다. 한국인은 한국인의 언어와 정서로 예배드릴 때 가장 효과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으며, 현대인은 현대적 방식으로 예배드릴 때 그의 마음을 가장 잘 표출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문화 방식이 공존한다면, 예배에도 그러한 현실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문화적 요소에 대해 배격이나 수용이 아닌 변혁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교회는 궁극적인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를 초월하면서도 동시에 참여를 통해 기독교적으로 내면화하는 변혁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예배는 이 일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신국원 교수는 말한다. “교회는 공동체일 뿐 아니라 거기서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훈련하는 장이다. 기독교 공동체의 활성화는 건강한 문화를 기르는 온상이 된다. 예배는 이 모든 일의 가장 중심에 있다. 그것이 생명력을 되찾고 어두운 문화를 밝힐 빛을 비출 때 그리스도인의 문화 변혁은 힘은 발하게 된다.”⁷⁰

예배학자 마르바 던(Marva J. Dawn)은, 예배란 세상적으로 보면 ‘전적인 시간 낭비’이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기 위한 유일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무한의 위엄 가운데 ‘전적인 잠입’(a total immersion)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낭비’(royal waste of time)라고 말했다.⁷¹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드리는 예배 순서 모두를 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거룩한 낭비가 일어나서

⁶⁷ 신국원, “대중문화를 파고드는 목회로 가자,” 91.

⁶⁸ 홍순석, “예배의 중심은 무엇인가,” 109.

⁶⁹ 김운용, “교인 60% 이상 예배갱신 필요”에서 재인용.

⁷⁰ 신국원, *변혁과 살림의 대중문화론*, 346-7.

⁷¹ 마르바 던, *고귀한 시간 낭: 예배*, 김병국, 전의우 역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4), 제 1 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예배 부흥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해 본다.

참고문헌

단행본 자료

던, 마르바.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 김병국, 전의우 역.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4.

신국원. *변혁과 살롬의 대중문화론*. 서울: IVP, 2004.

정장복. *예배학 사전*.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0.

조기연. *예배 갱신의 신학과 실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토플러, 엘빈. *제3의 물결*. 정해근 역. 서울: 도서출판정암, 1989.

학위논문 자료

김정원. “21세기 예배갱신 방향에 관한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신학대학원, 2005.

나광현. “열린예배에 대한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장신대신학대학원, 1999.

이진형. “예배갱신의 흐름과 방향에 관한 고찰.” 신학석사학위논문, 장신대대학원, 2004.

정인교. “한국교회에서의 열린 예배에 관한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협성대학교신학대학원, 2004.

정기간행 자료

신국원. “대중문화를 파고드는 목회로 가자.” *목회와신학* (2003년 12월호).

오정현. “매력 있는 교회로 탈바꿈하라.” *목회와신학*(1996년 8월호).

_____. “예배회복 없이 창조적 목회 없다.” *목회와신학*(1996년 8월호).

이동원. “예배갱신의 신학과 목회.” *목회와신학*(1994년 7월호).

사전 자료

Marshall, I. H. *New Dictionary of Theology*. Downers Grove: IVP, 1988, S.v. “Worship.”

Ward, J. W. *New Dictionary of Theology*. Downers Grove: IVP, 1988, S.v. “Pentecostalist Theology.”

인터넷 자료

김순환. “한국교회를 위한 예배신학적 재고와 방향.” 사이버설교대학원 홈페이지.

http://www.wpa.or.kr/academy_bbs/view.asp (2018년 3월 접속).

김운용.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새천년 한국교회예배.” 장신대 예배설교학 홈페이지.

<http://www.acha.pcts.ac.kr/~uykim> (2018년 3월 접속).

기타 자료

이정석. “예배와 문화.” 교재, 풀러신학교한인목회학박사원, LA, 2005.

조기연. “열린예배의 예배학적 이해.” *신학과선교* 제26집 (2001): 287-303.

호주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역사와 실제 연구

류성춘

Alphacrucis College 교수

- 1 들어가는 말
- 2 호주의 다문화주의 생성의 배경
- 3 호주 연합교회를 통해서 본 다문화주의의 실재
- 4 나가는 말

초록(Abstract)

호주의 다문화주의의 역사와 실재를 연구를 통해 호주에 살고 있는 한인 이민자들과 이민 교회들이 호주사회와 접촉, 호주연합교회와 관계, 다른 소수 민족교회들과의 관계 등으로부터 오는 문화적,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함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그와 동시에 같은 관점을 가지고 신학적 성찰과 반성을 통하여 한인 이민 교회가 한국과 호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역사적이며 사회학적이고 그리고 신학적인 측면에서 전망(perspective)해 보는 것이 또 다른 본 논문의 목적이다.

호주 사회는 오래 동안 앵글로 색슨과 앵글로 켈트족 중심의 수구적인 사회였고, 종교적으로는 천주교와 영국 성공회가 주류 종교로서 호주 사회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불과 30 여 년 전 만 해도 호주 사회는 백인들인 그들만의 그들의 세계를 위한 백호주의(The White Australian Policy)로 악명을 떨쳤던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 구조와 제도로 인해 지금까지도 호주 원주민을 비롯한 수많은 소수 민족의 이민자들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고립되어 변두리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호주 사회가 인종과 종족과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뛰어 넘는 다문화 사회임을 단적으로 밝혀주는 구체적인 예가 2012-2013년 호주 인구조사(종교)의 결과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해 나타난 것을 보면 현재의 호주 사회는 전혀 종교를 가지지 않은 무신론자들이 다수를 점해가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로마 천주교, 힌두교, 영국 성공회, 호주 장로교, 호주 개혁교회, 침례교, 호주 연합교회, 그리고 불교 신자들이 제 각기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적으로도 다종교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회인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와 다종교 사회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과 사명, 특히 이민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를 이 땅에 이민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적인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적인 뜻을 제대로 파악하여 여기에 맞는 선교전략과 인재를 길러내어 하늘나라의 확장을 해 가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 크리스천 이민자들과 이민 교회의 책임과 사명일 것이다.

주제어(Keywords)

호주 다문화주의, 호주 연합교회, 이민교회, 다민족, 다문화

1 들어가는 말

1.1 본 논문의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한국과 호주가 처음으로 민간 차원의 교류를 시작한 시기는 1880년대 후반이다. 1889년 호주 빅토리아 주의 장로교회가 한국에 Davies 선교사를 처음 파송하므로 민간 차원의 교류가 처음 시작이 되었고 이 후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호주의 군인들이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에 파병됨으로 인해 인적 교류가 확대되었다. 그 후 1960년 베트남 전쟁 후 베트남과 중동에서 일했던 한국인 민간 노동자들이 대거 호주로 몰려오고 이들을 위해 한인 이민 교회들이 생겨났다. 1980년대 호주 정부가 투자 이민과 기술이민을 받아들이면서 또 2000년대부터는 관광객들과 유학생들이 호주로 대거 몰려오면서 한국인의 이민이 크게 증가되고 이들 가운데 일부가 호주에 정착하였다. 이렇게 호주로 들어와 호주에 정착한 한국인은 현재 약 10만 명이 넘는 이민사회라는 한인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민사회라는 삶의 현장은 모든 이민자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원하는 만큼의 본능적인 욕구와 마음먹은 대로 가장 기본적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마저도 자유롭게 채울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여기에는 고국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상상 할 수도 없고 전혀 예기치도 않았던 언어, 문화, 환경, 인종차별 등 온갖 장애물과 같은 어려운 환경의 벽들이 줄줄이 함정처럼 도사리고 있는 곳이다. 또 호주가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호주 정부의 이민 정책에 따라 이민자의 삶이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호주 사회가 명목상으로는 다문화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다문화주의가 때로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악용되어 이민자들에게 커다란 장애물로 자리 잡기도 하는 것이 호주 이민 사회의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호주의 다문화주의의 역사와 실재를 연구함을 통해 호주에 살고 있는 한인 이민자들과 이민 교회들이 호주사회와 접촉, 호주연합교회와 관계, 다른 소수 민족교회들과의 관계 등으로부터 오는 문화적,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신학적 성찰과 반성을 통하여 제시함을 통해 한인 이민 교회가 한국과 호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역사적이며 사회학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측면에서 전망(perspective)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1.2 본 논문의 범위와 연구 방법

호주 사회는 약 6만 년 전에 처음 호주 땅에 정착해 있던 원주민들과 약 200년 전에 정착한 백인 정착민들과 세계 각 국에서 온 이민자들로 구성된 이민 국가로 다민족, 다문화

사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문화란 제 각기 성격과 스타일이 다른 여러 문화가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문화를 말한다. 다문화 사회는 각기 다른 여러 문화가 자기 고유의 색깔과 특성을 내면서도 서로 다른 문화와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어 모두에게 필요하고 유익을 주는 새로운 공통 문화를 만들어 감에 그 목적이 있는 사회이다. 한국 이민자들은 이런 다문화가 주도하는 호주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은 호주 사회에 살고 있는 한국 이민자들과 그리고 이들 이민자들의 삶의 한 복판에 삶의 네트워크로 자리 잡고 있는 한인 이민 교회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연구할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역사적인 서술과 분석을 사용할 것이다.

2 호주 다문화주의 생성의 배경

처음 영국의 이주자들이 호주 땅에 들어오기 전 호주 땅은 230개의 두드러진 언어와 660개 이상의 방언으로 구성된 호주 원주민들의 언어로 특징이 지어진 사회였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성은 영국 이주자들에 의해 철저히 묵인이 되고 말았다.¹ 그 후 약 200년이 지난 오늘날의 호주는 약 100여개의 언어를 말하고, 약 40여개의 종교를 소유하고, 약 140여개의 소수 민족으로 구성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세계화 된 다민족, 다문화의 사회이다.² 1901년 호주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98%가 영국인, 1%가 독일인 이민자, 0.8%가 중국인들이었고, 호주 원주민들은 집계조차 되지 않았었다.³ 2001년의 인구 조사에 의하면 호주 인들의 36%가 그들의 조상을 호주인(Australian)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22%가 영국인(British)로, 10.2%가 아일랜드 인으로, 20%는 이태리인, 독일인, 그리스인 혹은 다른 동유럽 인으로 간주하며, 10%가 아시아인이나 중동 계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다.⁴ 2011년 호주 전체의 인구조사를 통해 나타난 통계를 보면 매년 전 세계로부터 약 20만 명의 이민자들이 호주로 오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⁵ 실제로 이민자들이 제일 많이 정착하여 살고 있는 시드니의 경우, 전체 시민 중 30%가 호주 외의 나라에서 출생했으며, 20%에 달하는 사람들이 부모 중 한사람은 이민자 출신으로 되어 있고, 전체 시민의 약 15%가 가정에서는 영어 외의 다른 외국어를 쓰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⁶ 호주는 백호주의

¹ Helen Richmond and Apwee Ting, "Berakar dan bertumbuh di negeri baru: Taking Root and Growing in a New Land," in *Crossing Borders: Shaping Faith, Ministry and Identity in Multicultural Australia*, eds. Helen Richmond and Myong Duk Yang (Sydney: UCA Assembly and NSW Board of Mission, 2006), 178.

² Sang Taek Lee, *New Church New Land* (Melbourne: Uniting Church Press, 1989), 28.

³ Richmond and Ting, "Taking Root and Growing in a New Land," 179-80.

⁴ *Ibid.*, 184.

⁵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from the 2011 census, 2012-2013,"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http://abs.gov.au/ausstats/abs@.nsf/Lookup/2071.0main+features902012-2013> (accessed June 1, 2005).

⁶ *Ibid.*

정책의 폐지 이후 다문화 사회를 표방하면서 이민자들에 대하여 세계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여러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가장 먼저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호주는 인구 증가가 없이는 절대로 경제적인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독특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호주는 특이하게도 제2차 산업인 기계설비나 공장과 같은 굴뚝 산업이 없이 노동 집약적인 제1차 산업과 사람의 손이 직접 닿아야 하는 제3차 산업인 관광, 금융 등 서비스업이 발달한 나라이다.

1788년 최초로 유럽인들이 호주에 정착하기 시작한 이래 1970년까지 호주의 인구 증가는 자연 인구 증가율과 이민에 의한 증가율이 서로 엇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지만 1970년 이후로는 현저하게 역전되어 상당수의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본적인 사회 구조와 경제 구조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이민이 사회 정치 경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호주 내에서 영국 계 이민자가 아닌 비 영국 계 및 유색 인종을 이민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무슨 특별한 사회적 변화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호주인들의 각 세계와의 접촉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지금까지의 폐쇄적이고 국수적인 정책을 가지고서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 뒤떨어져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고, 제1·2차 세계 대전 등 국제적인 전쟁에 직접 참여함을 통해 다른 나라와의 연대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동안 자신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겼던 백호주의 정책(The White Australian Policy)이 그 실용성과 도덕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시아 각국과의 경제적 접촉의 증가가 직간접적으로 호주 정부로 하여금 인종 차별 주의정책인 백호주의가 더 이상 호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려 주는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을 하였던 것이다.⁷

더 나아가 이제는 더 이상 영국으로부터 얻어질 수 없는 노동력이 비 영국 계 유럽인들을 통해 충원되는 현실 속에서 건전한 지중해 지역의 사람들이 이민자로 받아들여 질만 하다면 건전한 아시아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있겠느냐? 는 의식의 전환이 사회적인 필요와 경제적인 요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됨을 통해 백호주의 정책이 폐지되던 1972년부터 사회 일각에서부터 ‘다문화 사회’(Multicultural Society)를 구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먼저 정치권에서부터 다문화 사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부차원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1979년 정식으로 다문화 위원회인 AIMA(Australian Institute of Multicultural Affairs) 가 정부기구로 발족을 하여 법적인 뒷받침과 그리고 이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족을 하였던 것이다.⁸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호주 사회의 ‘다문화

⁷ Lee, *New Church New Land*, 26.

⁸ James Jupp, “Immigrant Settlement Policy in Australia,” in *Nations of Immigrants: Australia,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 Migration*, eds. Gary P. Freeman and James Jupp (Oxford: Oxford University

정책'(Multiculturalism)은 당시 집권당인 자유당의 당수인 말콤 프레이저(John Malcom Fraser) 수상에 의해 1981년에 공식적으로 호주 정부의 정책으로 선포되었다. 이로 인해 호주 사회는 비로소 백호주의로 대표되었던 인종 차별 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벗어나 국제 사회에서 인정하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꿈꾸게 되었다.⁹

이러한 호주 사회의 다문화 정책은 시대의 변화와 환경에 따른 생존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호주 멜본에 있는 모나쉬 대학교(Monash University)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는 마크 로페즈(Mark Lopez)는 그의 책 '다문화 주의의 기원'(The Origins of Multiculturalism in Australian Politics 1945-1975)에서 호주 사회의 다문화 주의를 시대별로 구별하여 그 시대적인 필요에 의한 다문화 정책이 진행되어 왔음을 잘 밝히고 있다.¹⁰

로페즈의 견해에 따르면 1945년부터 1975년 사이에는 세계 제2차 대전 후 대규모 이민 정책 프로그램이 계획되었는데 이 이민 정책은 인종 통합정책은 '동화주의'(Assimilationism)의 영향으로 비교적 대규모의 이민이 이루어 졌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1950년대 초반에는 동화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반 동화주의'(Anti-assimilationism)의 물결이 일어나 이민의 물결이 잠시 주춤한바 있지만 이때부터 다문화 주의가 싹트었다고 보았다.¹¹ 1945년부터 싹트기 시작한 다문화 주의는 호주 사회에 필요한 인구와 호주의 대규모 이민 정책과 절묘하게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호주 사회의 다문화 주의는 호주의 이민 정책의 규모와 구성의 성패를 되돌아보고 또 그 정책에 영향을 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로페즈는 분석하였다.¹² 로페즈가 지적한 대로 호주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바로 호주 정부의 이민 정책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호주의 국가 경쟁력과 경제의 질을 높여보려는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1947년부터 1972년 동안은 '대규모 이민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이민자들이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호주에 이주해 왔다. 그것 역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구와 경제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또 제1·2차 세계 대전 참전으로 이제는 어엿한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된 호주로서 국제 사회 속에 기여해야 할 책임이요 의무이기도 했다. 그리고 제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속절없이 일본에게 당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국가 존폐의 위기에까지 몰리면서 적은 인구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면서 인구

Press, 1993), 89.

⁹ 김형식, *호주의 사회와 문화* (서울: 지구문화사, 2000), 367.

¹⁰ Mark Lopez, *The Origins of Muliculturalism in Australain Politics 1945-1975* (Melbourne: Melbourne University Press, 2000), 2-3.

¹¹ Ibid.

¹² Ibid.

증가에 대한 강한 열망을 느꼈던 것이다. 이러한 전쟁의 위협을 뼈저리게 체험한 후였기 때문에 750만 스퀘어미터(sqm)에 달하는 방대한 호주 대륙을 방어할 수 있는 국방력을 증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낮은 출산율과 적은 인구를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민 정책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1972년 이후 베트남 전쟁과 중동 전쟁을 통해 발생한 수많은 전쟁 난민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받아들임을 통해 그 동안 악명 높은 백호주의 정책으로 인해 세계인의 의식 속에 부정적으로 인식 되었던 호주에 대한 국가 이미지를 불식 시키고 이를 개선해 보려는 국가적인 노력이 대량적인 전쟁 난민을 받아들여지게 된 계기가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계산된 정치적인 요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호주 사회가 다문화주의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또 하나 간과 할 수 없는 요인은 거둬들인 경제난으로 인해 호주 경제가 어렵게 되자 이를 위한 돌파구로서 호주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1980년대는 기술 이민이라는 명목으로 세계 각국의 잘 숙련된 선진 젊은 기술자들을 받아 들였다. 또 1990년대 초반부터는 경제 운용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투자 이민을 허용하여 일정액 이상을 호주에 투자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민을 허용하는 소위 투자 이민을 실시하여 이민이라는 수단을 통해 많은 해외 자본과 기술력을 받아 들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경제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때마침 1997년 홍콩에 대한 영국의 조차권이 끝이 나자 홍콩이 중국에 반환 될 수밖에 없었던 시기에 200년이란 오랜 동안 영국식 교육과 생활환경에 적응되어 있었고 영어를 쓰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던 홍콩의 자본가들과 지식층들이 홍콩의 중국반환과 맞물려 영국식 문화와 생활이 비슷하고 비교적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호주로 이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수많은 홍콩의 지식인들과 자본가들이 호주로 이주하였던 것이다.¹³ 이러한 대내외적인 요인과 환경들이 호주 사회를 다문화 사회로 만들어 가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던 것이다.

호주는 엄연한 다문화 사회이다. 그렇다면 ‘다문화’(Multi-culture)란 무엇인가? 단순히 여러 가지 문화가 집합해 있는 산술적인 의미가 다문화이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다문화에 대한 다양하고 특별한 의미의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호주라는 사회 속에서의 다문화란 여러 가지 다른 특징과 특색을 가진 여러 문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Living Together)를 위한 삶의 수단이요 방법이다. 그러므로 다문화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한다. 문화란 무엇인가? 물론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클리포드 기츠(Clifford Geertz)는 문화에 대해서 정의하기를“문화는 역사적으로 상징된 것들이 구체화되어 변형된 의미이며, 상징된 형태 속에서 표현된 전해 내려온 개념의 구조이며, 한 공동체가 교류하기 위해 삶을 향한

¹³ 이때에 약 5만 세대에 달하는 홍콩인들이 호주로 이주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지식과 태도를 계속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는 것이다.”라고 정의 하였다.¹⁴ 반면에 브라질의 천주교 신학자이며 인류학자인 마르셀로 아제베도(Marcelld Azevedo)는 “문화는 삶의 실제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한 공동체가 알게 모르게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계속 변형 시키고 발전 시켜온 가치와 의미의 집합체”¹⁵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문화란 같은 언어, 같은 생활 습관, 같은 의식을 가진 한 공동체가 그 시대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생존 수단과 방법”¹⁶을 문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이 문화란 다른 것이 아닌 한 시대 속에서 인간의 삶을 위한 하나의 생존 수단이지 목적 그 자체는 아니다.

인류 문화사를 역사적으로 규명해 보면 인류의 문화는 한 마디로 생존을 위한 수단이었다. 맨 처음의 문화 활동이라 말 할 수 있는 유목시대(Nomadic era)는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이곳 저곳을 찾아 다닌 유랑의 시대였고, 이후 이어진 농경시대(Agricultural era)는 대규모의 먹을 것을 얻기 위한 노동 집약적인 문화였고, 그 후 이어진 산업 사회는 기계라는 동력의 힘을 이용하여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여 상품을 생산하여 사고 팔아 삶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함이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정보 통신의 시대로서 정보가 있는 곳에 삶에 필요한 것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삶의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삶의 모든 행위가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문화에 대한 정의가 자연스럽게 세워질 것이다. 특히 이민 사회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화가 한데 어울려 있는 다문화 사회이다. 캔베라 전문대학(Canberra CAE)의 정치학 교수인 제임스 쥘(James Jupp)은 호주를 다문화 사회라고 부르는 것은 공적 논쟁의 상투적인 문구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다문화 주의’는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 내에 많은 문화들의 존재를 보조하고, 많은 문화와 사람들 간의 창조적인 상호 작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그 사람들의 주체성을 보존하고 그들의 권리들을 세우고자 하는 독특한 정책이라고 하였다.¹⁷ 다문화 사회는 바로 이러한 곳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간직함과 동시에 다른 문화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 또 어떤 문화든지 그 문화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색이 있고 그 문화들만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서로가 다른 문화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가지고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개발하여 함께 더불어 사랑가야 할 공동체에 필요한 제3의 문화를 창출해 간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Living Together)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¹⁴ Jim Houston, ed., *The Cultured Pearl: Australian Reading in Cross-Cultural Theology and Mission* (Melbourne: Joint Board of Christian Education, 1988), 30.

¹⁵ Ibid., 31.

¹⁶ Seong Choon Lew, “Inculturation of Christian Festivals in Korea: Christmas, Easter and Thanksgiving” (D.Min. dissertation,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1994), 20.

¹⁷ James Jupp, *From White Australia to Woomera: The Story of Australian Immig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101-2.

것이다. 바로 이것이 다문화 사회의 장점이며 목표인 것이다. 다문화 사회인 호주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 없이는 자발적인 인구 성장도, 자주 국방도, 경제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운 나라이다. 바로 이 다문화 사회라는 개념이 이제는 호주를 대표하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다문화 사회의 이념이 모든 이민자나 평범한 일반 호주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다문화 사회를 표방한다는 미명하에 모든 이민자들에게 반 강제적으로 호주 사회에 동화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나이나 국적이나 성별이나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영어점수(IELTS) 6.0 이상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이 수준의 점수는 호주에서 태어나 호주식의 영어로 교육을 받은 고등학교 12학년 수준의 영어 능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이다. 대부분의 비영어권 이민자들이 이 영어점수 때문에 호주 영주권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물론 영국 계 호주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주류 문화를 간직 한 채 또 다른 나라의 문화, 종교, 언어, 관습을 동등한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더구나 오랜 동안 백호주의의 환상과 우월감에 젖어 있었던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극 보수의 정치인들, 그리고 인종 차별주의자들은 크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¹⁸ 그 대표적인 예로 1984년에 멜본 대학의 제프 블레이니(Jeffrey Blainey) 교수가 “현재의 이민 정책은 일종의, 아시아인에 의한 호주 점유를 조장하게끔 만들었다”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인해 호주 사회 속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인종 차별적인 분위기가 다시 불거져 이민 논쟁이 또 다시 호주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어 이에 편승한 일부 극우 단체가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면서 다시 한번 이민자들의 마음속에 큰 충격을 주었다.¹⁹ 블레이니 교수는 현재의 이민 정책이 반 영국적이며 친 아시아적이라고 말함으로써 호주의 아시아화라고 불리우고 있는 것을 공격하였던 것이다.²⁰ 그의 논평은 상당수의 유명 인사들로 하여금 현재의 아시아 이민 수준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호주 식 생활양식에 끼칠지도 모르는 위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것을 기회로 삼아 때를 만났다는 듯이 그 동안 숨을 죽이며 잠복해 있었던 보수 단체들과 극우 세력들은 일제히 이민 논쟁에 끼어들어 인종 차별 주의적 발언을 서슴없이 마치 때를 만난 듯 거리낌 없이 쏟아 놓아 아시아 이민의 위협에 대한 사회적인 두려움을 조장하는 데에 마치 불에 기름을 붙는 격이 되었다.

이같은 블레이니 교수의 한 마디의 논평은 일과만파로 공공연하게 백인 우월주의자들로 하여금 앵글로 색슨족의 우월성을 과시하게 만들어 과거의 백호주의 환상에 젖어 있었던 인종

¹⁸ 김형식, *호주의 사회와 문화*, 386.

¹⁹ Ibid., 386-7.

²⁰ Lee, *New Church New Land*, 30.

차별주의자들을 한층 고무시켰다. 한 예로 호주 재향 군인회 회장인 대표적인 백인 우월주의자 브루스 러크톤(Bruce Ruxton)은 “앵글로 색슨인들은 지금, 그리고 언제든지 최고이다”라는 말을 서슴치 않고 공공연하게 말하였다.²¹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상당수의 유명 인사들이 블레이니 교수의 의견에 반대를 하였다. 멜본의 디킨 대학의 베리티 버그만(Verity Burgman) 교수는 “인종적 긴장은 이민자들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인종 차별주의자들의 반응에 의해 생겼다. 인종적 긴장은 비백인 이민자들에 대한 백인 인종 차별주의자들의 반응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함을 통해 백인 우월론자들의 인종차별주의에 반대를 하였다.²²

또한 호주 정부도 다문화 주의적인 호주의 현재 분위기를 지지한다고 재빠르게 성명을 발표하여 자칫 또다시 인종차별로 인한 논쟁을 잠재웠다. 그밖에 대다수의 언론 매체들도 호주 사회의 미래는 성공적인 다문화 사회 속에 그 비전(Vision)이 있다고 논평함을 통해 한동안 불붙었던 이민 논쟁과 인종 차별주의적인 발언을 잠재워 갔던 것이다. 호주의 역사는 한마디로 건국된 1788년부터 처음 호주 원주민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인 문화적 충돌로 점철된 역사였다. 호주 주류 사회의 지배적인 생각은 원래의 원주민 거주자들의 문화에 대한 다른 이주자인 앵글로 색슨족의 문화적인 우월성이었다. 백인 이주자들이 처음 호주 대륙에 발을 내 디딘 이후 앵글로 색슨 문화는 우월한 것으로 조장되었으며 호주의 지배적인 문화로 자리 잡아, 그 후 이주하여 막 자리를 잡으려는 다른 소수 민족 문화에 대한 압박 혹은 제거를 통해 항상 기득권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몇 해 동안 이러한 상황이 어느 정도 변하는 모습을 감지할 수가 있다. 원주민들과 비백인 이민자들의 문화를 재해석하여 호주 사회 발전에 필요한 요소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형태가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 호주 사회의 현재의 모습이기도 하다. 영국 성공회의 대감독 데이비드 펜만(David Penman)은 호주 사회의 다문화 주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다문화 주의는 모든 호주 인을 위한 것이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그것은 소수 민족들에 대한 미끼가 아니며 양심에 대한 변명이 아니다. 그것은 교회뿐 아니라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며, 모든 배경을 가진 평범한 호주 인들과 결국 호주의 토양 내에 뿌리박고 있는 복음과의 만남으로 이끌 수 있는 도전이요, 호주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려는 요구인 것이다.²³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맨 처음 호주 대륙을 발견한 신실한 크리스천인 영국의 제임스 쿡(James Cook) 선장은 호주 원주민들의 삶의 형태를 보고 ‘고귀한 야만인’(Noble Barbarians)이라 지칭하며 이렇게 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지구에서 제일 처참한 사람들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실상 그들은 우리 유럽인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그들은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물론 유럽에서

²¹ Ibid.

²² Ibid.

²³ Ibid., 31.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편의조차 전혀 모르고 지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니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생활 조건상의 불평등을 겪지 않고 평화스럽게 생활을 한다. 그들은 훌륭한 집이나 가구들을 가지고 싶어 하지도 않고 따뜻하고 기후가 좋은 땅에서 살면서 한없이 맑은 공기를 마음껏 즐긴다. 그래서 그들은 별반 옷이 필요치 않고, 그들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²⁴

이러한 쿡 선장의 평가는 당시 영국의 지식인들과 재담가들에 의해 조롱과 비웃음과 비난을 받았지만 호주 원주민에 대한 유럽인의 최초의 호의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언급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문화론을 논하는 오늘날 재해석되고 재평가되는 것이 토착민의 문화와 문명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매우 선견지명적인 안목이었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구촌(Globalization) 시대를 말하고 세계화 시대를 말하는 지금 이 시대에 호주 사회는 이제 어느 특정한 문화만을 고집하며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다른 문화의 실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열린 마음을 가진 동시에, 우리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다문화 속에 한 축으로 자리 잡아 다문화 속에 기여할 수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 그래야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의 어엿한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타문화의 예속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성 속에서 조화와 일치’(Unity and Harmony in Diversity)를 이루려는 굳은 의지와 신념과 자기 정체성을 가진 문화만이 다문화 사회 속에서 생존과 공존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기에 서로의 다른 문화와 삶의 스타일을 인정하고 또 자신의 가진 문화를 더욱 가꾸고 발전시켜 다문화 사회 속에 공헌하고 기여함을 통해 함께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다문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호주 연합교회를 통해서 본 다문화주의의 실재

호주의 역사 학자였던 크로포드(R. M. Crawford)는 “호주의 역사는 이민 역사의 한 장이다(The history of Australia is a chapter in the history of migration)”²⁵ 라고 말한 바가 있다. 1972년 대외적으로 그 동안 유색 인종에 대한 인종 차별과 규제 수단으로 작용했던 악명 높았던 백호주의를 공식적으로 폐기한다고 선언한바 있는 호주 정부는 호주 사회는 이민에 의해 형성된 다문화 사회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1985년 제4차 전국 총회에서 당시 호주 연합교회 총회 선교부의 총무였던 존 브라운(John Brown) 목사가 중심이 되어 “호주 연합 교회는

²⁴ 매닝 클라크, *오스트레일리아의 역사*, 최양희 역 (서울: 을유문화사, 1990), 17.

²⁵ R. M. Crawford, *Australia* (Hong Kong: Hutchinson of Australia, 1970), 13.

다문화 교회이다”라는 선언문과 함께 실친 방안을 총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때는 대표적인 인종 차별 정책이었던 백호주의는 무너졌지만 호주의 정치 사회적인 분위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이민자들이나 난민들에게 적대적이었으며 인종 차별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던 시기였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다문화 주위를 내걸고 앞장섰다는 점은 매우 뜻 깊은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²⁶

1788년 최초로 유럽인들이 호주에 정착하기 시작한 이래 1970년 까지 호주의 인구 증가는 자연 인구 증가율과 이민에 의한 인구 증가율이 서로 엇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그 이후로는 이민에 의한 인구 증가율이 자연 증가율을 훨씬 앞설 만큼 이제 호주를 ‘이민의 나라’라고 부르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²⁷ 호주의 최대 인구를 가진 New South Wales 주의 2012년 조사에 의하면 호주에서 출생한 부모를 둔 주민수가 150년 만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모 양편 모두 해외 출생 부모를 둔 부모 비율은 34%로 올라섰다.²⁸ 이것은 지난 2006년 인구조사 당시에는 각각 50%와 32%로 조사된 것에 비하면 불과 6년 사이에 인구 구도가 크게 바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 호주의 인구와 문화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²⁹

호주의 다문화주의는 호주교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다문화 주의를 지양하는 호주 연합교회(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가 있다. 호주 연합교회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인종이나 국적이거나 신분에 차이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신학적인 대명제 위에 각 소수 민족 기독교의 문화와 전통의 다양성과 신학적인 특징을 인정하면서 ‘다양성 속의 조화와 일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호주 연합교회의 다문화 주위의 배경에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윤리학자로 알려진 리처드 니버(Richard Neibuhr)의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기독교’라는 신학적인 명제에 다문화에 대한 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리처드 니버는 기독교와 이 세상의 문화와의 관계 속에는 다섯 가지의 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로서 기독교와 문화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독교의 전적인 우월성을 강조하는 유형이다. 둘째, 문화의 기독교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문화와의 관계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소홀히 여기는 유형이다. 셋째,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로서 기독교와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갈등이나 문제가 없는 유형이다. 넷째, 역설적인 관계를 가진 그리스도와 문화로서 기독교와 문화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갈등 관계를 나타내는 유형이다. 다섯째,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로서 기독교와 문화와의

²⁶ 양명득,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교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9), 52-3.

²⁷ 김형식, *호주의 사회와 문화*, 363.

²⁸ *Australia Top Weekly News*, September 14, 2012, 15.

²⁹ *Ibid.*

관계 속에서 기독교는 문화의 변혁자(Transformer)로서 존재의 가치가 있으며 이 유형이 가장 바람직한 유형임을 말하고 있다.³⁰

호주 교회들은 리처드 니버의 다섯 가지 유형 중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를 호주 교회와 호주 사회의 다문화화를 위한 신학적인 중심 과제로 삼고 1884년에 처음 연합을 논의하면서 1901년 호주 정부가 6개 주(State)를 통해서 하나의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를 구성하였던 1901년을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교회 간의 연합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실패와 반대와 좌절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무려 처음 연합을 논의한 지 133년만인 1977년에 하나의 교회인 연합교회(Uniting Church)를 만들어 냈다. 그 교회가 지금의 호주 연합교회(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이다. 호주 감리교회 전체와 회중 교회 전체 그리고 호주 장로교회 절반이 연합하여 1977년도에 시작된 호주 연합교회는 호주에서는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을 통해 다문화로 시작된 호주 역사와 호주 교회 역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 1977년 6월은 매우 의미 있고 뜻 깊은 해였다. 그것은 호주 장로교회의 일부와 호주 감리 교회, 그리고 호주의 회중 교회들이 통합하여 다문화 사회인 호주에 하나의 연합된 호주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교회의 공식적인 영어 명칭은 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 이다. 그 당시 세계 교회의 분위기는 교회의 일치 운동(Ecumenical Movement)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1910년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Edinburgh)에서 개최되었던 세계 선교사 대회에서 처음 제기된 교회 일치운동이 1950년 스웨덴의 옉살라(Upsala) 대회를 통해 그 정당성과 타당성이 신학적으로 인정이 되었고, 또 로마 카톨릭 교회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신구교가 일치할 수 있다는 선언으로 인해 교회 일치 운동이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던 것이다.³¹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그 당시 교회 일치를 위한 신학적인 흐름은 교회는 연합되어야 하며 신학적, 사회적인 문제들로 인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때였다. 이때에 호주 감리 교회와 회중 교회는 대부분이 연합교회에 가입하여 연합교회 회원이 되었지만 장로교의 경우는 916개 교회가 가입하였고, 521개 교회가 가입하지 않았다.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 주에 있는 54%의 장로교회와, 빅토리아(Victoria) 주에 있는 24% 정도의 장로교회가 호주 연합교회에 가입을 하였던 것이다.³² 세 교단이 연합을 이룬 후 교단의 공식 영어 명칭에 완료형인 United 가 아닌 진행형인 Uniting 을 쓴 이유는 앞으로도 어느 교회와도 신학과 신앙의 공통점을 찾으면 연합의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의미에서 진행형의 시제인 -ing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때 발표했던 연합 기초서의 성명서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다.

³⁰ 리처드 니버,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64-286.

³¹ 박상증 편, *한국교회와 에큐메니칼운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11-25.

³² 이상택, *시드니와 방랑자* (서울: 양서각, 1988), 190.

호주 회중 교회, 호주 감리 교회, 호주장로교회는 세계 공교회와의 유대 하에 그리스도의 선물이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하신 뜻인 하나 됨을 증거 하고자 호주 연합교회라는 이름으로 연합한다. 우리는 이 하나 됨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한다. 우리는 지난 날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하지 못했음을 시인하고, 우리의 예배, 증거와 섬김이 인류 구원을 위한 말씀을 밝히는데 쓰이도록 새로워지기를 추구한다. 이따로 우리는 교회의 살아 계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충성함으로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속적인 개혁의 마음이 열려있으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보다 넓은 일치를 추구한다. 이 연합에서 각 교회는 소속 교인이 서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사랑과 기쁨으로 용납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부탁을 새롭게 들으며 매일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한다.³³

호주 연합 교회의 탄생은 결국은 또 하나의 교단이 만들어진 것 같은 인상을 주었지만 호주 연합 교회는 어떠한 면에서 신학적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호주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이루어 놓았다는 점과 호주 교회가 더 이상 영국의 이민 교회가 아닌 호주의 상황에서 호주 교회로 탄생되었다는 의미에서 신학적이요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교회로 나가는 발걸음을 처음 시작했다는 데에 신학적이요 사회적인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현재 호주 연합교회 안에는 여러 민족과 종족과 언어로 구성된 다문화 된 소수 민족교회들(Ethnic Churches)이 함께 참여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기존의 호주 교회의 재산(Property)도 호주 교회와 소수 민족 이민 교회들이 함께 공유하며 공동으로 나누어 쓰고 있다. 또 전국 총회나 주 총회 시 영어 외의 다른 언어도 사용할 것과 이민자 교회들이 자기들의 전통에 따라 교회행정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과 호주 연합 교회의 주요 정책 문건들과 예배 양식을 이민자들의 언어로 번역해 줄 것과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민자 교회들을 위해 지원할 방법을 찾도록 요청하는 실천 방안을 요청함을 통해 이러한 것들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같이 다문화 주의를 위한 호주 연합교회의 신학과 호주 연합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의 실천은 호주 사회의 다문화주의를 실재의 삶 속에서 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호주 연합 교회는 다문화 되어 가고 있는 호주 사회의 흐름을 앞장서서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민 생활 속에서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소수 민족 기독교인 이민자들에게 있어서는 스스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호주 연합 교회는 호주 연합 교회를 형성했던 세 개의 기본 교파들의 특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소수 민족 교회를 배려하고 기회를 제공하여 명실 공히 호주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나가는데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칫하면 소외되고 무시될 수밖에 없는 소수 민족의 작은 문화들까지도 배려하고

³³ 양명득,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교회*, 29-30.

이해하고 그 가치를 찾으려는 태도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는 다문화 사회의 본질과 핵심을 꿰뚫은 신학적인 혜안을 가진 쾌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호주 내에 있는 소수 민족 이민 교회들을 호주 연합 교회 안에 통합시키고 참여시키는 일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Oneness in God)라는 신학적인 명제인 하늘나라의 본질을 이 땅 위에 실현시키는 상징적인 행위임과 동시에 ‘다양성속의 조화’(Unity in diversity)라는 다문화주의의 핵심을 몸소 보여주는 신앙적인 실천인 것을 알 수 있다.

3 나가는 말

호주 사회는 오래 동안 앵글로 색슨과 앵글로 켈트족 중심의 수구적인 사회였고, 종교적으로는 천주교와 영국 성공회가 주류 종교로서 호주 사회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불과 30 여 년 전 만 해도 호주 사회는 백인들인 그들만의 그들의 세계를 위한 백호주의(The White Australian Policy)로 악명을 떨쳤던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 구조와 제도로 인해 지금까지도 호주 원주민을 비롯한 수많은 소수 민족의 이민자들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고립되어 변두리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 호주는 아직도 이러한 변두리 인간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고난과 눈물의 땅이다.

이러한 호주 사회가 인종과 종족과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뛰어 넘는 다문화 사회임을 단적으로 밝혀주는 구체적인 예가 2012-2013년 호주 인구조사(종교)의 결과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호주에 들어오는 이민자들은 무종교가 25%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천주교가 18%, 힌두교가 10%, 이슬람교가 8%, 불교가 6%, 성공회가 5%, 침례교가 2%, 장로교와 연합교단이 각각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인구조사를 통해 나타난 것을 보면 현재의 호주 사회는 전혀 종교를 가지지 않은 무신론자들이 다수를 점해가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로마 천주교, 힌두교, 영국 성공회, 호주 장로교, 호주 개혁신교회, 침례교, 호주 연합교회, 그리고 불교 신자들이 제 각기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적으로도 다종교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회인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과 사명, 특히 이민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를 이 땅에 이민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적인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적인 뜻을 제대로 파악하여 여기에 맞는 선교전략과 인재를 길러내어 하늘나라의 확장을 해 가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 크리스천 이민자들과 이민 교회의 책임과 사명일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형식. *호주의 사회와 문화*. 서울: 지구문화사, 2000.
- 니버, 리처드.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박상증. *한국교회와 에큐메니칼운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 양명득.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교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9.
- 이상택. *시드니와 방랑자*. 서울: 양서각, 1988.
- 클라크, 매닝. *오스트레일리아의 역사*. 최양희 역.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from the 2011 census, 2012-2013."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http://abs.gov.au/ausstats/abs@.nsf/Lookup/2071.0main+features902012-2013> (accessed June 1, 2005).
- Crawford, R. M. *Australia*. Hong Kong: Hutchinson of Australia, 1970.
- Houston, Jim, ed. *The Cultured Pearl: Australian Reading in Cross-Cultural Theology and Mission*.
Melbourne: Joint Board of Christian Education, 1988.
- Jupp, James. *From White Australia to Woomera: The Story of Australian Immig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_____. "Immigrant Settlement Policy in Australia." In *Nations of Immigrants: Australia,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 Migration*, edited by Gary P. Freeman and James Jupp.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Lee, Sang Taek. *New Church New Land*. Melbourne: Uniting Church Press, 1989.
- Lew, Seong Choon. "Inculturation of Christian Festivals in Korea: Christmas, Easter and Thanksgiving."
D.Min. dissertation,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1994.
- Lopez, Mark. *The Origins of Muliculturalism in Australain Politics 1945-1975*. Melbourne: Melbourne University Press, 2000.
- Richmond, Helen and Apwee Ting, "Berakar dan bertumbuh di negeri baru: Taking Root and Growing in a New Land." In *Crossing Borders: Shaping Faith, Ministry and Identity in Multicultural Australia*, edited by Helen Richmond and Myong Duk Yang. Sydney: UCA Assembly and NSW Board of Mission, 2006.

알파크루시스 신학대 논문집 제4권
Journal of Alphacrucis College Korean Campus

